현대불교

제 771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4년 2월 17일(음력 1월 4일) 수요일(주간)







태국 10만명 수계의식 열려

태국 방콕 담마까야 사원의 담마까야 세티야(Dhammakaya Cetiya)광장에서 2월 6일 태국 남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하는 수계의식이자 단기출가인 부앗낙(Buat nak)행사가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태국 내 출가자 감소를 우려한 태국 승단과 정부가 마련한 것으로 태국 전 지역 340여 사찰에서 3만4862명의 출가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3월 8일까지 오후불식, 탁발수행 등을 하며 스님으로서 생활한다. 관련 기사 5면

이나은 기자

조계사 문화공간으로…

조계종, 종단 4개년 계획 발표… 진행과정 매월 공개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은 2월 10일 제33대 집행부의 종단 4개년 발전계획 첫 월례 브리핑을 열고 조계사 성역화 등 주요사업의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원담 스님은 "종단 위상과 1700년 한국불교문화의 상징이란 점에서 조계사를 성역화 해 불교전통문화 공간으로 가꿔야 한다는 큰 윤곽이 구상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원장스님이 내달쯤 직접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지방사찰은 사찰환경이 잘 가꿔졌지만 외국인들이 방한 시 대부분 서울사찰, 그 중 조계사를 둘러본다는 점에서 성역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역대 집행부에서 성역화를 추진했지만 자승 스님은 지역문화와 연계해 보다 큰 포맷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사 성역화 사업은 조계종 기획실과 주무부처인 서울시 문화부 등 서울시 5개국, 종로구청 등이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공개된 조계사 성역화 등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의 진행상황은 매월 공개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직할교구 인사고과제도와 총본산 성역화 사업 등 불교 각계의 이해상충이 걸린 사업 진행 시 이를 종도들에게 알리고 '종단백년대계'란 대명제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원담 스님은 "현재 발전계획의 각 부서 간 업무분장이 이뤄진 상황으로 부서이기주의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매월 전체회의를 통해 개별 사업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33대 집행부는 1/4분기동안 승가교육 개선 · 신도 교육 및 조직화 · 직할교구 주지인사고과 · 종단발전위원회 · 총본산 성역화 · 종단재정구조 합리화 등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승가교육개선 분야는 승가교육진흥위 종령이 제정돼 2월 5~8일 행자 입문교육이 시행됐다. 신도교육조직화 분야는 신도등록관련법령 개정안이 3월 종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신도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2월 중 새 신도증 가맹사업장이 확대된다.

또 신도등록 실적을 주지인사고과에 반영토록하는 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승가복지 분야에서는 승가복지법안이 3월 8일 중앙종회에 상정 예정에 있으며 국립공원제도 개선과 관련해 2월 24일 문화재사찰주지회의,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밖에 종단 재정구조합리화 및 화쟁 위원회 설립은 근거법안 및 위원 위촉안 등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2월 11일 종단발전위원회에서 총무원 4개 부처에서 각 2명의 종단발전위원이 위촉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도 강화된다.

원담 스님은 "이번 종단발전계획은 종법개정의 미비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장기 로드맵에 의해 객관화 · 양성화된 종책집행이 이뤄진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수시로 종도들과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불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봉원사 소유권 분규 57년 만에 해소

조계종 봉원사특위 · 봉원사, 법원의 토지 분할 조정안 수용

1954년 이후 57년간 조계종과 태고종간 분규의 상징이었던 신촌 봉원사 소유권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신촌봉원사문제해결을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성직, 이하 봉원사특위)가 2월 8일 법원의 토지 분할 조정안을 수용한데 이어, 태고종 봉원사도 9일 산중총회를 열고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정안 수용에는 두 종단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불교발전을 위해 불신과 반복을 버리고 화합하는 토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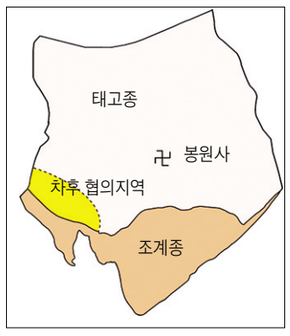
양 측의 조정안 수용은 태고종 봉원사 측이 3시간 여의 장고 끝에 조정안 수용을 결정하며 극적인 분규 종식을 이뤘다. 앞서 수용을 결정한 조계종 특위 회의 때와 달리 봉원사 50여 대중스님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은 "사중에는 '선사로부터 물려받은 사격을 축소할 수 없다'는 스님들이 많았지만 '타종교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봉원사 문제로 불교계와 종단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 모였다. 태고종, 조계종을 떠나 한국불교의 큰 틀에서 더 큰 걸음으로 불교 중흥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봉원사특위 위원장 성직 스님은 조계종 특위의 수용결정 이후 "이번 신촌 봉원사 문제 합의를 시작으로 조계종과 태고종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측 봉원사 주지 법안 스님도 "두 종단이 자비와 화합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조정안은 태고종이 99필지 13만 511㎡(3만9480평)를, 92필지 6만 575㎡(1만8324평)를 조계종 소유로 한다고 명시했다[그림]. 사찰 수행환경을 유지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과 경내외 소유 토지에 대해 제3자에 매도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조항을 넣어 삼보정재의 유실을 막았다.



법원의 조정안은 15일까지 양측의 이의제기가 없을 시 최종 확정된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조만간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계에서는 이번 봉원사 소유권 문제 합의를 바탕으로 조계종과 태고종 간 분규사찰 문제가 해결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종단 간 분규사찰은 순천 선암사를 비롯해 대구 흥천사, 서울 백련사, 성주암 등 10여 곳이다.

노덕현 기자

#신촌 봉원사 분규는…

신촌 봉원사는 '분규사찰' 중 대표적 사례이다. 2001년 11월 조계종이 봉원사 등기명의를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변경했고, 태고종이 등기말소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송사가 시작됐다. 2005년 법원은 태고종의 봉원사에 대한 점유권을 인정했지만 법적공방은 계속돼왔다. 결국 양 종단은 봉원사 소유권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 3월 8일 두 종단 9인 대표가 대책위원회를 꾸려 협의를 진행해왔다.

"죄송하다" 강희락 경찰청장 사과

9일 자승 스님 예방 재발방지 약속

만취한 경관이 지관 스님(김포 용화사 주지 ·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을 폭행한 사건이 강희락 경찰청장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자승 스님은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들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종단도 (지관 스님) 본인의 뜻을 존중하려 한다. 일반 시민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경찰에 의한) 폭행사건이 (스님에게) 일어났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강희락 청장은 "수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지관 스님과 인연을 이어오던 중에 사건이 일어나 더 안타깝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청장의 예방은 4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자승 스님 예방과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사과에 이은 것이다.

조계종은 이번 사건 초기 알려진 사실과 달리 새로운 내용 등이 확인되자 사건의 확대해석에 따른 부담을 많이 느꼈다는 후문이다. 또, 사건 당사자인 지관 스님이 가해 경찰관 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종단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경찰 수장인 강희락 청장의 예방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검찰 국정원 조사 중앙지검 밝혀

검찰이 조계사에서 개최 예정이던 시민단체 행사에 취소 압력을 행사한 국가정보원을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교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가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과 직원 권모씨를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2월 7일 밝혔다.

이에 앞선 3일 불교환경연대, 대불청,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9개 단체는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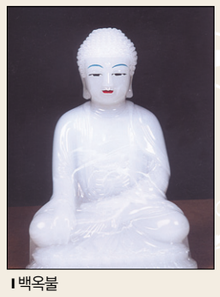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24 새 연재-다구를 찾아서 ▶6 현장-길상사 ▶14 선지식-정현 스님 ▶8 인터뷰-법안 스님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백옥불


대나무숯불


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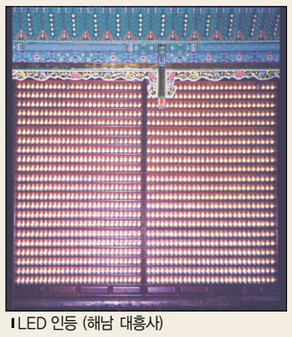
▪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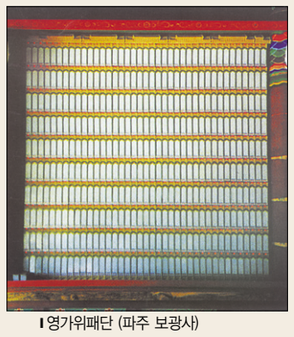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 옥촛대.
▪ 연등전선 시공.

正宇불교예술원(구.정심원) www.jeongwoo.info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LED 인등 (해남 대흥사)


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정우불교 등


공단등 바리등 영가등 금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社說

외형 변화가 조계사 성역화 아니다

조계사는 한국불교 1번지로 불린다. 조계종의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이 위치하고 있고, 중요 기관과 기구, 단체들이 조계사와 인근에 입주해 있다. 조계사 주변 거리에는 불구점과 차, 서화점들이 들어서 있어 독특한 거리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 곳이다.

조계사 성역화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 10일 조계종은 제33대 집행부 종단 4개년 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 조계사 성역화를 주요사업으로 제시했다. 조계종은 조계사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단의 위상과 1700년 한국불교문화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불교전통문화공간으로 가꿔간다는 큰 방향을 제시했다.

조계사 성역화는 역대 집행부의 숙원사업이었다. 상징성을 띤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시멘트 건물에 둘러싸여 한국불교의 오랜 역사와 조계종의 사회적 위상에 어울리는 외형을 갖추지 못했다. 종단 상층부의 다툼과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조계사 성역화 불사의 첫 번째 조건은 종도들로부터 신뢰받는 집행부다.

아울러 조계사라는 공간이 우리 것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는 데서 발걸음을 떼야 한다. 불자들은 물론 시민들이 내 마당처럼 드나들면서 불교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무원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이 논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또 외형만의 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에 담긴 정신의 발원지로 애초부터 구상되어야 한다.

국정원장이 사과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가해 시민단체의 행사가 취소된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넘었다. 조계종 총무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불교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국가정보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슬쩍 넘어가려는 것인지 답답하다. 이런 와중에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의 직무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 대정부전복 · 방첩 ·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 자재 ·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 조정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정원의 직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있는 만큼 대통령의 지시 ·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조계사에서 열려 했던 시민단체의 행사가 국가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사로 보기 어렵다. 이런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계사에 압박을 넣은 것은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시민의 권리를 빼앗은 반민주적 처사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조치하고, 국정원장은 시민단체와 불교계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불자 세상보기

변혜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더 확대되어야 할 의료 공공성

최근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의 최우선 과제인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는 영리병원이 국민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그 효과는 없거나 미지수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KDI의 보고서는 영리병원 허용으로 의료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고용효과와 경제성장 효과가 매우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연구결과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두 연구결과 모두 '영리병원 도입'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지만, 기재부가 의뢰한 KDI의 보고서는 거짓에 가깝다. KDI의 보고서 내용에는 영리병원 허용 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만한 실증적 데이터가 전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 보고서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비가 감소한다는 전혀 사실무근인 주장까지 한다. 이게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정부부처 보고서의 현 주소다.

과학적 근거나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영리병원을 해야 한다는 KDI의 보고서가 기대고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가설뿐이다. 하지만 보건경제학의 첫 번째 기초상식은 보건의료 부문은 시장의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오히려 시장실패의 영역이 바로 보건의료 부문이라는 점이다. 의료공급자(의사)-소비자(환자)의 정보격차가 너무 커서 시장원칙이 작동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말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병원이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렸을 때, 어떤 수술의 필요성을 제시했을 때, 환자가 판단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정보나 영역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흔히 의료시장주의자들은 '자장면'의 예를 들어, 자장면이 경쟁을 하면 가격이 내려가고 질이 좋아진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분야는 자장면 가게의 시장메카니즘이 작동될 수 없는 영역이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이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해외 유수한 연구결과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의 환자 1인당 의료비는 비영리병원에 비해 20%나 더 높다. 당연한 결과다. 영리병원은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병원이 더 많은 이윤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합법화해주는 것이다. 병원에서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병원이 돈은 더 많이 버는 방법은 딱 두 가지다. 환자들에게서 더 많이 치료비를 받거나, 병원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일, 이러한 이유로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진료비는 더 비싸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율도 더 높게 조사된 것이다. 게다가 병원은 다른 제조업과 다르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 하나의 '공장'이라고 볼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환자 한 명당 배치된 의료인력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결국 인건비의 삭감이 초과이윤을 가져올진 몰라도 그러한 병원인력의 구조조정과 비정규직화는 환자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윤이 남지 않는 작은 소도시에서는 의료기관이 사라져갈 것이고, 수도권 중심의 대형병원들로 집중되는 현상은 더욱 가속화돼 국내 의료전달체계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지난 9월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민영화법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의견서는 1만 1000여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토로했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아직도 이렇게 크다는 사실이다. 건강권은 기본권이다.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지금도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할 일은 의료를 더욱 상품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는 일이어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2월의 테마-인연

좋은 인연이란 없다

어릴 때 어머니는 수퍼우먼이었다. 돈 들어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는 분이었다. 새벽에 밥을 차려놓고 4남매가 일어나기도 전에 나가셔서 춥거나 덥거나 늘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셨다. 저녁에는 피곤하기도 하셨으련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밥을 차려주시고 빨래를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잠들고 나서야 이불속에서 눈을 붙이셨다. 지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입맛도 잃어버리셨지만, 열심히 "가 갸 거 겨" 한글을 배우는 어머니가 사랑스럽다.

10여 년 전에 경상도 어느 산사에서 머문 적이 있었다. 갈 곳 없는 나그네가 되어 1년 남짓 머물며 예불하고 법당과 마당을 청소했다. 스님의 엄격하면서도 인간적인 천진성을 엿보기도 하고 보살님의 정성어린 공양을 양푼 가득 비벼서 맛있게 먹기도 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하는 것이 처음에 힘들었지만 고달픈 나그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더없이 좋은 산사였다. 개나리도 피기 전에 올라간 산사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내려왔다.

좋은 인연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저 존재 그 자체로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연들.

산골 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나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 논두렁 밭두렁을 놀이터로 동무들과 어울려 놀았다. 세수도 하지 않고 신나게 놀다가 "밥 무러 오이라!"는 어머니의 외침소리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때 매일같이 싸우던 동무가 있었다. 지금은 왜 싸웠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리는 장군과 멍군을 주고받으며 싸웠다.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갈 무렵 나는 부산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도시로 나간다는 설레임과 더불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을 것이라 믿고 좋아했다. 그런데 부산에서 지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나는 고향이 그리워 앓아누웠다. 매일같이 싸우던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대학 시절 학비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신문지국을 전전하며 숙식했다. 신문지국은 좁은 방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지저분했다. 게다가 그 가운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라도 하면 밤에 잠을 자기는 다 틀렸다. 낮에 학교에 가야 하는 나로서는 새벽 3시경 신문이 도착할 때까지 술 마시며 떠드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다.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밥이라도 먹으려면 갈 곳이 딱히 없었다. 수 년 동안의 떠돌이 생활에서 벗어나던 날 얼마나 기뻤던가!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도 차츰 그리운 사람이 되어 이제는 추억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좋은 인연이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연들.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쁜 인연이 없다. 좋은 인연도 없다. 좋고 나쁜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버스며 전철 속에서 내 옆자리를 지키고 있다. 가끔은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며 싸우기도 하고 어울려 놀기도 하면서 소중한 인연들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이종수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상임연구원

현불만평

박구원



십시일반 면회갈 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국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 원음종 창종을 알립니다

삼보에 귀의하옵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음을 세상에 바르게 알리고 펼치기 위하여
석가모니 부처님의 계,정,혜 삼학을 근본으로 하는 원음종을 창종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경전 말씀을 믿고 수행하는 불자님들과
삼계의 불연이 있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며
나아가 도과를 얻고 종래에 해탈을 이루기를 발원합니다.

대한불교 원음종 종정 순일

• 창종위원 : 혜원, 혜려, 다함, 다원, 무유

*** 법 어 ***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다면 구원은 없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은 아니다.**

■ 창종일시 : **2010년 2월 7일 사시**
■ 장 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166-3
대한불교 원음종 총본산 순일선원
www.soonil.org
■ 전 화 : 070)7779-7711

초발심수행자의 길로 인도

조계종 교육원 5~8일 행자입문 교육 첫 실시

갓 출가한 행자를 위한 조계종 교육원의 행자입문교육이 처음 실시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2월 5~8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1차 행자입문교육을 실시했다. 행사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 취임 이후 진행중인 종단 교육진흥 계획의 일환으로 최초 실시된 것으로, 행자등록을 마친 2개월 이내 행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다.

이번 제1차 입문교육에는 최근 2개월 내 출가한 행자 26명(남행자 16명, 여행자10명)이 참석했다. 행자들은 나흘간 일정을 통해 출가자로서의 신심을 다지고, 사찰 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

첫째 날,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강의 '출가자의 길'을 통해 출가자로의 다양한 진로 및 목표를 제시해 행자들이 각자의 출가생활의 로드맵을 준비하도록 도왔다.

둘째 날에는 연수국장 광전 스님이 강의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에서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현황과 위상 등을 설명했다. 또,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은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 부처님이 제시한 출가수행자 상을 제시했다.

셋째 날에는 불학연구소장 원철 스님이 계율과 출가자의 윤리에 대한 강의 '불교와 윤리'를, 박범석 동국대 외래강사가 '성격유형이해 애니어그램' 등을 교육했다.



2월 8일 조계종 제1회 행자입문교육 회향식에 앞서 행자들이 오계를 수지하는 모습.

넷째 날에는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이 특강 '내가 본 불교'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출가자의 자세를 설명하고, 오계를 수계했다.

특히, 매일 마련된 '사찰생활상담'에서는 은산 · 담교 스님이 상담사로 참여해 행자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전했다.

교육 후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광전 스님은 "설문조사 결과, 행자들이 불교에 대한 특별한 신앙 없이 발심만으로 출가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밖에서 본 출가자의 생활과 안에서 행자로서 겪고 있는 삶이 다른 데서 오는 괴리감, 행자끼리 등 사찰 구성원간 갈등에 고민하는 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는데 입문교육의 초점을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발심만으로 출가를 결심한 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찰 생활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움이 많다. 행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편안케 하고, 조계종단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출가자로서의 원력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행사"라고 말했다.

8일 회향식에서 현응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은 삶의 문제를 벗어나 있지 않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수행"이라면서 "부처님 가르침은 지혜와 자비로 구분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지혜는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지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자비를 표현 ·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정법에서 어긋남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비행자 · 보살의 삶을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고불암 조사 촉구'

총무·호법위 연석회의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 무자)와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법광)는 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해인사 고불암 경매 및 토지 수용과 관음사 토지 처분 등 현안 사태에 대해 총무원의 신속한 조사가 요구된다. 위법사항을 발견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은 2월 9일 경매처분에 들어간 해인사 고불암의 무량수전과 관련해 감사국 주관 하에 재무부, 호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조사팀을 파견해 현황파악을 진행 중이다. 이날 각 분과위원회는 조사 중임을 감안해 3월 8일 종회에서 보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위원회 등 종회차원의 조사기구 구성은 논의에 그쳤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김포 용화사 주지 폭행사건과 조계사의 국정원 직원 출입금지와 관련된 보고도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불교온라인쇼핑몰
Hyunbul Shop

사은품 증정
족욕기 145,000
☎ 02)2004-8216



설날 공동차례 지내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가섭)는 2월 11일 센터 내 강당에서 '설 공동차례지내기'를 개최했다. 고향에 가지 못하거나 직접 차례를 준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이 날 행사는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전통놀이 체험마당과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예동아리 어르신들의 지방써주기 행사, 어르신 장기자랑도 함께 진행됐다.

박재완 기자

직할교구 주지 인사고과제 실시

조계종 올 상반기 시범 운영

조계종이 올 상반기부터 직할교구에 주지 인사고과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교구신도회 구성, 복지거점사찰 지원 등을 통한 포교의 효율성 제고를 시험한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자승, 당연직 총무원장)는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10년 제1차 교구종회를 열고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인사고과제도 시행안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직할교구 사찰 주지는 임기 만료 3개월 전 종령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업적을 평가받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총무원장, 총무 · 재무 · 포교부장, 총무원장 추천 2인(가안)으로 구성되며 종무행정, 포교 · 복지 · 재정 · 불사 분야에 걸쳐 갑 을 병 정 무 5단계로 평가가 진행된다. 이에 앞서 사찰 주지는 연 1회 수입과 지출, 종무행정의 전반을 담은 보고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교구종회에서는 4월 직할교구 신도회 창립 및 복지사찰 지원 사업 등 2010년 사업계획도 의결됐다. 각 사업에 따른 직할교구 총 예산액은 2억4899만원으로 확정됐다.

노덕현 기자

관음사 부채 해결 위해 땅 팔기로

경매 막을 미봉책… 종단 사찰 관리 한계 드러내

전임 주지의 과도한 채무로 사찰 토지가 줄줄이 강제경매에 넘어간 제주 관음사가 경매를 막기 위해 결국 땅을 팔기로 했다.

제주 관음사(주지 원종)는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청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경매사태에 이른 관음사에 종도들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관음사의 경매사태는 17년간 재임하던 前 주지 중원 스님(멸빈)이 관음사에 떠넘긴 부채 35억원에서 비롯됐다.

중원 스님은 1991년 관음사에 부임해 2002년까지 주지를 지냈다. 2002~2007년 회주로 있는 동안에도 종헌 · 종법에도 없는 '주지권한 포괄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주지 행세를 해왔다. 스님은 17년 동안 주지 소임을 살았지만 관음사를 떠날 때는 장부와 통장, 신도카드 등 일체의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17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 자료가 사라진 관음사에 남은 것은 12억원의 금융부채. 여기에 중원 스님의 측근이 나서 관음사에 빌려준 돈 21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걸었다.

원종 스님은 "관음사에 대여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한 사람은 중원 스님 상좌인 H 스님(김00, 멸빈)을 비롯해 측근인 S 스님(원법사 주지, 멸빈), 천축사 신도로 추정되는 이00 보살"이라며 "한때 같은 조계종 승려로서 관음사에 재임했던 사람들이 관음사의 삼보정재를 공중분해 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관음사가 '중원 스님 측근'으로 파악한 채권자들은 현재 관음사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건 상태이다. 특히 현공 스님은 창원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승소하자 채권을 추심해 관음사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사찰소유 토지를 강제경매에 넘겼다.

관음사는 총무원에 기채승인을 얻어 공탁을 걸고 강제경매를 중지해 놓은 상태이다. 관음사는 3년여 이어진 소송비용과 공탁금 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종 스님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 정의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적극대응해 관음사 도량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교계에서는 관음사 사태를 계기로 종단 차원에서 삼보정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총무원 기획국장 만당 스님은 "관음사 사태는 종단 사찰관리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현행 종헌 · 종법대로라면 주지가 신도 등과 합의해 사찰을 매각해도 사회법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음사 소송을 진행 중인 김봉석 변호사는 "전임 주지가 주지해임을 수용하지 않으면 직무정지가처분이 발효될 때까지 예금인출 등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죽비와 목탁

종립 동국대학교의 초라한 위상

이명박 대통령은 부적절한 외교적 처신으로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일왕과 악수할 때 고개 숙인 모습이 노무현 前 대통령과 비교되는가 하면, 2008년 가을 러시아 순방 때는 러시아에서 외교장관이 아닌 외교차관이 영접을 나와 '저자세 외교' '굴욕외교'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최근 동국대는 "오 총장이 미국을 방문해 위스콘신대, UCLA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문제는 학술교류협정 체결 주체이다. 오영교 총장은 UCLA에서 총장 아닌 처장급 인사와 협정을 체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가 생각난다.

지난해 가을부터 동국대는 UCLA와의 학술교류협정 체결에 특별한 공을 들였다. 당시에는 정부로부터 약학대 건립 승인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동국대는 오 총장과 UCLA 총장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인 로버트 버스웰 UCLA 교수에게 이를 부탁했다. 그 때 버스웰 교수는 웃으며 "UCLA 총장은 많이 바쁜 사람이다. 협정 맺은 학교가 수백 개인데 그 학교 총장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만나겠느냐"며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이 보도(본지 2009년 9월 23일자)되자 동국대 관계자는 "오 총장의 미국 방문 계획조차 없다. 버스웰 교수와의 대화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공교롭게도 수개월 후 오영교 총장은 UCLA에서 버스웰 교수가 배석한 가운데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UCLA 총장은 만나지 못한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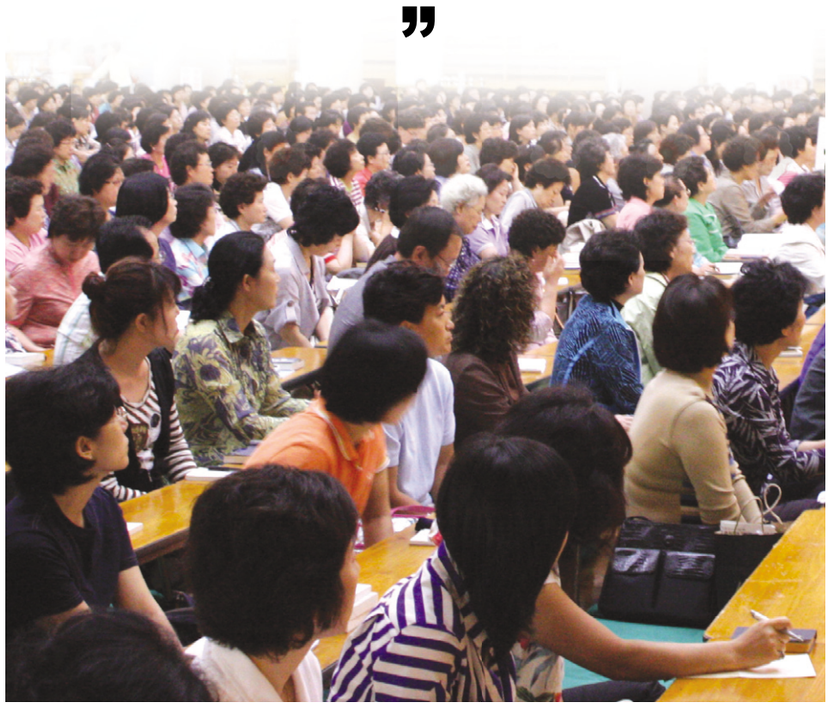
오영교 총장도 이명박 대통령처럼 실용외교를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로버트 버스웰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에 대한 서운함은 이를 수 없다.

궁금하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불교학술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 지….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실전 및 현장 위주의 교육을 합니다
포교는 정말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내 및 국외 포교사 양성을 위한 포교전문대학원

부처님 세계는 블루오션입니다

한국불교와 세계불교 그리고 능인선원 본원과 지원을 이끌어갈 제 2세대 핵심인재와 전문포교사를 모십니다.

Foreign monks also welcome!

포교에 헌신할 스님과 신심있는 재가불자 등 미래불교를 개척할 원력을 지닌 분들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자격
스 님 : 국내외 포교활동과 절을 운영하려고 하는 스님(외국스님 포함).
재가자 : 불교대학 전문과정(1년 또는 2년)을 수료한 자,
이에 준하는 사람에 한한다. 00명.

2. 과 정
1년 과정 2학기제 : 1학기(3월-6월), 2학기(9월-12월) : 의식집전, 포교방법
불교사상 불교문화, 사찰행정, 사찰경영, 스피치 교육
설법 발표 토론, 수행지도법
여름/겨울방학 집중코스 : 설법발표, 수행지도법 강화, 의식집전 실습 · 토론

3. 시 간
토요반 : 10시-13시(설법강의/발표/토론) · 평일오후반 : 월요일 오후(3시-6시)
평일저녁반 : 금요일 저녁(7시-10시) 선택. 나머지 시간은 시간여유와 능력에 따라 교수별 개인지도 및 일대일 실습.

4. 학 비 : 학기당 30만원
5. 지도교수 : 스님 및 국내외 저명교수
6.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장래 활동계획(3쪽 내외)

7. 혜 택
능인 대학원(화성) 입학 특전,
미국유학 시 미국 능인 뉴욕국제대학(NIU) 입학 특전,
포교당을 운영 시 운영 노하우 제공,
능인 전문 포교사 자격증 부여,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부, 교도소 군포교, 직장포교, 가정법회 등 포교활동 시에 능력별 경제적 지원.
우수한 자는 능인선원의 본원과 지원, 국외 포교당 개설시 주지 발령 및 운영자격 우선 부여.

개 강 일 : 2010년 3월 15일(월)
지원양식 다운로드 : www.gotobuddha.org / 커뮤니티 / 자료실
계좌번호 : 100-025-946270 예금주 능인선원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접수 또는 e-mail / momwjm@hanmail.net
접수기간 : 2010년 2월 말까지
연 락 처 : 010-8288-3416 (백도수) , 010-4292-1882 (IT본부)
※ 능인 교무 행정처 요원 모집 :
신심 있는 불자로서 교무행정경력자를 뽑습니다.

재단법인·대한불교조계종 능인선원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055번지
Tel. 02)577-5800 Fax. 02)577 0052



자승 스님 용산참사 유가족 위로

설 연휴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용산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초청해 선물과 위로비를 전달했다. 자승 스님은 "원장 당선 후 참사현장에서 유가족들의 말을 듣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며 "늦었지만 문제가 해결돼 다행"이라고 위로했다. 전재숙 씨는 "스님들의 도움에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초청 행사에는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대표), 명진 스님(봉은사 주지) 등이 함께했다. 초청된 유가족은 전재숙(故 이상림씨 미망인), 김영덕(故 양회성씨 미망인), 권명숙(故 이성수씨 미망인), 유영숙(故 윤용현씨 미망인), 김권찬(故 김남훈 경사 부친)씨 등 5명이다.

이상언 기자

육군훈련소 신법당 건립 추진

군종교구, 2012년 완공 목표로 50억 모연 등 계획 발표



매년 10만 이상의 정예 불자를 사회에 배출하는 매머드급 군법당이 5월 8일 기공에 들어간다. 조계종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사진)은 2월 9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증축불사를 제1사업으로 하는 신년 계획을 발표했다.

군종교구는 호국연무사 옆 부지를 활용해 3500명 규모의 법회공간과 1500명 규모의 교육관 등을 완비한 다목적 공간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불교계 최대 전법 포교도량이 되는 육군훈련소 신법당은 총 100~110억 정도의 건립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자광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육군훈련소 법당은 화랑의 후예들이 호국의 불심을 키워가는 계를 받는 중요한 곳"이라며 "차후 사단 훈련소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이 집중될 계획으로 증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연비를 해줄 통로마저 확보가 안 되는 등 너무나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이라며 "논산 훈련소 법당 건립을 위해 범불교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육군훈련소 법당 증축불사는 불사추진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로 기본적인 설계안 및 모형까지 제작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막대한 불사금 마련이다. 지난해 11월 27일 군승의날 불사 추진선포식 이후 2달 간 현금 2억 8000여만 원, 약정을 포함해 13억 원 가량의 기금이 마련됐다.

군종교구는 우선 2012년 완공을 목표로 2010년 사업비 50억 원을 모연할 계획이다. 기공식을 기해 모금법회, 불사현장 탐방 성지순례가 진행되며, 전국 사찰, 불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후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광 스님은 "여러 종단들이 군포교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종교전쟁을 벌이는 지금,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포교에 나선다면 늦는다. 무에서 유를 이끌어 낸다는 마음가짐으로 군포교 활동에 나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군종교구는 △교구 조직 재정비 △군승 입대 전 교육 및 관리강화 △현역군승 보수 · 교육 강화 △재정 자립 모색 등 중점사업도 공개했다. 특히 입대 전 군승 자원관리에는 군승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종립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 3박4일 소집 교육 등 정례교육이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東大, 美 위스콘신대 등과 협정

"학생교환 및 교류사업 확대"

동국대(총장 오영교)가 미국 위스콘신대(University of Wisconsin, River Fall), UCLA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동국대는 "오영교 총장이 1월 27일~2월 1일 미국 내 3개 대학을 방문해 위스콘신대 밴 갤런 총장, UCLA 니콜라스 처장과 각각 만나 학생교환 및 교류사업 확대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8일 발표했다.

동국대와 UCLA의 학술교류협정에는 동국대의 대표 학술분야인 불교학, NT(나노 테크놀로지) 등을 중심으로 양 대학이 실질적인 교류를 시행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동국대와 위스콘신대는 동국대가 매년 운영하는 인터내셔널 썸머스쿨(International Summer School)에 위스콘신대학 학생을 파견하는 등 교수 · 학생의 교류에 합의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오 총장은 한의학 전문대학원인 동국로얄대(DULA)의 LA 현지 캠퍼스와 동국대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스토니브룩(Stony Brook)대도 방문했다.

조동섭 기자

진흥원, 승가대에 대원학술기금 전달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오른쪽)이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에게 후원금 1억원과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 이하 진흥원)과 중앙승가대(총장 태원)는 2월 9일 중앙승가대 총장실에서 대원학술기금 2차년도 기금전달식을 개최했다.

진흥원은 중앙승가대의 창조적 학풍 진작을 통한 현대적 불교정신의 개발 · 보급 · 전파를 돕고자 2009년부터 1억원의 대원학술기금을 전달해 왔다.

중앙승가대는 대원학술기금을 통해 △연구기관(연구자) 지원사업 △학부생 지원사업 △대원학술상 및 우수 저서 및 학술논문 시상 △해외유학승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조동섭 기자

어머니 춤 노래에 장병 어깨 으쓱

불교여성개발원·여성불자108인회 백마부대서 공연

"어머니~ 사랑합니다."

청년들의 우렁찬 함성은 꽁꽁 얼었던 대지를 깰 기세였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과 여성불자108인회는 2월 6일 제1회 새해맞이 군포교 공연행사를 마련해 일산 백마부대 9사단 장병들과 함께 사랑과 감동을 나눴다.

강당을 뚫고 넘어 온 함성소리를 따라 들어간 예스러운 강당에는 900여 군인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불자 탤런트 전원주가 무대 위로 달려 올라가자 군인들은 일제히 "어머니~!"라며 환호성으로 반갑게 맞이했다.

"이효리가 와야 여러분이 좋아할 텐데 내가 왔네…"라는 전원주의 말에 "괜~찮~습니다!"라며 장병들은 힘차게 대답했다. 이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간 선우용녀는 장병들의 요청에 춤과 노래를 과감하게 선보이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대학생 악극, 아카펠라, 불교여성개발원 회원과 군부대 어머니들의 공연, 장기자랑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짜임새 있는 구성과 내용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신병교육 한 주를 남긴 신병들과 대학생 위문단이 장기자랑에서 자신의 숨은 끼를 발산했다.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한 한동주 9사단 사단장은 "장병들의 사기가 상당히 고양됐다"고 말했다. 공연을 마치고 사단장과 이동경 9사단 법사는 위문단들에게 현재 불사 중에 있는 9사단 법당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동경 법사는 "신교대에서는 불자 장병의 수가 월등히 많지만 자대 배치 후 법당이 없어 절반 이상이 교회에 가는 실정"이라며 법당 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한 불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 김인숙 · 이인자 고문, 황수경 상임위원 등이 함께했다.

이상언 기자

100字 뉴스

조계종 종단발전위 종단 4개년 발전계획 논의

조계종 종단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는 2월 11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종단 4개년 발전계획 수립 결과 및 1월 추진현황 △직할교구 주지인사 고과 제도 △종단 토지 처분금의 효과적 활용 방안 △신도 교육과 조직화 관련 법령 개정 △종단 4개년 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종법 개정 △종단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상 · 영배 · 향적 · 지홍 · 성직 · 장적 스님 등 발전위원, 총무부장 영담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원 전법단·포교결집대회 운영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올 한해 교구본사 포교국장, 지역법회 담당 출 · 재가 법사, 불교대 강사, 포교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법단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전법단은 교구본사 포교국을 중심으로 직장직능, 대학생 등에 법회, 상담, 수행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한편 3월 13일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5월 2일까지 전국 지역 포교결집대회를 봉행한다.

불교문화사업단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동참

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훈)은 밴쿠버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코리아 하우스'에서 템플스테이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한국전통불교의 멋을 알리는데 동참한다. 2월 13일 열린 코리아하우스는 대한체육회와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며 전 세계인을 상대로 한국홍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설치됐다.

조계종 의료봉사단 아이티서 자비행 실천

조계종 의료봉사단(단장 묘장, 조계종 사회국장)이 아이티 현지 의료봉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봉사 첫날인 2월 5일 273명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은 데 이어 조계종 봉사단의 진료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도 봉사단을 찾아와 6일에도 이른 아침부터 봉사단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파견 나흘째인 8일까지 조계종 봉사단의 진료소를 찾은 환자는 총 942명으로 집계됐다.

태허스님사업회 항일운동기념관 건립 모금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한 봉선사 태허 스님(운암 김성숙)을 기리는 태허스님기념사업회는 1월 25일부터 네이버(happylog.naver.com/9100ua.do) 해피로그에서 '항일운동기념관 건립 모금'을 시작했다. 이번 모금은 '운암항일운동기념관' 설립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현재 운암청년단을 주축으로 해피빈 콩 모으기를 진행중이다.

조계종복지재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종로 · 중랑구에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유치해 이웃사랑 실천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종로 ·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자치구의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담직원과 방문교육 지도사를 모집하는 등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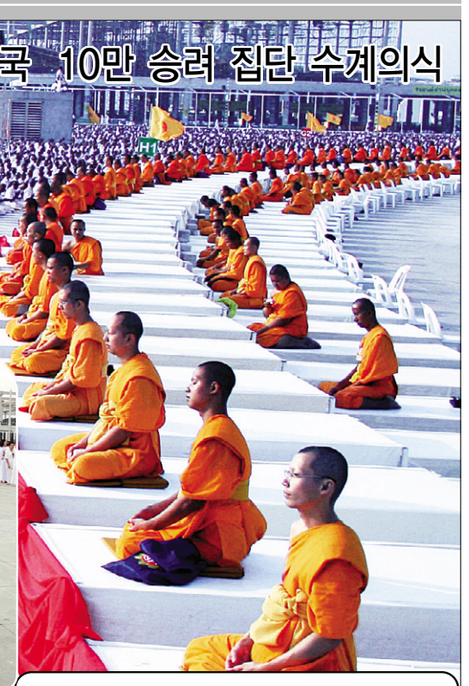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태국 10만 승려 집단 수계의식

엄숙하고 신비스러웠다



3만여 태국 출가후보자들이 수계 허락을 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월 6일 전국 340여 사찰서 3만4862명 수계
49일간 오후불식 · 탁발수행 등 수행자로 생활

"Buddham Pujemi, Dhammam Pujemi, Samgham Pujemi(부처님에 귀의합니다. 불법에 귀의합니다. 스님들에 귀의합니다)."

백의(白衣)의 출가후보자들이 스님이 되기 위한 출가 서약을 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광활한 규모의 광장에 삭발한 채 줄맞춰 앉은 3만 여 출가예정자의 합장한 모습은 엄숙함을 넘어 신비롭기까지 하다.

태국 방콕 담마까야사원의 담마까야 세티야(Dhammakaya Cetiya) 광장에서는 2월 6일 태국 남자들이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한다는 수계의식이자 단기출가인 부앗낙(Buat nak) 행사가 봉행됐다.

이날 수계식에는 1월 19일 전국 340여 사찰에서 출가한 3만4862명이 참석했다. 수계자 중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온 외국인 출가자도 150명에 달했다.

불교국가인 태국에서 수계의식은 한 소년이 책임감을 갖는 어른의 세계로 들어감을 알리는 성년의례다. 국왕을 비롯한 태국 남자들은 대부분 인생의 한 시기에 단기 출가를 해서 '부앗 프라(Buat Phra)'는 승려의 생활을 하며, 그 시기는 보통 결혼하기 직전이다.

이번 행사는 출가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우려한 태국 정부와 태국 승단이 마련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 든 비용은 태국 돈으로 7억5000만 바트(THB), 한화로 환산하면 약 263억원이다.

'10만 승려 집단 수계의식'은 이번 대규모 수계의식의 공식명칭이다. 태국에서는 금년에만 매회 3만여 출가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3차례 봉행한다.

출가자들은 수계 전 자만심과 성욕을 버리는 의미로 머리와 눈썹을 미는 삭발의식을 마친 상태였다. 출가의식은 빨리어 경전을 암송하며 탑 주위를 세 번 도는 순례의식으로 시작됐다. 새벽이라 어둠이 사라지기 전인 이른 시각임에도 세티야 광장에는 출가의식을 보기 위해 모인 흰옷을 입은 출가자의 가족과 불자들로 가득 찼다.

이날 행사에는 10~60대의 다양한 연령대가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닌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가정과 사원, 국가의 안녕을 비는 자리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출가자들은 거대한 세티야 광장 내 탑 순례를 마친 뒤 주황색 가사를 수지하고 주지스님에게 세 번 부복(仆伏)한 다음 수계를 허락해달라고 청했다. 주지스님은 인간 육체의 덧없음을 설파하는 경전을 암송한 후 수계를 상징하는 노란 띠를 출가자의 몸에 걸쳐줬다.

출가의식은 오후 4시에 다시 이어졌다. 수지받은 주황색 가사로 갈아입은 출가자들은 각 사원별로 출가법요식을 봉행한 뒤 수계법사의 선창에 따라 10계를 수지한 후 "아침마다 계를 암송하고 가슴 속에 불법을 항상 지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을 서원했다.

담마까야사원으로부터 초청받은 일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수만 명의 수행자가 49일간 출가해 나라의 안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은 큰 공덕"이라며 "오늘 계를 받은 수행자들의 공덕으로 태국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계를 마친 사미스님들은 다시 출가 사찰로 돌아가 해제일인 3월 8일까지 오후불식, 탁발수행 등 실제 스님들과 똑같이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날 사미계를 수지한 몽콘 씨일리항소(44) 스님은 행사에 두 번째 참여했다. 스님은 "첫 번째 출가는 스무 살 무렵, 대학 여름방학 때 다들 하는 것이라 별 생각 없이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며 "직업이 의사이다 보니 인간의 생사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접한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며, 회의를 느끼고 우울함에 빠질 때가 많다. 출가 의식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삶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출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10만 출가의식'을 이끈 담마까야사원 부주지 프라바바나(Phrabhavanaviriyakhun) 스님은 "태국 불교의 포교활동이 침체 상태다. 대규모 출가행사는 3년 전부터 기획했다. 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았지만 전국 각 사원의 스님들이 주축이 돼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현재 태국의 출가자는 감소 추세이고, 이들을 가르칠 법사스님들도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 출가자와 이들을 가르치는 법사 스님을 함께 배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10만 명 출가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담마까야사원만의 명상 수행과 탁발수행이 있기에 가능했다.

프라바바나 스님은 "2년 전 1000명의 스님들과 탁발행사를 시작해 현재까지 50만 명의 스님이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었다. 여기서 힘을 얻어 10만 명 출가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다"며 "이 같은 결집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원에서 가르치는 명상수행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담마까야사원은 남방불교국가에서는 드물게 참선을 위주로 수련하는 선센터로 150만 여 평의 부지에 태국의 유명 인사들이 신도로 참여하며 전 세계에 51개의 분원을 갖고 있다. 사원은 39년 전부터 명상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지금도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명상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글 · 사진=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태국의 단기출가 행사 부앗낙(Buat nak)

전체 국민의 약 95%가 불자인 태국에서 수계의식은 남자가 '어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통과의례와 같다. 태국 남성들은 대체로 만20세 전후에 단기출가를 하는데, 이는 출가 자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스님이 되기 위해 남자는 20세 이상으로, 전염성 질환이 없는 건강한 신체를 지녀야 한다. 부모나 승려를 죽인 경력이 있으면 안 되고 부모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신체에 문신을 새겼거나 마약에 중독된 이는 단기출가에 참여할 수 없다. 최근에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됐다. 승려가 되는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자기 억제와 명상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게 공덕을 돌리기 위함이다.

한편 태국에는 여성 수행자인 비구니가 없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이 수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한다. 태국 여성들은 이러한 금지를 성차별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자신이 승려가 될 수 없는 대신 가능한 많은 공덕을 쌓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머리를 깎고 사원에서 수행을 하기도 하는데, 탁발을 도는 대신 신도들의 공양으로 생활한다. 태국 내에는 이러한 여성 수행자들을 위한 사원이 10여 곳 정도 있다.





모델 : 前 세계 〝미세스 진〟(촬영 : 방필석 법사)

★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니 ★

신생아 작명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갈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1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02)738-5577, 739-8259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필석법사

주역 개인지도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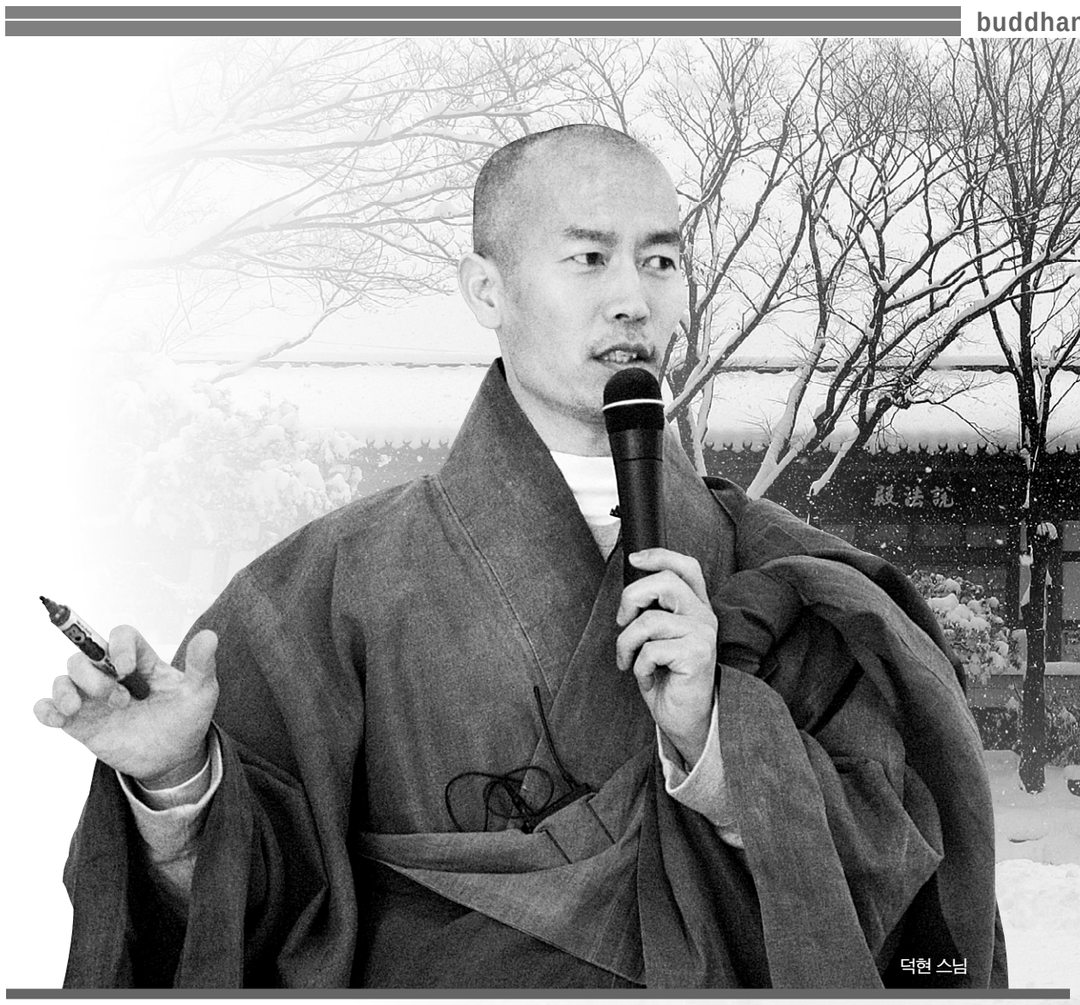
방필석 대외활동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3회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20차 세계불교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승 국제평화광도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耕當問奴(경당문노)라
농사일은 마땅히 농부에게 물어보고
작명은 마땅히 작명가에게 물어보고
일이 잘 안풀릴때 개명 하십시오.
그래서 옛부터 작명을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이요
–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

길상사 토요법담

오고 가는 법담 속에 부처님 가르침 체득


덕현 스님

강의 · 좌선 · 법담 한 자리서 불법에 흠뻑 빠져들어
마음챙김 기반으로 다른 이에게 행복줘야 진정 불자

작지만 아늑한 기운이 감도는 길상사 설법전에서는 100여 신도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법문을 경청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햇볕이 설법전을 향해 쏟아지는 것 같았다. 창호지를 뚫고 따뜻함이 전해졌다.

서울 길상사(주지 덕현)에서 열리는 토요법담은 덕현 스님의 강의, 좌선, 휴식, 질의응답 순으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되며 불자들에게 불교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2월 6일 열린 토요법담은 <반야심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반야심경>은 마음(心)이 핵심입니다. 관(觀)을 통해 세상을 바르고 여실히 살펴(조견: 照見)야 일체 고(苦)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유지시키고 관을 할 때는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법당을 메운 신도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귀를 쫑긋하며 각자의 마음에 심(心)을 새겼다.

강의가 끝나고 스님의 지도로 좌선시간이 이어졌다. 결가부좌를 하고 스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지어낸 '나'라는 것도 내 마음이 일으키는 꿈일 뿐입니다. 알고 보면 그대로가 아름답고 여여한 진리의 세계입니다. 본래의 마음에서 의식이 깨어나 생각을 일으키고 바깥 세계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있다'는 생각은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 다 내 마음이 지어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 '마음의 춤'일 뿐입니다."

잠깐의 휴식시간 후에 불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궁금한 것을 종이에 적어 스님에게 전했다. 첫번째 질문은 '보림(保任)'에 대한 질문이다.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지킨다는 걸까요?"

덕현 스님이 답했다. "성품을 깨닫고 보면 따로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묶지 않았는데 그렇게 묶인 것처럼 살아와서 자유로워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습관은 주체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업'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림은 깨달음 후의 휴식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피에 대한 질문에 스님의 대답이 이어졌다. "무엇이든지 잘 믿고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가피력이라는 것이죠. 산중의 스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은 가피와 관련된 실화를 이야기했다.

"어떤 스님이 제주도 남국선원에서 겨울 안거를 할 때입니다. 45일이 지난 어느날 한라산 등반을 했는데, 산을 오르다보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해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펑펑 내려 앞을 보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스님은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관세음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걸음을 옮기다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떤 방에서 한 거사님이 스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안거가 끝나고 그 거사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흔적도 없더랍니다. 분명 그 자리인데 말이죠. 이런 것이 현응 가피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지극하게 섬기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덕현 스님은 "급박한 순간일수록 마음챙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진정한 편안함과 행복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있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라고 강조했다.

불단의 향로에서 타오르는 향이 대중의 옷에 스미는 것처럼, 스님의 법담에 설법전에 앉은 대중은 흠뻑 젖어 들었다. 대중은 스님의 법담에 부처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덕현 스님이 토요법담을 시작한 이유는?

"불자들이 절에 와서 복 · 소원을 비는 기복적인 형태의 신행생활과 신도 연령의 노령화에 문제를 느꼈습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음 세대가 불교를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염려도 됐지요. 선원과 토굴의 수행생활에 집중하다 인연이 닿아 도심 사찰에 오게 됐는데, 이런 문제에 직면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이 처음 길상사 주지로 와서 신도들의 불교 이해도, 신행을 보고 몇 가지의 문제를 느꼈다고 한다.

신도들에게 불교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스님은 불자들의 수준에 맞춘 강의와 교리공부 · 신행생활에서 오는 의문점을 해소하면서 점차 불교의 진수에 다가갈 수 있도록 법담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불교의 미래는 바른 이해부터"

"필요가 공급을 만듭니다. 우리도 고(苦)를 알아야 구도심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사성제(四聖諦)를 통해 '고의 멸'이 가능함을 증명했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로 봐야 합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마음이 제자리로 오면 고의 멸이 됩니다."

토요법담에 참여한 불자들이 실제 삶에서 바른 마음씀을 생활화하는 것이야 말로 부처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스님은 "법담 시간만이라도 불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보람이죠"라며 다시 한 번 발원했다.

덕현 스님은 '토요법담'과 더불어 3월부터 길상사 불교대학을 개설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불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기 위해 도심에서 수행정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02)3672-5946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 (학점은행제)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귀의 삼보하옵고 2009년 9월 30일 영산재의 문화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되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 범음대학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수한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불교일용의식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신입 및 수료과정의 학인스님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신입 및 수료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 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1시~7시	이기봉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시~7시	마일운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시~7시	조인각	30
불교작법(무용)	나비춤/바라	수	오후1시~7시	한해사	30
불교실기(의식)	시련/대령/관욕등	목	오후1시~7시	조인각	재학생졸업생
이 론 Ⅰ (범패의전승계보)	범패의 전승 계보	화	오후1시~7시	심만춘	30명
이 론 Ⅱ (영산재행위전승학습)	영산재의 행위전승 학습	화	오후4시~7시	한활안	30명
불교일용의식	불공/시식/예불	수	오후1시~7시	이기봉	30명

편입학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 일	시 간	교 수 진	모집인원
각 배	각 배	목	오후1~7시	마일운	약간명

학점은행제모집 (2010 학년도) 2010년학년도 1학기 과정

개설과목	교 수	요 일	모집인원
범패의전승계보	심만춘	화	30
사물실습	조인각	목	30
영산재행위전승	한활안	화	30

과정별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1) 응 시 자 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불교학, 음악, 무용)

(2) 수료및 졸업과정
1.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 (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3) 학점은행제 과정
1. 고졸이상자, 전문대 과정 4년제 대학과정 중퇴자
2.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3.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4. 주민등본 1부
5. 반명함판 사진 4부

(4) 편 입 과 정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3. 주민등본 1부
4. 반명함판 사진 4부
5.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6.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전형일정

①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오만)원
② 2010년 1월 25일 ~ 2월 19일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특 혜

1. 재학생 중 4년 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함
2.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품수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자격 부여
3. 4년 과정의 수료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4.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급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을 부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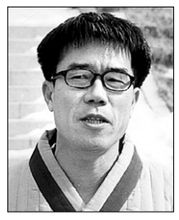
입 학 문 의

전화 02) 392-3234 / 팩스 02)392-3239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불법, 도그마 아니기에 시대 따라 변주

권오민 교수 '문사철' 서 주장… 김성철 교수의 '진화론' 비판



"불교는 결코 단일한 체계가 아니다. 부처님 교법은 도그마가 아닌 까닭에 아비달마(부파)불교를 거쳐 대승의 중관 · 유식 · 여래장 · 밀교로, 남방에서는 남방불교로, 티베트에서는 티베트불교로, 북방에서는 천태 · 화엄 · 정토 · 선 등 다양한 형태의 불교를 꽃 피울 수 있었다."

"대승불교는 부파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출현했다"는 류의 진화를 거친 교학의 일미성을 주장하는 학문기조를 '구호'와 '선전'이 난무하는 것이며, 근대일본 불교학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권오민 경북대 교수(사진)는 최근 <문학 · 사학 · 철학> 제19호에 기고한 논문 '선전과 구호의 불교학을 비판한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권오민 교수의 논문은 계간 <불교평론> 1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에서 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발표한 '진화론과 뇌과학으로 조명한 불교'에서 비롯됐다.

김성철 교수는 발표에서 "불멸 후 500여 년이 지나 난삽한 아미달마 교학이 발달했다. 단순명료했던 초기불교였는데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 번쇄해졌다. 이를 단칼에 쳐버리는 것이 반야중관학의 공사상이다… 반야중관학에서는 후대에 덧붙여진 아비달마 교학의 군더더기를 털어 내기만 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권오민 교수는 "한국 불교학계가 특정 종학을 지향하는 집단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면 불교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는 해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다른 교학을 업신여기고 아주 더럽게 생각해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풍토에서 불교는 악의적인 구호와 선전의 대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각자가 추구하는 종학 또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대승불교를 설명하면서 아비달마불교가 초기불교의 근본정신을 왜곡해 출현했다는 것이 그 예이다.

권오민 교수는 "혹자들은 '아비달마불교의 출가자들은 부패 타락했고, 폐쇄된 사원에서 공리공론의 번쇄한 희론에 몰두했다'고 비판한다면, 이론 중심이었다는 아미달마불교의 위빠사나 수행법이 현재 재가자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승불교가 (아비달마불교 출가 승단에 염증을 가졌던) 재가 보살교단에 의해 시작됐다는 견해는 히라카와 아키라(平川 彰)의 가설에서 비롯됐다. 이 가설은 현재 P. 해리슨 등 다수의 비판자로부터 "대승불교의 기원은 재가자가 아닌 전통 부파불교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됐다"는 도전을 받고 있다.

다른 비판자인 사사키 시즈카도 "대승불교 역시 부파불교의 연장선상에 나타난 출자가의 종교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모다 마사히로 또한 "처음에는 대승 · 소승 구분이 없었다. 전통 부파교단에서 발생 발전한 지속적인 경전 제작운동을 통해 대승불교가 성립됐다"며 "대승불교가 부파불교 내부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시모다는 "대승경전은 이전의 경전을 수용해 해석하고 새롭게 읽는 과정을 통해 종류와 분량이 확대됐을 뿐 '역사적 붓다'의 권위를 빌려 날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권오민 교수는 "(이와 같은 세계 불교학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학계는 대승불교를 기존 부파불교와 무관한 보살교단에서 비롯됐다는 히라카와의 가설을 상식처럼 여긴다. 대승경전도 기존(부파) 경전과 무관한 개인 견해나 작품이라는 근대 불교학 초기시대에 형성된 미확인 명제를 정설처럼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교수는 "'초기불교로 돌아가자'는 구호도 일본 불교학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오민 교수는 "태생학적 연기설로 일컬어지는 초기경전의 12연기를 부정하고 상의상관 연기설을 불타의 근본정신으로 파악해 일본 실대승(實大乘)의 근본임을 주장한 것이 일본의 국가주의 불교"라며 "일본에서 국가주의 불교학자로 평가받는 와츠지 데츠로를 비롯해 우이 하쿠주 등의 후학들로부터 '초기불교로 돌아가자'는 구호가 유래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권 교수는 현재 불교학계의 트렌드인 '쉬운 불교'를 비롯해 "초기불교가 쉽다, 단순하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일침을 놓았다.

권오민 교수는 "(초기교설인) 아함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무상' 등이 아함의 취의이지만 아함의 모든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의 불교학은 대중과의 소통을 '이타'로 인식해 불교학을 대중적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교수는 "어떤 한 종교의 체계가 특히 불교처럼 세계존재에 대한 통찰을 통해 구원(해탈=열반)을 추구하는 고등 종교가 <법구경> <숫타니파타>와 같은 잠언만으로는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권오민 교수는 "종학이든 교학이든 구호와 선전은 '학(學)'이 아니다. 구호는 인간 감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감정에 호소하려면 문학 음악 미술 등 다른 방편을 구하라"면서 "'학'은 의심과 탐구에서 비롯되며 목적은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교수는 "부파불교-대승불교 등을 잇는 교학 흐름에서 일미성(一味性)을 확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면서 "'하나'에는 항상 '절대'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전국 폐사지 일제 조사 나서

조계종, 문화재청과 손잡고 전국 3000여 폐사지 학술조사 실시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문화재청이 전국 폐사지의 일제 조사에 나선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월 11일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와 전국 3000여 폐사지에 대한 현황 학술조사를 중기계획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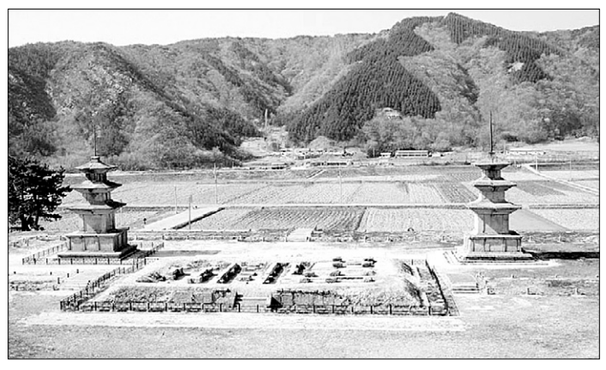
전국의 폐사지 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 ·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는 처음이다.

조사는 문화재청이 불교문화재연구소에 문화재보호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폐사지를 대상으로 보존상태 조사, 실측과 현황도면 작성, 분포유물 조사 등 현황 학술조사를 시행하고 사지 보존 · 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전국의 폐사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주요 폐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 · 정비와 문화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지(寺址)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35건, 시 ·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 69건으로 총 104건이다.

조동섭 기자





감은사지 전경(위)과 용인 불당골 사지.

한형조 교수 특강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2월 17일 오후 2시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대원불교사상강좌 2월 특강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지금 왜 동양사상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한 교수는 특강에서 '목적 없는 삶'에 대한 사상적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02) 719-2606 조동섭 기자

돈황사본서 '대승기신론소' 발견

금강대 불교문화硏 세미나서 공개 예정

한국불교를 회통시킨 원효 스님(617~688)의 사상이 중국 · 일본불교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증거가 돈황사본에서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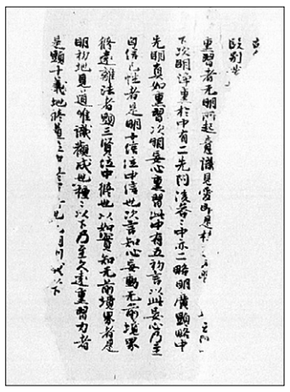
일본 국제불교대학원대학 연구원인 띵위엔(定源) 스님은 2월 23일 서울 관문사에서 '동아시아 고대 불교사본 연구의 현황'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에서 돈황사본 발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불교전서> <신수대장경> 등에 기록된 <대승기신론소>는 원효 스님 입적 후 1000여 년이 지난 일본 겐로쿠 9년(1696) 간행된 판본이 저본이다.

김천학 소장은 "띵위엔 스님이 돈황사본에서 <대승기신론소>를 발견해 다른 계통의 <대승기신론소> 사본이 확보됐다"며 "이번 돈황사본 발견은 일본을 제외하면 인용사례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대승기신론소>의 동아시아 지역 유포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미나미 히로누부 박사가 발견한 신라 의적 스님의 <무량수경술기>도 최초 공개된다.

조동섭 기자



돈황사본에서 발견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울너 콜렉션 디지털의 옷을 입다

금강대, 한국연구재단 지원 받아 7월 회향

금강대가 2006년부터 파키스탄 펀자브대학,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과 공동 진행해 온 불교학 프로젝트가 회향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울너연구사업단(단장 최기표)은 2월 3일 국제회의실에서 인도학 관련 필사본인 울너(Woolner) 콜렉션 디지털 구축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울너 콜렉션은 인도학자로 펀자브대학 도서관장을 지냈던 울너 박사(1878~1936)가 수집한 7895점의 필사본이다. 14~19세기에 걸친 필사본들에는 인도사상을 비롯해 역사 · 문학 ·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가 기술돼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치관계 탓에 울너 콜렉션은 학술적인 연구가 시도되지 못했다. 소장처인 펀자브대학과 세계적인 사본 연구기관인 빈 대학, 금강대가 울너 콜렉션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세계 학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당연했다.

금강대에서는 최기표 금강대 울너연구사업단장을 비롯해 심재관, 박영길, 백도수 박사 등 신진학자 중심의 연구인력이 투입돼 3년간 사본 하나하나를 촬영하고 꼼꼼이 연구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비엔나대학 히말 트리카(Himal Trikha) 박사와 크리스티안 페슬러(Christian Ferstl)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금강대 등이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 7895점의 사본은 각각 고유의 색인이 달렸다. 색인에는 정확한 분류와 상세한 설명을 통해 문자의 종류, 종이질, 사본 상태 등이 기록돼 서체만으로도 원하는 사본은 물론 관련 사본들까지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최기표 단장은 "최첨단 검색시스템을 갖춰 향후 사본 DB구축의 새로운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울너 콜렉션 프로젝트는 한국 학계의 원전 연구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강대의 울너 콜렉션 프로젝트는 2007년부터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과제 지원사업에 선정돼 4억여 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금강대는 7월말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결과물들을 프로젝트 홈페이지(www.woolnerproject.org)에 공개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2010년도 제 36기 동산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불교와 관련한 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신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코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불교학과 (2월개강)

■ 교과목 및 교수

불교학과	불교학 개론, 선학의 이해, 불교미술,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등 18과목
교 수 진	무진장 대종사, 최종석교수, 백도수교수, 윤열수교수, 김호귀교수, 활안스님 최봉수교수, 김형준교수, 묘주스님, 박종교수정병조교수, 차차석교수, 김상현교수 주명철교수, 정엄스님, 보광스님, 종석스님, 보각스님

■ 강의일시 및 모집인원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6시(60명)
▶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2시(60명) ▶ 통신반 (60명)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사진 3매
▶ 입 학 금 250,000원

■ 개강일시
▶ 불교학과 2010년 2월 접수중

■ 본회사무처 TEL:732-1206 FAX:732-1207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www.dongsanbud.net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팜프렛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불교관련학과 (3월개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통신반 30명)	중국고전(노자), 초발심자경문, 한문해석 금강경(1),(2) 등	임채우교수	3월 4일(매주-목) 오후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일본차문화사(한국, 중국, 유럽) 재다학(1), 한국의 헌다례	박전열 • 이충실교수	3월 9일(매주-화) 오후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본,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3월 11일(매주-목) 오전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봄, 여름, 가을, 겨울)	정산스님	3월 10일(매주-수) 오후2시

불교대학원 (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30명)	유식 30송 (2)	묘주스님	3월 8일(매주-월) 오후7시
	아함의 교리와 사상	김형준교수	3월 9일(매주-화) 오후7시
	초기불교의 수증론(1)	최봉수교수	3월 11일(매주-목) 오후4시
다도학과 (2년과정)	다경, 대관다론, 다부, 동다송, 다신전	김진숙 • 혜성스님	3월 16일(화) 오후4시30분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 과 목	교 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 (1년과정 20명)	각종의식 이론, 실기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3월 6일(매주-토) 오후2시
범패의식반 (2년과정 20명)	범패 실기	인각스님	3월 10일(매주-수) 오후3시

동산 정오아카데미가 3월부터 시작합니다.
- 직장인을 위한 경영, 경제, 마케팅, 재테크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곳
- 2010년 3월 새롭게 문을 연 "동산 정오아카데미"는 만나기 어려운 최고의 교수들로부터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도심속의 교육장입니다.
- 동산불교대학의 색다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정오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와 강사들이 수강생과 함께 소통 하며, 깊이 있고, 재미있는 엣세이 강의로 수업을 합니다.
- 점심시간을 활용한 정오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모든 직장인과 일반인들에게 쉽고 알찬 교육프로그램으로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며 배울 수 있는 교육타임을 제공합니다.

동산 정오 아카데미 (3개월과정)

제 목	내 용	교 수	교육일시 및 개강
재테크특강	• 증권재테크(3월) • 금융재테크(4월) • 부동산재테크(5월)	• 김영호교수 • 송승용교수 • 이승화교수	• 매주 수요일 11시 40~12시 55분(50분강좌) • 2010년 3월 10일(수) 개강 • (3개월과정 15만원)

동산 불교 교리강좌 (3개월과정)

제 목	내 용	지 도	교육일시 및 개강
불교교리강좌 제 4 2 기 (봄반)	• 불교의 정의, 불교의 분류, 삼보설 • 삼과설, 사제설, 연기법, 수도론 • 대승보살, 육바라밀, 불교문화 등	문종순법사 전정봉법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2010년 3월 10일(수) 개강 • (3개월 과정 6만원)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불교대학 · 대학원 학 장 무 진 장 / 이사장 안 동 일

일주문



용주사신도회 활성화세미나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2월 20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제2교구 신도회 조직화를 통한 불교신도조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린네트워크 공동대표 취임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2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린네트워크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상도선원 금강경 강좌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은 3월 4일~5월 30일 마음수행 코칭과 불교입문 강의, 3월 3일~5월 26일 금강경 강좌를 실시한다. (02)815-3391



東大 간호사 시험 전원합격 쾌거

손동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1월 22일 시행된 제50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51명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올렸다.



북촌한옥마을 생태체험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소장은 2월 20일 서울 북촌한옥마을에서 한옥을 비롯한 전통마을의 환경을 살피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연우와함께 사회적기업 1호 선정

이재희 연우와함께 대표이사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1호로 연우와함께가 선정돼 2월 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인증서를 받았다.



대불련 2010 템플스테이

박경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3월 26~28일 충주 석종사에서 10학번 새내기와 함께 하는 'KBUF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파라미타 우수지도자 표창

김재기 파라미타 전남지부 사무국장은 2월 6일~7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파라미타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인사



종단협 사무국장 강하 스님 임명

범어사 강하 스님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사무국장으로 임명됐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강하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강하 스님은 양익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1년 · 1995년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약자 위해 더욱 나서야 한다"

인권위 활동 10년 끝마친 법안 스님

"10년간 국가인권위 활동을 하며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불교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데 더욱 나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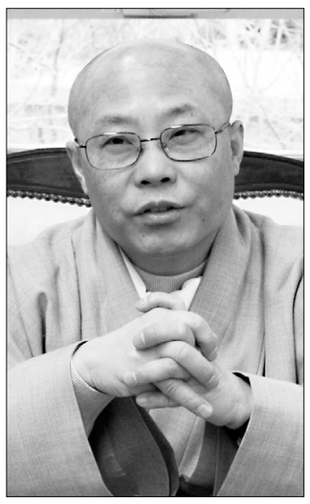
2월 8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직에서 퇴임한 법안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서울 금선사 주지)이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스님은 2000년 4월 7일부터 10년 동안 국방부 감사위원회,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몸담아 왔다.

스님은 인권위원회 활동을 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친인권적 종교인 불교에 모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예로, 비구니 스님의 처우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조계종은 종법 등에 명시된 비구니 스님과 비구 스님과의 차이에 대해 깊이 있게 재고해야 합니다."

법안 스님은 인권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용산참사를 꼽았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법안 스님.

스님은 "한국의 발전을 본 국제사회는 품격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환경인권은 뒷걸음치는 모습"이라며 "특공대를 투입해 철거민을 과잉진압 하는 모습은 끔직했다. 여기서 투입된 경찰과 철거민 모두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은 더욱 비극적이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인권이 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현 기득권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소연할 곳 없는 소수자와 약자를 종교계가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에서 불교세가 약한 것을 아쉬워하며 포교활성화를 촉구했다.

스님은 "각부처 고위직에서 불자를 찾아볼 수 없다. 마치 벼랑 끝에 서있는 느낌이 들었다"며 "불자라면 수행뿐만 아니라 바깥세상을 향한 통찰력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인권위 활동을 회향하는 의미로 그동안 받은 회의비 2000만원을 2월 10일 종단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 스님이 전달한 기금은 종단 연구소 설립과 승가교육진흥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법안 스님에 이어 동국대 보광스님이(조계종 종회의원 · 청계산 정토사 주지)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선임됐다.

박선주 기자 200211@buddhapia.com

"보은의 마음으로 회장직 임할 것"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취임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불자님들의 지지와 성원이 컸습니다. 부처님 가피에 보은하는 마음으로 천태종과 중앙신도회 발전에 힘을 쏟겠습니다."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사진)이 천태종 중앙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천태종은 2월 7일 서울 관문사에서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도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맹형규 청와대 정무특보, 김무송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신도회장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김학송 신임 신도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중앙신도회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신도회와 종단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신도회장은 이날 취임에 앞서



불교와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다.

김 신도회장은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어머님과 대입을 준비하던 시절 절에서 공부한 것이 인연이 돼 불자가 됐다"며 "그 이후 둘째 아이가 잘 걷지도 못하는 병에 걸렸을 때는 천태종 2대 종정 대충 스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낫는 가피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연은 김 신도회장이 불자임을 당당히 밝히며 국정활동에 임하는 원동력이 됐다.

김 신도회장은 "진해 해장사가 화재로 소실된 후 신도회장을 맡아 복원불사에 나섰다. 국회의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신도회장 직을 감추지 않았다"며 "진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150여 표 차이로 당선된 것은 진해시민의 지지뿐만 아니라 불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신도회장은 "중앙신도회장에 임함에 있어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종단이 표방하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신도회장은 "2011년 천태종조 상월 원각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종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도회장은 천태종 군종장교 파송 및 10 · 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교계 권익 향상에도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노덕현 기자

'나눔은 수행' 이웃돕기 전개

진각종, 자원 봉사단 발대식

진각종은 올 한해 '나눔은 수행이다'는 주제로 이웃돕기행사를 적극 전개한다.

진각종은 2월 9일 오후 4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내 무진설법전에서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봉행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종무원들 스스로가 꾸준히 모금에 동참해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각종은 2010년 '나눔은 수행이다'를 주제로 지역주민 돕기에 적극 나선다.

진각종은 발대식에 이어 10일 오전 9시부터 종무원들이 조를 편성해 하루 동안 새터민 등 서울 성북구 지역 내 저소득층 이웃을 찾아 자비의 쌀 20kg 100포를 전달했다.

자비의 쌀을 전달한 곳은 월곡2동 추천 불우이웃 40포, 월곡동 집단거주지(임대주택) 30포, 새터민시설 20포, 삼선동 10포 등이다.

노덕현 기자

이제 대중 위해 회향하길

태고종, 법륜승가대 졸업식 봉행

태고종 종립대학 법륜승가대학 졸업식이 2월 9일 전통문화전승관 대불보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졸업식에는 대교과 첫 졸업생 54명과 사교과 2기를 수료한 30명 등 84명의 스님들이 졸업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정통법맥의 자긍심을 가진 84명의 태고종 스님들이 졸업했다.

법륜승가대학장 보경 스님은 "겨울 혹한 뒤 새 봄이 만물을 키우듯 갖은 어려움도 향학열을 막지 못했다"며 "그동안 배운 바대로 부처님의 진리를 힘들고 소외된 대중을 위해 회향해 달라"고 축하했다.

중앙사정원장 운곡 스님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에도 신심 하나로 이력종장(履歷宗匠)이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강원이 설립된 것은 법난 이후 약화된 정통법맥을 이어달라는 뜻으로 태고종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종단 초석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중앙사정원장 운곡 스님, 행정부원장 청봉 스님, 재무부원장 화경 스님, 교무부원장 법현 스님 등 종단 중진 스님을 포함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전승관에서는 전법사 교육원 2기 수료식이 봉행돼 13명의 전법사들이 탄생했다.

노덕현 기자

불기협 신임 회장에 조용수 btn 기자 선출

한국불교기자협회(이하 불기협)는 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조용수 불교TV 보도국 차장(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조용수 신임회장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현대불교신문사 기자를 거쳐 불교TV 보도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동국대 대학원 불교미술을 전공 중이다. 또 불기협은 신임 감사에 김주일 주간불교 편집국 부장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선학원이 발행하는 <월간 선원>의 신규 회원사 가입 승인 및 6400여 만원의 2009년 회계 감사 승인, 정관 일부 개정의 건 등이 통과됐다.

조동섭 기자

각성 큰스님 "신심명(信心銘)" 고운사 특강

禪 수행을 하시고 있는 분
禪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
禪 수행을 하는데 갈팡질팡 하는 분

이것이 禪이요.
이것이 길이요.

신심명을 통해 眞如 自性 을 바로 보게하는 중국 선종 3조 승찬 조사의 명쾌한 안목인 신심명을 고운사에서 각성 큰스님의 강의로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 시 : 2010년 3월 8일(월) ~ 12일(금) 오후 2시
장 소 : 고운사 선체험관
참가대중 : 4부대중 누구나...
문 의 : 종무소 054)833-2324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충남교구 종무원

귀의 삼보하옵고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 종단을 애종하고 존경하는 종도 여러분과 사부대중 여러분의 법체청안 하시옵고 하시는 모든 불사 원만성취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충남 종무원장 상 원 충남 종회의장 보 월
중앙 종회의원 지 우 총무국장 도 우
재무국장 금 진 교무국장 천 도

호원 진허 덕진 성진 연수 법승 명성화
도원 일월 지혜 성운 도연 도심 도천

◆ 입종안내 (충청 남북도 지역) ◆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보하고 뜻을 함께하실 종도님을 모십니다.
아울러 분한신고를 미처 하지못한 종도님께서는 종무원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종서류 : 교구 종무원 및 총무원 비치

■ 충남교구 종무원 : 충남 연기군 전동면 미곡리 20-18번지
■ 해 천 사 : 전화 041)863-5582 팩스 865-6655
■ 총 무 원 : 서울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전화 02)998-8161~2 팩스 998-8384

"끝이 없는 배움 더 정진하길"

봉은사 불교대학 제48기 졸업식 봉행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졸업생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며 활발한 신행생활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2월 7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은불교대학 제48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불교대학장 주지 명진 스님, 부주지 진화 스님, 총무국장 원묵 스님, 교무국장 법성 스님, 포교국장 무성 스님, 사회국장 맥산 스님, 교육국장 광명 스님 등 봉은사 사중 스님과 대중 400여 명이 참석해 270여 졸업생의 활발한 신행생활을 격려했다.

명진 스님은 축사에서 "배움에는 끝이 없기에, 이날 졸업하는 불자들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끝없이 정진해야 한다"며 끊임없는 구도정진을 당부했다.

한편, 봉은사 신도회는 2월 9일 양평 KOBACO 연수원에서 신도회 상반기 임원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신도회 연수에는 송진 봉은사 신도회장을 비롯한 250여 신도회 임원이 참석해 리더십 강연 등을 경청했다.

노덕현 기자

설맞이 자비 나눔 펼쳐

조계사, 용주사, 좀도리쌀 등 쌀나누기 행사

경인년 설을 맞아 사찰과 기관들이 이웃을 위한 행사를 마련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2월 11일 '경인년 설맞이 자비의 쌀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종로구 이웃돕기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에서 조계사는 종로구 거주 소외계층600가구에 20Kg 쌀 600포대를 지원했다.

같은 날,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김헌백)는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통해 모은 쌀 400포대 전달식을 서울 용담동 비전트레이닝 센터 마당에서 진행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와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 대오)가 12년째 펼치고 있는 '사랑의 좀도리운동'을 통해 모은 쌀은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4개 참여단체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성공회푸드뱅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와 지역회원단체의 사하시설에



11일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은 종로지역 소외계층 600가구에 20Kg쌀 600포대를 전달했다.

있는 독거노인, 노숙자, 장애인, 결식아동 및 청소년 등 개인에 나누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선 10일 수원 용주사(주지 정호)는 화성 지역 저소득 100가구에 라면, 쌀 등 1200만원 상당의 지원물품을 전달했고, 화성 관내 51사단에 복무중인 어려운 전우 33명에게 330만원 상당에 물품을, 화성시 안용중학교 졸업생 6명에게 각 3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 원음으로 가르칠 터

원음종 창종 및 양평 순일선원 개원법회



대한불교원음종(종정 순일)은 2월 7일 양평 순일선원에서 창종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서 순일 스님(사진)은 "세상의 많은 이들이 정법에 목말라하고 있다.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 정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불사의 일환으로 원음종을 창종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종 기념법문에서 순일 스님은 이타행과 삼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탐 · 진 · 치 삼독은 '집착'과 '저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꿈(깨닫지 못한 거짓된 세계)'에서 벗어나려면 (수행을 통해) 삼매에 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화와 탐욕이 불행의 원인"이라며 "당장 큰 화만 내지 않아도 누구나 삶의 예측이 가능해진다. 집착과 저항만 없다면 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스님은 화를 없애는 방법으로 참회를 제시했다.

순일 스님은 "화를 그냥 참으면 병이 되지만, 참회를 한다면 화를 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며 "참회를 통해 남을 돕는 삶을 살자"고 말했다.

스님은 "안으로 성냄을 참고 밖으로 봉사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채) 꿈속에서만 잘사는 방법"이라면서 수행하는 삶을 거듭 강조했다.

순일 스님은 '탐욕이 없으면 마음의 동요가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으면 (마음의) 왕래가 없다. 왕래가 없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생사를 여읜다. 생사를 여의면 해탈지견을 얻고, 모두 알고 보게 된다'는 <우다나경> 구절을 소개하며 법문을 마쳤다.

한편, 순일선원은 2003년 8월 개원해 삼매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2009년 4월 유료로 진행되던 삼매 프로그램을 무료화하고 7월 종교법인으로 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았다.

원음종은 빠른 시일내에 부산지원 개원을 시작으로 서울 · 유럽 지원 개원을 통해 본격적인 대중교화에 나설 예정이다. 070-7779-7711

조동섭 기자 · 손법천 대구지사장

동구청 위문품 전달

팔공산 파계사



법광 스님(왼쪽에서 세번째)는 대구지역 소외계층에게 자비행을 펼쳤다.

팔공산 파계사 주지 법광 스님은 2월 8일 대구 동구청을 찾아 홀몸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전해달라며 국수 200박스(4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법광 스님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힘들어하는 이웃과 설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경인년 새해를 맞아 웅비의 새 희망을 함께하고 싶은 생각에 국수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큰 꿈과 희망을 키우길"

신흥사, 지역학생에 장학금 전달



신흥사 스님이 사하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속초 신흥사가 지역 19개 초 · 중 · 고교 졸업생 2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신흥사(주지 우송)는 2월 1일 사하촌 내 설악초교 졸업생 9명에게 교복과 가방을 선물한 것을 시작으로, 10 · 11일 속초 지역 초 · 중 · 고교 졸업생에게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설악초교 졸업생에게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만 대도시 어린이들 못지않은 큰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된 장학금은 신흥사 사부대중이 소외 이웃과 함께 하고자 십시일반 뜻을 모아 그 의미를 더했다.

조동섭 기자

혜철 스님, 라디오 진행

BBS청주방송서 매주 월~금요일 방송



혜철 스님은 '무명을 밝히고'에서 충청지역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하고 있다.

BBS청주불교방송의 간판 프로그램인 '무명을 밝히고'를 혜철 스님(옥천 대성사 주지)이 진행한다.

BBS청주불교방송(사장 현우)은 최근 "혜철 스님을 '무명을 밝히고' 새 진행자로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을 선임해 9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명을 밝히고'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5시10분 청주불교방송에서 방송된다.

한편, FM라디오 96.7Mhz로 방송되는 청주불교방송은 충청권 유일의 불교방송으로 21시간 방송된다.

조동섭 기자

'차(茶) 표준화 시작'

東大 · 명원문화재단 공동 차품질평가



차 표준안 마련을 위한 한국 차품질평가원이 2월 8일 문을 열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차문화콘텐츠학과와 명원문화재단(이사장 김의정)은 2월 8일 한국차품질평가원(원장 여연)을 설립했다.

한국차품질평가원은 차학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교육 및 보급을 위한 객관성 있는 표준안을 마련해 우리의 차 문화를 이끌어 가고자 설립됐다. 평가원에는 김의정 이사장과 여연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혜성 스님, 박희준 교수, 국민대 유양석 교수, 광주여대 추민아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여연 스님은 "한국 차 시장이 고갈돼 가는 이 상황에서 난립된 차 관련 자료를 정리해 표준안을 정리 ·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우리나라의 차 품질은 굉장히 우수한 수준이나, 시장보급이 활성화 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상태"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종, 재배, 관리, 제다, 음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차 표준안을 만들어 차 산업과 차문화콘텐츠를 개발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은 "중국은 1914년에, 일본은 1940년대에 이런 표준안을 만들어 각 나라의 차 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며 "차문화 보급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 표준안의 필요성을 절대적 느껴왔다. 차 표준안은 한국차 산업을 활성화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현재 열악한 차 문화시장에서 이런 차에 대한 객관적이 표준안이 있어야만 차의 시장 활성화와 차에 대한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2)735-8468

이은정 기자

"사회복지계의 숙원 차례로 풀어갈 것"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장 선출된 공상길 관장



서울시 사회복지관 정책을 관리 · 보조하는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제11대 협회장으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공상길 관장(사진)이 선출됐다.

공상길 관장(법명 심원 · 사진)은 2월 9일 협회장 당선 직후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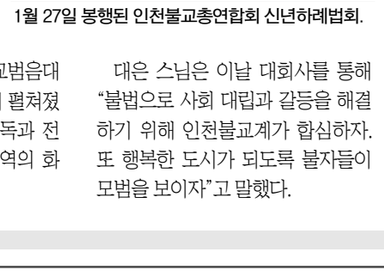
신임 공상길 회장 "앞으로 협회에 등록된 서울시 95개 사회복지관에 대한 업무지원을 강화하고 서울시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 회장은 "업무협의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국 활성화와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관련 문제 등 사회복지계의 숙원 과제들을 차례로 풀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 회장은 "불교는 고려시대부터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일해왔다"며 "이러한 정신을 잘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공 회장 선출에 대해 "사회복지관협회장에 불교계가 최초로 선출된 것은 발전하는 불교복지의 현재 위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인천불교계 행복도시 위해 합심



1월 27일 봉행된 인천불교총연합회 신년하례법회.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대은)는 1월 27일 인천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명예회장 혜운 스님과홍종일 인천시 부시장, 윤상현 신학용 국회의원,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등 내외빈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불교 신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 앞서 해동불교범음대학 어산단의 상주권공작법이 펼쳐졌으며 법회에서는 발원문 낭독과 전통작법 등이 진행돼 인천지역의 화합 및 발전을 기원했다.

대은 스님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불법으로 사회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불교계가 합심하자. 또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불자들이 모범을 보이자"고 말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블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상량식 불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유치장은 국립 선방, 모두가 부처님

부경포교사단 대세지팀, 5년째 유치장 법회


부산경남포교사단 대세지팀의 부산진경찰서 유치장 법회 모습. 왼쪽부터 세번째가 정분남 팀장.

"싸늘한 철창 안은 온통 불편한 것뿐이지만 내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해준 선방이라고 생각하면서 진정한 나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국가가 만들어준 수행공간은 다름 아닌 유치장이다. 한국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불구속수사가 원칙이지만, 범법 사실이 중대한 경우 유치장에 구속 수감하고 있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이고, 유치장은 재판과정 중인 피의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이런 유치장을 국립 선방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수행의 기회로 맞으라고 용기를 북돋는 이들은 바로 부산경남포교사단 소속 경찰포교 대세지팀(팀장 정분남)이다.

2월 6일 오후 3시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대세지팀의 정기법회가 열렸다. 매월 1 · 3주 토요일마다 유치인들을 위해 마련되는 유치장법회는 올해로 5년째를 맞았다.

10여 명의 포교사들이 빵, 과일, 음료수, 향, 단주, 불교서적 등의 공양물을 준비해 유치장 한가운데 향을 사르며 이동식 법당을 연다. 이때 전달이 아니라 '공양을 올린다'고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유치인들이 어떤 범죄 혐의로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 역시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최광재 대세지팀 前 회장은 "부처님이 45년간 살면서 법을 설하신 궁극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부처님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 세상 속 인연에 이끌려가다 보니 본래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을 찾아라. 우리는 부처다"라고 말했다. 법회는 예불문,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보왕삼매론>, 법문, 사홍서원 순으로 40분간 엄숙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대세지팀은 불교가 생소한 유치인을 위해 "삼귀의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부처님과 가르침, 스님들께 귀의함을 노래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잊지 않았다. 발원문은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지은 죄를 참회하며, 모두 무거운 업의 짐을 털어버리고 해탈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는 발원을 진지하게 낭독했다.

현직 경찰 간부로 재직 중인 대세지팀 전성준 포교사는 "지장보살은 지옥에 가서 모든 중생을 구제할 때까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발원을 세웠다. 이는 경찰의 업무와도 닮아 있다. 비록 범법자를 체포하는 일을 하지만, 진심을 나눠 공감하고 친구가 될 때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세지팀은 <관세음보살 이야기>(저자 정찬주) 6권을 유치장에 기증했다. 유치장 내에는 유치인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작은 책장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그 중 2/3 이상은 이웃종교인들이 봉사활동 후 놓고 간 성경책 및 종교서적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에 비해 불교서적은 찬찬히 살펴도 10권이 채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표지가 낡아 선뜻 손이 가지 않을 정도다. 또, 이웃종교에서는 매주 토 · 일요일이면 하루에도 수차례 인근 교회에서 조를 편성해 수시로 유치인을 위한 예배를 열고 있다. 반면 불교계에서는 경승단이 조직돼 있긴 하지만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나 신년하례회 등 특별한 날을 제외한 활동이 미비해, 이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

전직 경찰간부로 퇴임 후 포교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대세지팀 이임규 포교사는 "예전 경찰에 근무하는 동안 이웃종교에서는 유치인들을 위한 예배와 기도를 하루에도 수차례 다녀갔지만 불교계에서는 단 한번도 온 적이 없어 아쉬웠다. 이때부터 유치인을 위한 포교에 원력을 세워 포교사단 대세지팀에서 전국 최초로 유치장법회를 실시하게 됐다"며 "부산지역 경찰서 중 유치장이 있는 곳은 6곳에 불과하지만, 한달에 2번 한 경찰서에서만 하는 실정이 안타깝고, 교계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 도중 10명의 유치인 중 2명은 석방돼 개운한 표정으로 두꺼운 철문을 나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유치인이 철문 안에 갇혔다. 법회 내내 이불을 덮고 등을 돌려 외면하던 여자유치인은 어느 샌가 법회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앉아 무심한 쳑 눈을 감고 법문 내용을 경청했다. 이들을 향해 포교사들은 차가운 철창 너머 부처님들에게 법문집과 책을 살며시 건넸다.

최광재 포교사는 법문을 통해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는 것 아닌 안에 있다. 지금은 불편하지만 자유로운 몸이 되면 여러분을 걱정해주는 가족, 친지들을 위해 좋은 일, 착한 일, 하고 많이 베풀길 바란다"고 말했다. (051) 633-3011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설 명절 정나누기 행사 이어져

북한이탈주민 및 소외계층에 자비손길

설을 맞아 부산지역 사찰과 복지관이 소외된 이웃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쳤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봉)은 2월 6일 강당에서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과 함께하는 설 명절 정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부산지역 새터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외로움을 달래고, 지역민과 화합을 도모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 및 관장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새터민 합동차례, 설 선물 전달식, 흥겨운 전통놀이 한마당, 통일떡국 나눔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합동차례는 2007년 전입한 새터민 이흥주 씨를 제주로 전통 유교방식으로 치러졌다. 행사에 참가한 100여 새터민은 북녘에 홀로 두고 떠나온 부모님과 탈북 과정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가족 과 동포들의 넋을 기리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차례를 지냈다.

복지관은 이날 전달된 생필품 140상자 및 떡국 떡 80상자를 100여 새터민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 새터민은 "북에 있을 때는 쌀이 귀해 떡국은 커녕 쌀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진한 육수로 정성껏 요리한 떡국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했다.

관장 서봉 스님은 "부산시에는 700여 새터민이 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목숨을 건 탈북 과정을 겪으며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공산주의와 다른 우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모인 새터민들은 각자 가치관, 세계관, 종교관이 다를 수도 있지만,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조상님을 기리고 맛있는 먹을거리로 가족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습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한민족임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내자"고 밝혔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2월 10일 용호문화센터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설날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새해맞이 떡국상을 대접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11시 판소리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이춘성 관장의 인사말, 축사, 진학장학생 장학금 및 설맞이 선물 전달이 1시간 여 동안 계속됐다.

행사 후 복지관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못한 가정을 따로 방문해 직접 선물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전해진 설맞이 선물세트와 장학금 등은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400세대에 전달됐다.

이에 앞선 3일, 대한불교승가종(종정 월인)은 진주시 이반성면을 방문해 성금 150만원과 라면, 칫솔, 수건 등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과 후원물품은 이반성면 내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가정과 차상위계층의 독거노인, 장애우 가정 등 어려운 세대에 전해졌다.

종정 월인 스님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성금과 성품을 마련해, 자비의 마음을 함께 담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봉근 이반성면장은 "승가종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비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불교승가종은 2009년부터 진주시 이반성면에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는 등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진주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박지원 기자

불교로 보는 정신건강

부산불교교육원, 강좌 개설

부산불교교육원(원장 박동범)이 현대인의 고민거리를 불교적 관점으로 풀어보는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좌를 개설한다.

박성봉 박사(정신과 전문의 · 조계종 국제포교사)가 강의하는 강좌는 3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9시 5주 동안 이어진다.

강의 주제는 3월 2일 '걱정거리! 불교와 무슨 관련이 있나?', 9일 '꼴 보기 싫은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 16일 '인터넷게임에 빠진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 23일 '걱정거리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명상방법은?', 30일 '걱정거리 해결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은?' 등이 차례로 마련된다.

박성봉 박사는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쉽게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가 있거나 더 좋은 상황을 원하는 분, 고민상담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 현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청강하면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강료는 3만원(교재비 포함)이며 선착순 30명에 한한다. 수강료 수입 전액은 여래사에서 실시하는 밑반찬 지원 사업에 쓰인다. (051)466-4080

박지원 기자



전두환 前 대통령, 부산지역 사찰 신년하례 전두환 前 대통령은 2월 5일 설을 앞두고 신년하례차 부산지역 사찰들을 잇달아 방문했다.

전 前 대통령은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를 시작으로, 천태종 삼광사(주지 화산), 해운정사(조실 진제) 등을 차례로 찾았다. 사진은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이 전두환 前 대통령에게 범어사 도량을 안내하는 모습. 박지원 기자



설맞은 환우에게 전한 따뜻한 자비

광주생명나눔, 무각사 등 병원 복지관에 위문품 전달

설을 앞두고 호남지역에서 환우를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와 화순 유마사(주지 일장)는 2월 10일 화순전대병원(병원장 범희승)에서 장기치료 중인 500여 환자 · 가족에게 설 떡국떡을 전달했다.

화순전대병원에는 소아암백혈병을 비롯한 각종 암질환으로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대상자도 다수 입원해 있는 등 생사를 넘나들며 힘든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현지 스님을 비롯해 광주생명나눔 이사인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 일명 스님(금선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과 일장 스님, 10여 명의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종교실에 모여 간단한 행사 후 지침을 전달받고, 손수레에 포장된 떡국떡을 싣고 200여 병실을 방문해 떡을 전달했다.

전달에 앞서 현지 스님은 "생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 중 일부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다. 명절을 맞아 힘든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작은 나눔을 전하고 싶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주생명나눔은 현재 화순전대병원의 소아암 환우들에게 치료비와 환우 정서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화순 유마사도 화순전대병원에서 매주 호스피스 상담을 진행중이다.



화순전대병원 봉사에 앞서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화순 유마사 사부대중.



오른쪽부터 무각사 성효스님 · 자인원 원장 수현 스님.

이에 앞서 9일 광주생명나눔과 유마사는 조선대병원(병원장 김만우)를 찾아 병원 대합실에서 투병중인 환우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무료전통차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회씩 진행해 온 무료봉사에는 광주생명나눔 차봉사팀(팀장 문금자) 회원 9명이 고정 참여해 환우와 보호자, 의료진에게 500여 잔의 황차, 녹차, 홍차, 꽃차 등 전통차를 봉사하고 있다.

문금자 팀장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병마와 싸우는 모든 사람들이 잠시나마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더 없이 기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천연목욕제 '곱단이'로 널리 알려진 곡성 무각사 성효 스님은 전남 강진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자인원(원장 수현)에 천연목욕제품 20세트와 쌀 8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성효 스님이 자식의 부양도 받지 못한 채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피부질환 개선을 돕고자 마련됐다. 스님은 이전부터 불교복지시설에 정기적 물품후원을 해왔다.

전달식에서 성효 스님은 "최근 들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스님들이 늘고 있어 감사하다"며 "승가의 일원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부처님 법을 실천하는 작은 길이다"라고 말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수현 스님은 감사의 말을 통해 "한국불교는 어려운 시절 쌀자루를 들고 절에 와 기도했던 어른들이 큰 기둥이었다"며 "이제는 연로해 생의 마지막 가시는 날을 부처님 품안에서 보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를 믿었던 어른들이 타 종교 시설에서 힘들어했지만, 불교시설에서는 큰 안정감을 느낀다. 많은 곳에서 이런 시설들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발달장애 학생들 위한 국제 컨퍼런스

관계자 200여 명 동참 선운사, 세미나 개최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2월 6~7일 선운사 세미나실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의 독립생활과 취업옹호를 위한 한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TIL 전환교육연구소, 미국 One of Us Intl Inc 등이 공동주최하고 선운사와 전북교육청이 후원해 전국의 특수학교 교사와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 부모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또, 템플스테이를 겸한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월 6~7일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모습.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사찰이 간직한 역사와 전통문화, 참선수행,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찰음식 등이 발달장애아들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운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외국인에게 한국 불교문화를 알리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천 보승사 확장 이전

도심 속 작은 불교신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포교당이 순천에 개설됐다.

순천 보승사(주지 영도)는 2월 6일 순천 연향동으로 법당을 이전하고, 법당 이전 개원 및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천은사 종국 스님, 순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혜인 스님, 용화사 상주 스님을 비롯해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영도 스님은 인사말에서 "점안식은 부처님이 부처 · 지혜 · 진리 · 법의 눈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에 중생과 교감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며 "보승사를 찾는 대중이 기도정진을 통해 거룩한 부처님과의 인연을 깨닫고 부처님 가르침이 순천의 모든 시민들에게 퍼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요식에 이어 진행된 축하공연에는 낙안읍성 가야금병창 보존회에서 25현 경음악과 가야금병창(사철사, 심청가 中 화초타령), 판소리 등을 선보였다.

한편, 보승사는 2003년에 지하층에 개원했으나 장소가 협소해 신행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이전 · 개원한 신행공간에는 30평에 달하는 법당과 요사공간으로 이명숙 보살의 시주와 신도들의 십시일반으로 이뤄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불자들에게 찬불가 지도하는 송태균 포교사

"찬불가는 신심으로 부르는 노래"

이웃종교인들이 상을 당했을 때 장례예식장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불자들의 장례에서는 스님이나 염불봉사자의 염불 소리는 들려도 찬불가를 듣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가운데 완주 위봉사 일요법회 회원들은 신도들이 상을 당했을 경우 장례식장을 찾아 염불과 '조가' '빛으로 돌아오소서' 등 찬불가를 불러주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염불 외에 조가가 불려지는데는 송태균 포교사의 숨은 원력이 숨어 있다.

전북포교사단 음성포교팀을 이끄는 송 포교사는 서울대 기악과 졸업 후 서울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했던 전문 음악인이다. 전주 시립교향악단 창단멤버로 10여 년 간 활동했던 그는 29년간 전주 완산고 음악교사, 군산대 목원대 외래교수로 활동했다.

송태균 포교사는 매주 자신이 운영중인 페다고지 음악학원에서 대성월 보살과 함께 불자들을 대상으로 찬불가와 찬불가 속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송 포교사는 30년 넘는 전문 음악가이지만 지금도 찬불가를 부르다 목이 메인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짧은 가사와 곡 속에 스며있어 그 의미를 되새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때문이다.

현재 찬불가 연구소도 운영하는 송거사는 찬불가를 부르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투철한 신심과 이론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지도할 수 있어야만 찬불가 속에 녹아있는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화엄불교대학에서 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송태균 포교사가 자신의 포교활동 영역으로 음성포교를 선택해 소외되고 어려운 곳을 찾아 찬불가를 부르는 이유이다.


송태균 포교사

송 포교사는 "이웃종교인이 사찰에서 지휘자로 활동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불교를 이해하지 못한 합창단 지휘자는 단순히 테크닉만 전수할 뿐이다. 찬불가는 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신심으로 불러야 하는 노래"라고 강조했다.

송태균 포교사는 현재 전국을 다니며 찬불가를 수집하고 있다. 30년 음악전문가이지만 찬불가 작곡자 · 작사자를 만나 찬불가를 만들 때의 마음가짐 등을 교류하는 중이다.

송 포교사는 "우리 전통음악으로 된 찬불가를 보급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화 | 02-732-2403~4 · 팩스 | 02-739-7565 · 홈페이지 | www.minjoksa.org 민족사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왕초보, 禪박사 되다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는 어떻게 참구하는가?
화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하여 누구든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왕초보, 천수경박사 되다
불교의 기초에서 깨달음까지! 쉽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왕초보, 경전박사 되다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왕초보, 수행박사 되다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왕초보, 법화경박사 되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왕초보, 불교교리박사 되다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무위사에는 500년 전 전설이 전시되고 있다



파랑새가 그린 미완의 벽화는 훗날 국보로 불린다

월출산을 휘감은 운해가 극락보전을 감싸안았다.

오백년 불화 간직한 ❹ 강진 무위사(無爲寺)

극락보전의 문은 99일 동안 닫혀있었다. 노스님과 100일을 약속했던 주지 스님은 법당 안이 너무나 궁금했다. 전설은 늘 하루를 참지 못했다. 주지 스님은 법당 문을 열고 말았다. 법당 안에는 벽화를 그리겠다고 했던 노스님 대신 파랑새 한 마리가 입에 붓을 물고 벽화를 그리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놀랐고 놀란 주지 스님에 놀란 파랑새는 벽화를 끝맺지 못한 채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파랑새가 그린 미완의 벽화는 훗날 국보로 불린다.

남쪽 땅은 젖어있었다. 이른 봄비 끝에 묻어온 짙은 안개와 운해가 길을 감추고 월출산 허리를 지워가고 있었다. 그 감춰진 길 끝에, 지워진 산기슭에 전설의 극락보전이 있었다. 그리고 미완의 벽화가 거기 있었다.

무위사는 신라 진평왕 39년(617)에 원효 스님이 세운 절로 500년 전에 그려진 벽화를 31점이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미술관 같은 절이다. 그 31점의 벽화가 그려진 극락보전 역시 당대의 빼어난 건축미를 지니고 있는 국보(13호) 불전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보물에서 국보(313호)로 승격된 후불 아미타여래삼존벽화와 후불벽화 뒷벽에 그려진 백의관음도(보물 1314호)만이 극락보전에 그대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1956년 극락보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벽화보존각을 세워 그 곳에 봉안했다.

극락보전에 들어서면 벽화를 들어낸 쓸쓸한 벽들이 전설 속의 파랑새를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색채를 잃은 빈 벽의 쓸쓸함은 새로운 구도로 그려진 조선불화 한 폭을 감상하는 동안 잊게 된다. 협시보살을 아미타여래와 거의 나란히 세우고 나머지 공간을 6나한으로 채운 원형구도의 아미타여래삼존벽화는 협시보살을 아미타여래 무릎 아래에 그려 위계를 강조했던 2단구도의 고려불화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조선불화이다. 전설 속의 파랑새는 그 벽화에서 관음보살의 눈동자를 그리지 못했다. 전설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듯했다. 관음보살의 눈동자만이 그려지지 않은 것에서 누군가 만들어낸 전설인 것 같다. 화기(畵記)에 의하면 극락보전의 벽화는 해련 스님과 선의 스님 등이 그린 것으로 되어 있다.

잠시 잊었던 빈 벽의 쓸쓸함이 결국 나머지 벽화가 봉안되어 있는 벽화보존각으로 향하게 했다. 극락보전 벽에 붙어 있어야 할 벽화들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잡혀온 동물원의 동물처럼 이름표를 붙이고 유리관 안에 걸려 있었다. 아쉬운 일이었지만 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할 일이기도 했다. 슬픈 역사와 함께 사라진 성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극락보전에서 빈 벽의 쓸쓸함이 벽화보존각으로 향하게 했다면, 이번엔 벽을 잃은 벽화들의 쓸쓸함이 다시 극락보전으로 향하게 했다. 다시 극락보전에 서서 마음속에 담아 온 벽화들을 빈 벽에 붙여보았다. 500년 전의 법당이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 산과 당연히 흘러야 할 것 같은 강물처럼 무위사는 월출산 기슭에 있었다. 무위사를 찾는다면 미술관에 가는 기분으로 길을 나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고려불화를 몰라도 좋고, 조선불화를 몰라도 괜찮다. 무위사에 걸린 작품들은 불심으로 밖에는 볼 수 없는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한 손에 염주를 들고 법당을 돌며 벽을 잃은 벽화와 벽화를 잃은 극락보전의 빈 벽을 쓰다듬어 보는 것이다. 파랑새가 그렸든 해련 스님이 그렸든 지나간 일은 모두 같은 전설이다. 풍경 소리가 울리고 목탁 소리가 들리는 전남 강진의 미술관에는 500년 전의 전설이 전시되고 있었다.

극락보전의 풍경을 요란하게 울리며 봄바람이 불어왔다. 천불전 뒤의 산봉우리에 머물던 운해가 순식간에 도량으로 내려왔다. 말 한번 붙여보지 못한 삼층석탑이 운해 속으로 사라지고, 애달프게 바라보던 극락보전은 지붕 끝만 섬이 되어 마당 위에 떠올랐다. 운해에 떠밀려 천왕문을 나섰다. 마지막 남은 천왕문도 운해 속으로 사라졌다. 미술관은 그날 그렇게 문을 닫았다.

글 · 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아미타여래삼존벽화가 있는 극락보전 내부.

무위사 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광산IC에서 13번 국도로 송정, 나주를 거쳐 무위사 진입로로 접어들어 3km정도 가면 무위사다. 대중교통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강진행(20분 간격)이나 해남행(20분 간격) 직행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성전면에서 하차. 1시간 20분 정도 소요.

길상사 불교대학 개설 2010년 신입생 모집

도심 속의 아름다운 산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 불교대학을 엽니다. 불교에 대한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명쾌한 강의를 통하여 정법의 이해와 바른 수행의 길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 **학 제** : 1년 2학기제 **(3월 3일 개강)**
■ **교 수** : 정화스님, 덕현스님, 남전스님, 이평래, 김재성, 서재영, 홍가이 외
■ **과 목** : 불교개설, 불교수행, 기초신행, 초기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 대승경전 강설, 선의 역사, 선어록, 불교문화예술
■ **일 정** : 주간반 – 매주 수요일 낮 2시 ~ 5시
야간반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반
■ **수강료** : 1년 40만원
■ **대 상** : 불교의 바른 이해와 수행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신 분 200명(선착순)
■ **문 의** : 종무소 02)3672-5945 / www.kilsangsa.or.kr

※ 불교대학의 심도 있는 강의를 따라갈 수 없는 분을 위해 마련한 기초과정도 있습니다.
· **기초교리** : 매주 화요일 2시 / 3월 2일 개강
· **토요법담** : 매주 토요일 2시 / 3월 6일 개강

'현재의 나 자신은 과거의 나 자신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날일 수 있다.'
– 법정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中

지금이 바로 그때니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자연발효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복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얼이 베어있는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로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틀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 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발효로 띄워서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福 금강정사 복식품
서울법당 : 02)742-0172 대구법당 : 053)425-3063
포항금강정사 : 054)261-2231 울산법당 : 052)211-2161
부산법당 : 051)514-3566 대전법당 : 042)862-5539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3>

마음이 선하면 법은 불필요하다

조주 스님이 남전선원에서 노두(爐頭: 불을 관리하는 소임)를 맡을 때이다. 하루는 대중이 모두 모여 채소를 가리고 있었다. 조주 스님은 승당 내에 있다가 "불이야, 불!" 하고 외쳤다. 대중은 순식간에 승당 앞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승당 문을 닫아버렸다. 대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전 스님이 창으로 열쇠를 던져 넣으니 조주 스님이 문을 쏙 열었다.

師在南泉作爐頭 大衆普請擇菜 師在堂內 叫救火救火 大衆一時到僧堂前 師內關卻僧堂門 大衆無對 泉乃拋鎖匙從窗內入堂中 師便開門

가끔 절에서는 모든 대중이 밭으로 나가서 채소를 가꾸거나 뽑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울력이라고 한다. 이 때에는 조실이나 방장 스님도 예외 없이 함께 일을 한다. 대중이 다 모여 있을 때, 조주 스님은 "불이 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하겠느냐"며 선적인 행동으로 대중에게 질문했다. 여기에 대해 아무도 대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방장으로 있던 남전 스님이 창 안으로 열쇠를 던져 넣었다. 그때서야 조주 스님은 문을 열고 나왔다.

선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실 평범한 곳에 있다. 불이 났을 때는 응급할 때이다. 응급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차분히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해결책을 남전 스님은 '열쇠'라고 표현했고, 조주 스님도 그에 공감한 것이다.

두 스님이 대중을 모아놓고 왜 이런 쇼를 했을까? 그것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였다. 그냥 앉아서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두 참여해 직접 체험하게 되면 그 깨침은 강렬해진다. 이 외의 선서(禪書)에 나오는 선사들의 선적인 행동과 말은 모두 사람을 효과적으로 또는 강렬하게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사회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 · 사회 · 교육 · 청소년 · 빈곤 문제 등은 오늘날 큰 화두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사람들은 계속 법을 제정하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 법은 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을 다시 발생시키는 맹점이 있다. 때문에 법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선(善)하면 법은 많지 않아도 된다. 국가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을 선(善)하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사회에 만연된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선사(禪師)는 인간사 모든 문제에 열쇠를 던져주는 선지식임이 분명하다. 다만 사람들이 그 열쇠를 사용할 줄 몰라서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조주 스님이 남전선원의 정루(井樓:물 푸는 누각)에 올라가 물을 푸다가 남전 스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조주 스님은 기둥을 끌어안고 다리는 허공에 띄워 흔들면서 소리쳤다.

"살려줘, 살려줘!"

남전 스님은 정루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말했다.

"1, 2, 3, 4, 5…"

조주 스님은 잠시 뒤 남전 스님에 나아가서 인사를 하였다.

"아까는 노스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師在南泉井樓上打水次 見南泉過 便抱柱懸卻脚云 相救相救 南泉上棚梯云 一二三四五 師少時間卻去禮拜云 適來謝和尙相救

말보다 직접 체험하면 깨침은 강렬해진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특별함은 '안심'

조주 스님은 한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남전 스님이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 위기상황을 연출했다. 여기에 대한 남전 스님의 대처방법은 신속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었다.

즉,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선사(禪師)라 해도 신속하게 움직여서 그를 구해줘야 한다는 것은 평범한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 위험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은 특별함이었다. 남전 스님은 정루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발이 사다리 하나를 밟을 때마다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외치면서 구원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려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안심시켰다. 이것이 바로 깨달은 이의 자비행이다. 이는 조주 스님에게 평생 교훈이 됐을 것이다.

삼풍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 3명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살아났다. 모두 불자였다. 그 중에 한 불자는 "암흑 속에 갇혀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적막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 후 멀리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안심이 됐다는 것이다.

아침마다 수험생 옆에서 학부모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염불하는 소리를 들려주면 그 수험생은 실제 학업에 능률이 오른다. '관세음보살'에 무슨 뜻이 있는지, 왜 불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고 염불하는 것 그 자체가 중생구원의 자비행이다.

남전선원의 동당 스님들과 서당 스님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서로 자기네 고양이라고 다투고 있었다. 남전 스님이 당내에 들어가서 고양이를 들어 올리고 말하였다. "고양이를 들어 올린 뜻을 바로 말하면 고양이를 살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고양이를 죽일 것이다."

대중이 여러 말을 했지만 모두 남전의 뜻에 맞지 않았다. 남전 스님은 고양이 목을 베어버렸다. 저녁에 조주 스님이 외출에서 돌아와 귀가 인사를 드리니, 남전 스님이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면서 그대라면 어떻게 고양이를 구하겠는가? 하고 물었다. 조주 스님은 짚신 한 짝을 머리에 이고 나갔다. 남전 스님은 "그대가 있었더라면 고양이를 구했을텐데…"라고 말했다.

南泉東西兩堂爭貓兒 泉來堂內提起貓兒云 道得卽不斬 道不得卽斬卻 大衆下語皆不喫泉意 當時卽斬卻貓兒了 至晩間師從外歸來問訊次 泉乃擧前話了 云 你作麽生救得貓兒 師遂將一隻鞋載頭上出去 泉云 子若在救得貓兒

이 '남전참묘아(南泉斬貓兒)' 화두는 조금의 티끌도 묻어있지 않는 맑은 것이다. 공연히 여기에 이러니저러니 사족을 달면 점점 더 진흙탕으로 빠져들어갈 뿐이고 정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화두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비유로도 대신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이 화두는 직접 체험해야만 알 수 있다.

참선은 마음을 푹 쉬어서 편안한 상태로 해야 한다. 세상에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대부호의 마음이 돼 편안하게 화두를 들어야 한다. 구하려는 욕망으로 가득해 마음이 가난하면 절대 알 수 없다. 부자의 마음으로 넉넉한 상태에서 이 화두를 들고 있으면 일체 망상이 달라붙지 않을 것이다. 선악시비가 떨어져나가고 헤아리려고 해도 더 이상 헤아릴 수 없는 고요한 마음에 돌아간다. 그때 문득 이 화두의 답이 드러난다. 뜻이 드러나도 말로 설명할 수 없음을 그때서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 무불선원 선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8

삼취와 육바라밀을 밝히다

또 물었다.

"보살마하살이 삼취정계(三聚淨戒)를 가지고, 또 육바라밀을 행해야 불도를 이룬다 하셨는데, 지금 수행자로 하여금 오직 마음만 관하고 계행을 닦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했다. "삼취정계란 바로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니, 일독(一毒)만 제거해도 한없는 선을 이루게 된다. 취(聚)란 모았다는 뜻인데, 삼독을 제거하면 곧 세 가지 무량한 선만 있게 된다. 그 선이 모두 마음에 모이게 되므로 삼취정계라 한다. 또 육바라밀이란 곧 육근을 맑게 하는 것이니, 인도에서는 바라밀이라 하고 한문으로는 피안(彼岸)에 이른다는 뜻이다. 육근이 청정해 세상일에 물들지 않으면 곧 번뇌에서 벗어나 피안에 이르게 되므로 육바라밀이라 한다.

보시는 베푼다는 뜻이지만 보시바라밀은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욕심 있는 세상을 차안이라고 하고 욕심이 끊긴 세상을 피안이라고 합니다. 저 언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욕심이 끊어졌다는 말은 나와 너의 경계가 모두 끊어진 것입니다. 우주를 하나의 마음으로 보고 행해야만 보시바라밀이 됩니다.

육안의 눈으로 본다면 분별을 하지만, 마음에서 보면 세상 모든 것은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돼 있습니다. 마음에서 본다면 우주와 나와 네가 없는 대상이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베풀 때 우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입니다.

지계바라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율도 우주를 상대로 보면 우리는 모두 한 몸입니다.

반야나 지혜 차원에서 우주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대로 살생하고 죽일 수가 없잖아요? 무언가를 줄 때도 아낌없이 줄 수 있겠죠?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쓰는 존재입니다. 하나를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사실 계율도 지킬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쓸 때 진정한 바라밀이 됩니다. 육바라밀은 모두 하나의 마음을 두고 행해야 하고, 그래야지 부처님과 같은 열반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고 행을 하는 것도 모두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도리만 알고 행한다면,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번뇌입니다.

대상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태여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로 보고 눈을 떠야지만 확실하게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원문]

又問曰 菩薩摩訶薩 由持三趣淨戒 行六波羅密方成佛道 今令學者 唯持觀心 不修戒行 云何成佛. 答曰 三聚淨戒者 則除三毒心也 除一毒成無量善 聚者會也 以除能三毒 卽有三無量善普會於心 名三聚淨戒 六波羅密者 卽淨六根 胡名波羅密 漢言達彼岸 六根淸淨 不染世塵 卽是出煩惱 便至彼岸也 故名六波羅密.



동성 스님 作

[해설]

교학자는 "경전에 따라 계를 지니고 육바라밀을 행해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참선수행자는 "마음만 관하면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심,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보고 일으킨 것이니 마음에서 우주를 하나로 보면 경계가 끊어집니다. 내 것, 네 것이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면 마음에서 이를 눌러야 합니다.

욕심을 누르면 착한 덕이 쌓이게 됩니다. 무언가를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에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가지지 못할 때 마음에서 온갖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욕심의 생각을 억제하면 무량한 덕이 쌓이게 됩니다.

육바라밀은 보시 · 지계 · 인욕 · 선정 · 정진 · 지혜바라밀을 말합니다. 바라밀은 "저 언덕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고 인욕도 하고 선정과 지혜를 닦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행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 스스로 만들기에 날마다 좋아요

마곡사 화림원 정현 스님

정현 스님은 ...

선화와 '날마다 좋은 날' 운동으로 유명한 스님은 1941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다. 1957년 지리산 화엄사에서 전강 대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남원 실상사 주지를 지낸 후 스님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서 스님은 LA 오렌지카운티 정혜사 주지, 오래곤 포트렌드 보광사 주지, 덴버 용화사 주지, 캘리포니아 금강선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수원 용주사 주지를 역임한 스님은 20여 년 전부터 '화림원'에서 수행정진 중이다.

정현 스님은 '날마다 좋은 날' 10만 장 회향을 기념해 4월 1일부터 서울 수운회관 다보성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연다.

입춘이 지났다. 언제 추웠냐는 듯 비가 내린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을 차로 달렸다. 나그네가 운전하는 동안 두어 번 들은 정시뉴스에서는 미국 워싱턴에 1m 가까이 내린 눈소식이 되풀이 되고 있었다.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캐나다 벤쿠버에서는 이상고온과 비로 인해 트럭으로 경기장에 눈을 실어 나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지구 반대편인 호주 등 남반구는 섭씨 40도의 폭염에 시달렸다.

때 아닌 멕시코의 겨울폭우와, 미국 로스엔젤리스 주변의 겨울폭풍까지 자연마저도 자연스럽지 못한 세상이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세상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었다. 세차하면 다음날은 꼭 비가 온다는 것.

경인년 설을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이른 봄날, '춘마곡추갑사(春麻谷秋甲寺)'의 공주 마곡사를 찾았다.

공주 마곡사는 백제 무왕 41년(640) 자장율사가 창건했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이후 중창했다. 근대에는 백범 김구와 각별한 인연을 맺은 곳이기도 하다. 마곡사 백련암은 백범이 명성황후 시해에 분개해 황해도 안악에서 일본군 장교를 살해하고 세상을 피해 3년간 은둔하며 승려생활을 했던 곳이다.

전란 피할 명당 마곡사에는 무수한 암자 있어

자기 위치에서 본분사 지키는 날이 좋은 날

광복 후 마곡사를 다시 찾은 백범은 "돌아와 세상을 보니 흡사 꿈속의 일과 같구나(却來 觀世間 楢如夢中事)"라고 말하며, 향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때 백범이 심은 나무는 지금도 대광보전 앞마당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

마곡사의 가장 큰 특징은 가람의 배치이다. 도량을 남북으로 나눠 흐르는 태화천을 중심으로, 북쪽에는 부처님 세계인 극락을 상징하는 대웅보전(보물 제801호)과 대광보전(보물 제802호)이 있다. 남쪽에는 영산전, 매화당, 수선사 등 스님의 수행공간이 자리한다. 태화천으로 갈린 두 곳을 극락교가 이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다. 마곡사는 물의 흐름과 산의 형세가 태극형인 곳에 자리해 <택리지> <정감록> 등에서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명당으로 꼽혀왔다. 그래서일까? 마곡사에는 암자가 많다.

태화산 기슭에는 마곡사 종무원도 알지 못하는 암자와 토굴이 있을 정도이다.

마곡사 부도밭을 지나 갈래길을 돌고 돌았다. 네비게이션에도 없는 길을 누가 일러준 기억대로 더듬어 산을 올랐다. 찾아가려는 '화림원' 이정표가 없어 가는 동안에도 나그네는 불안했다. 길을 일러준 누가 못미더웠고, 나그네의 희미한 기억이 마땅치 않았다.

백련암 길과 죽림원 갈림길부터 갈등됐다.

"이 길이 맞을까? 죽림원 쪽으로 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죽림원 쪽으로 차를 돌렸다. 굽은 비탈길을 올라갔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이 길이 아닌가보다."

나폴레옹이 생각났다. 나폴레옹은 군대를 이끌고 힘겹게 산을 올라놓고는 "이 산이 아닌가봐"하며 회군시켰다.

돌릴 군대도 없이 차 한 대 뿐이었던 나그네는 계속 달렸다. 길을 알려준 누구를 믿기로 했고, 희미했지만 내 기억을 믿기로 했다.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누가 나를 믿을 것인가?"

그때였다. 누가 알려준 화림원의 상징, 빛바랜 '날마다 좋은 날' 안내판이 나그네를 반긴다.

"찾았다!"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은 <벽암록> 제6칙 공안이다.

중국 운문종을 세운 운문 선사(864~949)가 어느 날 법상(法床)에 올라 제자들에게 물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너무 집착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난 일이다. 그대로 묻어두는 것이 좋다. 그러니 보름 전 일은 묻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보름 후 일에 대해 각자의 의견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것이다. 자 말해보라. 보름 전 일은 묻지 않을 테니 보름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는가?"

선사의 질문에 제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했다. 운문 선사가 말했다.

"날마다 좋은 날이로다(日日是好日)."

하지만 중생의 삶이란 매일이 고달프지 아니한가? 살다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다. '날마다 좋은 날'이 적힌 표지를 두고 나그네는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는 '날마다 불안한 날(日日是凶日)'이란 말이 맞을 텐데…."

이를 '날마다 좋은 날' 운동을 10년 넘게 펼쳐 온 화림원 정현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이 말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이 모두 좋은 날입니다. 청소부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주부는 열심히 살림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본분사를 지키며 사는 날들이 모두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인 이유는 간단했다. 내 인생(삶)은 내가 만들어 간다는 것. 맡은 일에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난다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지극히 쉬운 이유였다.

정현 스님은 "'날마다 좋은 날'이란 말 속에는 행복 · 기쁨 · 자유 · 평화가 있어요. 종교와 인종 사상 이념까지 초월한 말"이라며 "그 날은 '부처님의 날' '하나님의 날' '신의 날'이지만 아무도 못 만들어 준다. 오직 '나'만이 만들 수 있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 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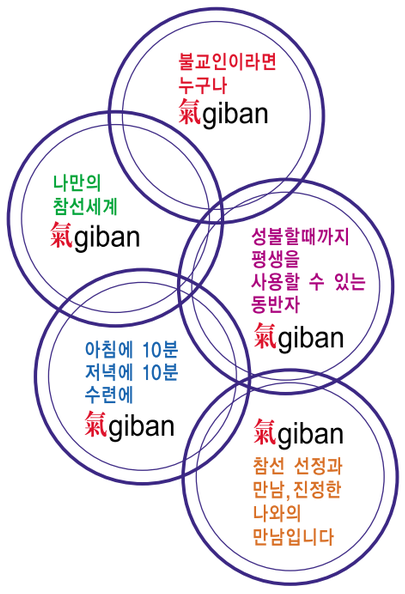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DC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움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특별한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의 할인 해택을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고통도 좋게 만드는 것이 수행

지극히 쉬운 도리였지만,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 않은가? 마음 속 한 줌 앙금마저 떨치기 위해 나그네가 다시 물었다.

"스님, 중생은 누구나 괴로움을 피하고 즐거움을 쫓으려 합니다. 세상에는 괴로움이 가득한데 어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잘하든 잘못하든 좋은 날입니다. 좋은 생각 · 마음으로 좋은 날을 만들겠다고 하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모두 좋은 것이에요. 고통까지도 좋은 날로 만들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수행입니다."



"좋은 생각과 마음으로 이루고자 하면 이뤄진다"는 정현 스님의 말은 굳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아니어도 최근 베스트셀러였던 <시크릿>의 핵심이기도 하다. "마음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던 책.

스님은 마음만 먹고 화가가 된 경우이다. 그림을 잘 그리지도 좋아하지도 않았던 스님이 붓을 든 것은 20년도 채 안됐다. 스님은 "그저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뿐이었다.

정현 스님은 참회와 중생교화를 위해 '날마다 좋은 날' 운동을 생각했고, 그림을 그렸다.

"승복 입고 빚은 과오를 참회하고, 부처님 밥 먹고 살면서 세상에 좋은 일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그림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산중에 있지만 내 그림은 사람들 손에 들려 세상을 돌아다니고, 곳곳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니까요."

정현 스님이 나눠주는 선화 '날마다 좋은 날'은 스님이 불자들에게 전하는 삶의 화두이고, "올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살라"는 경책이었다.

스님은 10만 장의 '날마다 좋은 날'을 선화로 그려 대중에게 전해왔다. 10만 장의 그림이 중생의 손마다 들려지고, 벽에 걸리기까지 무려 11년이 걸렸다. 손님이 찾을 때마다 10번이고 '날마다 좋은 날'이 그려진 그림을 손에 들려 보냈다.

"나는 산 속에 있으니까 대신 가져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달라고 심부름시키는 것이지요. 하하하"

정현 스님은 18세에 친구와 지리산 화엄사를 찾았다가 우연하게 출가했다. 스님은 은사인 전강 스님을 시봉하며 한참을 살았다.

"은사스님은 수행에 철저한 분이셨어요. 전강 스님은 치열하게 공부하다 상기돼 머리까지 터졌는데, 그때 스님 머리 생긴 흉터를 가리려고 머리에 까만 칠을 해드린 적도 있지요."

밤이면 남 몰래 일어나 새벽까지 밀행정진 하던 은사스님을 뒷기에 정현 스님은 평생 수행이 몸에 베었다.

스님은 "견성한 도인(은사스님)을 모시고 살다보니 '수행은 남 속이지 않고 남에게 속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가 생겼다"면서 "성철 스님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말했듯이 항상 자기 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현 스님은 "부처마저도 뛰어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종교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지만, 불교는 부처를 믿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 도리를 알아야 <팔만대장경>의 요체를 아는 것이에요. 부처님은 '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정현 스님의 그림은 선화라 불린다.

"선하는 사람이 그리니 선화라 불리는 것이겠지만, 세상에 선 아닌 것이 있습니까? 도둑질마저도 선입니다. 도둑질조차도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깨닫는 것이 선이니까요."

스님은 집착 없는 삶을 강조했다.

"개신교에서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지만 불교에서는 '했다는 생각조차도 갖지말라'고 말합니다."

정현 스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함이 있는 마음, 집착과 욕망으로 진단했다. "무엇이든 했다는 마음조차 할 수 있다면 어떤 괴로움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스님은 "잘하고 못한 것을 옳게 보고 잘못한 것은 뉘우치는 삶이 중요하다"면서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이 참회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벽암록> 제1칙에서 달마 스님이 '모른다(不識)'고 한 것이나,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에는 새해가 되면 스님이 신도 집에 찾아가는 풍습이 있다. 새해 첫 손님으로 스님을 맞으면 집안의 액운이 사라지고 복이 찾아온다는 믿음 때문이다.

일본 임제종의 잇큐 스님(一休: 1394~1481)이 어느 설날 신도 집을 찾았을 때이다. 스님의 지팡이 끝에 달린 해골을 보고 신도는 깜짝 놀랬다.

"스님, 오늘같이 좋은 날 어찌시려고 망측스럽게 해골을 갖고 찾아오셨습니까?"

잇큐 스님이 말했다.

"오늘이 어째서 좋은 날인가? 설이 자꾸 지나가면 마침내 모두 해골이 될 터인데, 죽는 것이 그렇게도 좋은가? 사람들은 만나면 '요즘 살아가는 재미가 어떠하냐?'고 묻지만 그 재미란 '죽어가는 재미'에 불과하다. 이를 생각하면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일 아닌가?"

하루하루 시간은 간다. 매일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되려면 당장 수행하고 볼 일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82. 원불교 조전권 종사

원불교 공타원(空陀圓) 조전권(曺專權) 종사(宗師)는 1910년 1월 4일 전북 김제군 금산면 구월리에서 출생했다. 조 종사가 원불교에 뜻을 두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부친인 조송광 옹은 1902년 27세 때 기독교를 신앙해 5년 만에 '구봉교회'를 설립했다. 장로인 부친은 43세에 원불교에 귀의했다. 장차 전도사가 되려했던 조전권 종사는 울면서 어찌된 일이냐고 항변했다.

예수님을 친견했다는 부친의 인도로 원불교 익산총부를 찾은 1927년 10월 20일, 17세 소녀는 원불교 사상 첫 정녀교무로 출가서원의 길을 걷게 됐다. '전권(專權)'이란 조 종사의 법명은 '세계 대권을 잡고 일체 중생의 어머니가 되라'는 뜻이었다.

조 종사는 1928년 7월 서울교당 공양주가 되어 4년 동안 밥 짓고 청소하는 일 등 궂은 일을 했다. 1931년에는 익산총부 순교로 부임해 여러 교당을 순교하며 교화에 심혈을 쏟았다. 21세 되던 1935년 12월 29일에는 남부민교당 교무로 부임해 유창한 설교로 많은 교도들을 감동시켰다. 1938년에는 초량교당 교무로, 1939년에는 산지방 교감으로 부산지역 교화에 정성을 기울였다.

한국전쟁을 눈앞에 둔 1950년 5월, 그는 14년을 자리했던 부산 교화현장을 떠나 익산총부 교정원 교무부장으로 발탁됐다. 전국 방방곡곡의 교당을 순례하며 설법을 하고 교리강습을 열어 교화를 지원하며 새 회상의 교세를 소리 없는 요원의 불길로 확산시켰다. 1963년에는 동산선원장을 맡아 종단 교육의 책임자로서 8년 새벽좌선을 비롯해 선원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교역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 종사와 나와의 인연은 1960년 부산에서 이뤄졌다. 부산 누님 집에 가니 "원불교에서 도통한 여자가 와서 강도(講道)를 하는데 참으로 잘 한다"고 했다. 초량 교당으로 찾아가니 조 종사가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 많이 봐온 것 같습니다"고 인사했다.

내가 "이리본부에서 뵈웠던 초



조전권 종사(왼쪽에서 세 번째)는 평생을 중생교화에 힘썼다.

원불교 첫 정녀교무로 출가서원… 교역자 양성에 심혈

때문에 본성을 잃는 경우가 있어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해 취사선택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패가망신하게 되므로 대종사는 자력양성과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숭배로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원불교 경전인 <대종경>이고 <예전>인 것입니다."

조 종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연입니다"고 하니 깜짝 놀라며 반겼다. 조 종사의 강연은 많은 이들을 원불교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인사 후 강연이 시작됐는데 초량교당 내외가 발 들여 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찼다.

"원불교는 1916년 전남 영광 백수면 길룡리 박중빈(소태산) 대종사께서 일원상의 원리를 깨닫고 창종한 종교입니다. 원불교는 그 연원을 불교에 두고 있으나 외면상 숭배의 대상이 다르고 교단운영에 있어서도 재래 사찰 운영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천지 · 부모 · 동포 · 법률의 은혜를 입고 있으니 그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갚도록 하자는데 원불교의 취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불교의 <금강경> <42장경> <반야심경> <현자오복덕경> <업보차별경> <수심결> <목우십도송> <휴휴암좌선문>을 통해 자기 수행을 했습니다. 사람은 욕심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아도 일목요연하게 설법하니 보고 듣는 자들이 잠깐도 눈을 떼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달빛 같은 얼굴에 검정치마 흰 저고리를 입고 혈기 발랄한 몸짓으로 대중을 위압하니 그에 절복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불교가 2500년을 넘는 종교지만 독선기신(獨善其身)으로 세상을 보살피는 일에 소홀해 원불교 같은 새 종교가 각광을 받게 됐다는 한탄도 나왔다.

나는 3일 간 강의를 듣고 느낀 바가 많아 이후 조 종사와 특별한 관계로 교류했다. 1976년 5월 24일 익산총부 금강원에서 66세를 일기로 열반할 때까지 조 종사는 교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원불교 사상 첫 정녀 출신으로 여자회상의 문을 열은 조 종사의 생애는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불제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287-2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 (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 (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 (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 선 시 공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34>

자유방임 상태의 욕망추구 바로 잡아야

오바마 대통령 '미국경제 파탄은 탐욕과 무책임의 결과' 지적

불교경제학이 아담 스미스 이래의 '자유주의 경제학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자유주의 경제학에 찬성할 것이다. '자유'에 대한 해석은 불교와 서구에서 각기 다르다.

경제와 마음의 자유, 돈 벌이의 자유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차이는 명백히 나타난다. 서구의 자유는 기독교 사상 위에서 '~로의 자유' 즉, '~하고 싶은 자유'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신의 계약을 근본으로 한다. 계약에는 맺느냐 맺지 않느냐 하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 자유 속에서 어느 쪽이든 선택해야 하는 것이므로, 서구 사람들에게 자유는 바로 살아가는 것(삶의 가치관)의 근본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칸트는 인간이 선(善)을 행하는 것도 악(惡)을 행하는 것도 자유지만, 그 속에서 선을 선택함으로써만이 그 행위는 상찬할 가치가 있다고 했다. 자유시장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가 자유야말로 경제활동을 하는 인간의 근본문제라고 역설한 것은, 칸트의 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불교의 자유는, '자유자재(自由自在)'라는 숙어가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아무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경지를 말한다. 그것이 불교의 이상적 경지인 열반(涅槃)과 같은 것이다. 열반이라는 말은 '(바람이 불어서)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서 일견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미혹(迷惑)이나 얽매임의 불이 꺼지면,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그야말로 자유자재라는 것이 불교의 근본사상이다.

그런데 하이에크처럼 케인즈도 시장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중시했다. 봉건적인 권력 혹은 국가권력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확보한 언론의 자유, 시장의 자유, 정치의 자유는 바로 근대시민의 소중한 성취물이기 때문이다. 이 자유야말로 근대사회의 기본적 특징이다.

개인이 자유로이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자유에는 책임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다. 그것이 서구윤리의 근본이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경제적 자유도 또 하나의 자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의 자유이다. 하지만 '또 하나의 자기 목소리'인 책임에 대한 회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를 케인즈는 <자유방임의 종언>이라는 책을 통해 자유방임(Lasser faire)이라 비판했다.

케인즈는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와 자력으로는 불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경제의 현실 앞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투자로써 시장의 총수요를 증가시켜 실업을 해소하고 불황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개입으로부터의 해방을 시장자유의 본질로 하는 시장주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자유에 대한 모독이다. 케인즈로서는 부득이한 편의적 조치였을지도 모르겠으나, 하이에크와 같은 시장주의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사태였다. 이점에 관하여 두 사람은 서로 존경하면서도 타협 불가능한 논적으로 시종했던 것이다.

스미스가 중시했던 '값싸고 작은 정부'에 대해 케인즈는 '큰 정부'로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케인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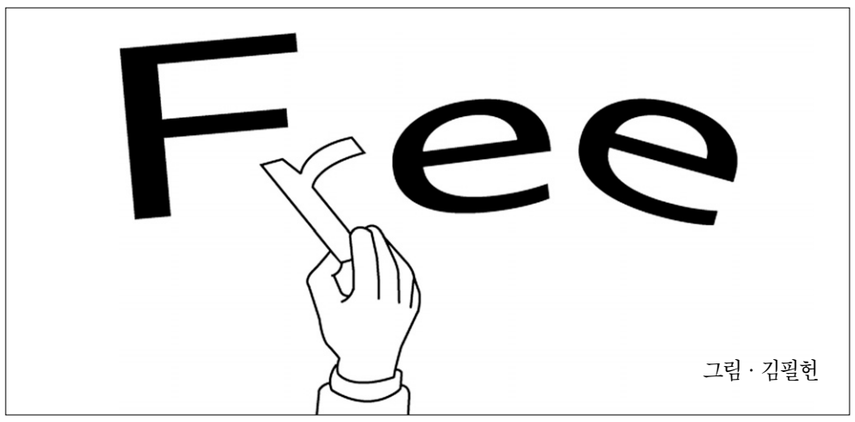


그림 · 김필헌

자유에 대한 우려는 다른 차원에 있었다. 자기의 이익을 제멋대로 추구해도 생산에 관여하는 자유경쟁일 경우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생산에서 떨어져 나와 돈 그 자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케인즈는 문제로 여겼던 것이다. 그 전형이 바로 투기이다. 시장개입주의자 케인즈의 입장에서 자유의 제한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자유의 일탈이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불교경제학은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진전되는 최근의 상황 속에서 케인즈와 상통하는 우려를 통감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버블(거품)'이라 불렸던 주식, 주택, 토지, 자산투자를 비롯한 대부분이 투기바람이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금융과 IT가 결합된 금융공학의 발전으로 수많은 금융상품이 나타났다. 대부분 싼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몇 배로 팽창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 경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서브프라임론'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주가 조작을 지렛대로 한 회사탈취(take over)가 상투화되고 내부정보의 누설에 의한 주식의 불법 이득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각국의 은행 · 증권업계가 더욱 자유로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행한 상호거래의 결과, 신용 제일로 통했던 은행도 주식의 투기적 공세를 체질화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 착실히 저축하기보다는 '오늘은 주식, 내일은 파생상품 선물'과 같이 투기를 통한 일확천금을 노리게 된 것이다. 시장의 자유방임상태에서 돈에 광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일찍이 케인즈의 우려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과거 자유무역을 선도한 것이 초국적 산업자본이었으나 21세기의 글로벌화는 초국적 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오늘날의 금융자본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수입을 늘리는 고전적인 대부자본의 수준을 넘어 금융파생상품의 단순한 매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고수익을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든 서슴지 않는 미국 금융자본의 도덕불감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경제의 파탄을 '탐욕과 무책임의 결과'라고 지적한 것은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방치한 미국정부 관료들을 겨냥한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위기의 미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천문학적 수준의 공적자금을 사회복지와 시장경제에 투입하고 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970년대의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케인즈는 죽었다'고 했지만, 그 근본이론은 사라지지 않고 확실하게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케인즈의 우려와 불교경제학의 우려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결코 무관치 않는 것이다.

불교적 자유를 기업경영으로 체험한 어느 기업인이 사랑한 말- '군자는 재(財)를 사랑한다. 그러나 이를 취함에 도(道)가 있다'는 도(道)야 말로 불교경제학 그 자체의 논리인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㉞ 사명서 쓰기

허달의 불교와 코칭

1999년 당시 SK 아카데미의 교수직을 맡고 있던 나는 리더십 강좌를 신설하기 위해 한국리더십센터가 실시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리더십 워크숍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 속 진여(眞如)에 대한 기도'라는 부제를 붙여 기도문 풍(風)의 자기사명서(Personal Mission Statement)라는 것을 하나 써 가졌다. 내가 쉰 일곱 되던 해였으니 늦깎이도 한참 늦깎이였던 셈이다. 한참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읽고 있었던 때여서 무명칠통(無明漆桶)에 대한 진여의 안팎 훈습을 머리에 떠올리고 세운 제목이었다. '원(願)을 세웠으면 이미 이루었다는 진리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하소서' 라고 시작했던 사명서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글자 수정 없이 내 삶의 나침반 노릇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모 회사의 신입사원 20명과 함께 '새내기 리더십과 코칭적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가졌다. 직장인으로 첫 걸음을 내딛는 걸음마 경영인들에게 일과 삶에 대한 소중한 일깨움을 주기 위해 이 칼럼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는 랜디 포시의 '마지막 수업', 아빈저 연구소의 '리더십과 자기 기만' 등을 사명서 쓰기와 함께 짜 넣어 기획했다. 자기사명서를 쓰고 발표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히려 워크숍을 주재한 내가 적지 않은 배움을 얻게 됐다.

자기사명서를 쓰는 방법으로는 코비 박사의 정통적인 방법을 소개했다. 미래의 자신을 상상한 후 역할에 따라 관계자에게 어떤 찬사를 받도록 자신을 가꾸어 나갈지 적고 이로부터 삶의 원칙과 자신의 헌장(憲章)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과외 만능시대라 웬만한 신입사원 지망생들은 취업준비학원 등을 통해 입사시험을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자기사명서 작성은 선행학습 경험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도 듣는 이도 모두 감동하는 멋진 사명서들이 많이 나왔다. 누가 요즘 젊은이들은 이기주의적이며 자기만 아는 되바라진 샤오황띠(小皇帝)라고 폄하하였던가?

누가 요즘 젊은이들을 샤오황띠라고 폄하하였던가?

오(吳) 모 군은 연구직으로 선발된 신입사원이다.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 속에 투영해 보고 매 항에 적절한 이미지 자료까지 링크 삽입해 다음과 같은 자기사명서를 썼다.

하나,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둘, 모든 대륙에 족적을 남기다.
셋, 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 받다.
넷, 건강한 남편, 아빠가 되다.
다섯, 나이 50에 청바지를 입다.
여섯,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다.

이와 같은 사고의 축약은 가상(假想)의 팔순 잔치라는 삶을 축하하는 시점에 도달한 미래의 오 군 자신이 '어떤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다했다는 찬사 받고 싶은가' 하는 자기성찰을 시도함으로써 얻어진 결정이었다. 이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어머니: 다음 생애에서도 네가 내 아들이기를 바란다. 너는 아빠와 같이 든든했으며, 때로는 애인처럼 따뜻한 남자였단다.
아내: 지금까지 나와 같이 항상, 나란히 걸어와줘서 고마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았어.
아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아빠, 존경합니다. 삶을 음미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아빠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장/공장장: 정말 열정적인 직원이었어. 현장을 뛰어다니는 자네는 공장 점퍼가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
친구: 힘이 들 때마다, 너랑 같이 마신 술이 가장 달았다. 그리고 넌 어디에 내 놓아도 자랑스러운 멋진 놈이야.

그러고 보니 첫 직장에 엔지니어로 입사했을 무렵 미래 희망은 거무튀튀한 얼굴에 작업복과 헬멧이 멋지게 어울리는 공장장이 되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화공, 기계, 전기 엔지니어가 아니라 정유공장 엔지니어이다"라고 훈시하던 당시 미국인 공장장의 모습을 잊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머리 속 어디엔가 각인되어 있었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3기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 개강일시 : 2010년 2월 26일 매주 (금)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출강 및 통신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불교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19년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0학년도 제19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1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 (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0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우편 · 팩스 · 메일 접수가능)
부산교육원 (☎051-466-1959) · 제주교육원 (☎064-751-1959)

입학안내 02)733-1959 720-1836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팩스 02)737-5305

존 레비 콜렉션 속 불교 음악 발굴

'존 레비 콜렉션 한국음악선집' 출반한 김선국 저스트 뮤직 대표

얼마 전 한 음반이 출시됐다. '존 레비 콜렉션 한국음악선집'은 출반 되자마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모았다. 음반은 1964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영국인 존 레비가 수집한 한국전통음악 자료들을 복각해 만들어졌다. 이 음반이 많은 사람의 관심이 대상이 된 이유는 외국인이 한국전통음악을 녹음했다는 이유만은 아니었다. 존 레비가 녹음한 음악들은 전통음악의 불모시대였던 1960년대 음악이라는 점과, 그가 만난 음악가들이 당시 한국음악계의 최고 음악가였단 사실, 또 여태껏 잘 알려지지 않았던 민속음악이 대거 수록돼있었던 점이 자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존 레비의 음원들은 1960년대 한국음악의 초상(肖像)으로 한국음악 역사를 증명하는 학술적으로도 귀중한 자료이다. 이런 존 레비를 국악계에 단비 같은 존재로 만든 사람이 있다. 바로 저스트 뮤직 대표인 김선국(42) 프로듀서이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던 2월 10일 김선국 대표를 만나 그간의 앨범 준비 과정 이야기를 들어봤다.



존 레비(John Levy, 1910~1976)는?



존 레비(사진)는 1910년 4월 28일 유태계 영국인 가정에서 네 명의 자녀 중 막내 외아들로 태어났다. 다재다능하면서도 굉장히 영적이었던 그는 유대교와 이슬람(수피교)을 비롯해 힌두교에 심취해 있었다. 그가 1958년~1971년 녹음한 자료들은 대부분 종교음악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가 방문했던 국가의 전통음악 자료들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

존 레비 콜렉션 중에는 한국 인도 부타 스리랑카 대만 홍콩 아이슬란드 등에서 수집한 자료도 있다.

존 레비는 1964년 한국음악 녹음 당시, 귀화 국악인 알란 헤이만과 故 이혜구 박사를 비롯한 문화계 인사 및 국악계 학자와 연주자들을 만나 자문을 얻었으며, 현재 하와이 주립대 이병원 교수의 통역으로 녹음을 진행했다.

그는 50일간 한국에 머무는 동안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궁중음악, 풍류방음악 등을 먼저 녹음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민요와 칠머리당굿의 초감제를, 이어 서울에서 민속음악과 봉원사의 불교음악을 녹음했다.

존 레비는 1974년 겪은 오토바이 사고 후유증으로 1976년 12월 28일 사망하기까지 평생을 음악에 심취했던 인물이었다.

"파리에서 1968년도 발매된 '한국의 불교음반'을 발견한 것이 존 레비와의 첫 만남이었죠. 세상에는 미쳐 다 알려지지 못한 음악선구자들이 많습니다. 존 레비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죠."

김선국 대표가 존 레비에 대한 존재를 안 것은 2008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였다. 여행을 좋아하는 김 대표는 평소 파리를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우연히 들린 어느 한 음반가게에서 존 레비의 '한국의 불교음반'이라는 음반을 발견했다. 존 레비와 김선국 대표의 만남은 그렇게 이뤄졌다. 김 대표는 그날을 "거만한 여행자가 어느 지루한 날 발견한 보물 같은 음반"이라고 표현했다.



'존 레비 콜렉션 한국음악선집' 음반을 출시한 저스트 뮤직 김선국 대표.

'한국의 불교음반'을 발견한 김 대표는 그 때부터 존 레비에 대한 발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존 레비의 발자취를 뒤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앨범이 제작되기 까지는 총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김 대표는 "그 과정은 정말 소주 없이는 말하지 못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정말 힘들었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천성이 '촌놈' 기질이에요. 지기 싫어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뚝심은 있었죠.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자 더욱 이를 악물고 덤볐죠."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존 레비의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과의 계약문제였다. 에딘버러 대학은 존 레비가 남긴 방대한 녹음테이프들과 사진자료, 현장메모와 서류 등을 유족들의 기증에 의해 '존레비콜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계속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거절하는 에딘버러대학 측에 매일같이 전화를 건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보통 인내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에딘버러학교와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죠."

어렵게 대학 측 승인을 얻어 존 레비의 자료들을 열람했을 때 그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존 레비가 녹음한 자료 테이프는 700여 개가 넘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다. 또한 존 레비는 당시 최고급 스위제 녹음기를 사용해 음원상태도 양호했다.

"정말 방대하고 잘 보관돼 있는 자료들에 놀라지 않을 수 가 없었죠. 이번 앨범은 국립국악원과, 국악전문가들을 통해 선별한 곡들을 앨범에 실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아쉽습니다."

김 대표는 존 레비 콜렉션을 10장의 CD로 선별했다. 그 결과 앨범에는 관악영산회상, 영산회상별곡, 불교음악, 궁중음악, 민속음악 등 다양한 한국전통음악이 망라됐다.

"존 레비는 종교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란 것은 사람의 영혼을 매만져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 레비가 녹음한 영산회상, 불교음악들을 통해 한국전통음악의 정취를 느껴 보십시오."

"이 앨범을 통해 대중들이 한국에는 멋 드러진 예인(藝人)들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국악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앨범이 좋은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글=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법구경>을 수화로 말하고 있는 이호신 화백의 '천불도'.

천 가지 부처 나투다

이호신 화백 6년 간 작업
진리의 숲 천불만다라 3월 9일까지
서울 토포하우스 갤러리

이호신 화백이 6년 여에 걸쳐 완성한 천불도를 세상에 선보인다. 그가 그린 천불도에는 천 가지의 모습을 한 부처가 천 가지 표정으로 천 가지 말을 하고 있다.

백인 흑인 황인 등 인종을 망라한 부처, 윙크하는 부처, 안경 쓴 부처, 컴퓨터를 켜고 책을 읽는 부처 등 다양한 부처의 모습이 천불도를 통해 등장한다.

이 화백은 이번 천불도를 "위엄과 권위로 가득한 부처가 아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간적인 부처, 순진무구한 부처, 우리 곁에 가까이 존재하는 '일상의 부처'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천불의 배경은 전통 문양부터 맨해튼의 마천루까지 동서양 고금을 막론하는 도상을 그려 넣었다. 또한 화백은 오방색의 원색을 근간으로, 다채로운 간색의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새로운 천불의 이미지를 창출해 냈다.

특히 이 천불도에서는 부처가 법구경을 수화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화백은 이를 두고 "한 목소리의 절제된 화음이 아닌, 저마다 메시지가 분명한 활기찬 화음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방도"라고 말했다

경주대 문화재학과 정병모 교수는 이호신 화백의 작품에 대해 "그의 선은 세련되지 않고 질박하다. 민화를 보는 듯 문인화를 보는 듯, 소박하지만 품위가 깃들여져 있는 그의 작품은 '일상의 부처'를 구현하기 위한 작가의 섬세한 배려가 돋보이는 작품"이라며 "전통의 보이지 않는 규범을 과감히 깨뜨린 이번 작품은 한국 불교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번 전시에는 천불도 외에도 현존하는 세계의 불상을 통해 불상조각의 변천사를 회화로 재구성한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인도, 중국, 한국, 일본 등 불교국가의 대표 불상을 선별해 진리의 화신으로 표현한 불화도 45점을 함께 전시한다.

이호신 화백의 '진리의 숲 천불만다라' 전은 2월 25일~3월 9일 서울 관훈동 토포하우스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02)734-7555

이은정 기자

비누독을 연화시키는 삼베훼이셜타올



■삼베훼이셜타올 – 각 6,000원

삼베 타월의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 타올은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삼베훼이셜타올 세안법

① 삼베훼이셜타올를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②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③ 삼베샤워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 3~4일이 경과 하면 맑아진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 피지, 각질연화효과가 있어 혈색이 좋아짐에 화장이 잘 받습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특허출허제품임

· 품 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 질 – 햄프사, 죽사
· 용 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 격 – 세안용 (30cm x 28cm)
· 제조원 – 초록살림원 (한국산)

삼베수세미 특징

선조들의 지혜와 멋이 깃든 삼베수세미는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하며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으로 식기세척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뽀드득한 느낌과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박 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됩니다.



■삼베수세미의 효과

* 다이옥신 피해와 수질오염(땅속에서 자연소멸)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 사용 후에는 세탁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합니다

· 품명 – 예고은 삼베 수세미
· 재질 – 햄프사 , 죽사
· 용도 – 식기세척, 과일세척, 욕실청소 등
· 규격 – 30cm x 30cm(소) / 30cmx50cm(대)

위생·항균·항독 삼베 수세미



■삼베수세미올 – 각 4,000원

건포마사지용 삼베샤워타올



■삼베샤워타올 – 각 15,000원

· 품명 – 예고은 삼베 샤워 타올
· 재질 – 햄프사, 죽사
· 용도 – 세안 및 전신목욕, 때밀이, 냉수마찰, 스포츠타월, 등산할 때 ,환자목욕시사용, 건포마사지용
· 규격 – 전신용 (30cm x 130cm)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마사지법

· 여름에는 냉수마찰, 겨울에는 건포,습포 마찰을 권합니다.
· 냉한 체질은 건포, 습포마찰이 좋고 열이 많은 사람은 냉수마찰이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사람은 건포마사지를 무리하게 하지 말고,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냉수마찰을 피합니다.
· 예민한 피부는 문지르는 것에 자극을 받아 피부질환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 상처나 피부질환시 문지르지 말아야합니다.



■건포 마사지의 효과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거칠어질 의심은 버리세요. 비누독이 안 쌓이니 피부가 좋아집니다.
* 죽은 세포나 피지가 매일 제거가 되어 때가 안 낍니다.
* 몸의 때는 비누 때로 인해 생깁니다. 비누 때가 없어지므로 때가 안 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불샵 특별 할인 세트 30,000원
(세트 구매시 배송비 무료 + 추가 할인)

■구성 : 삼베훼이셜타올 + 삼베수세미 + 삼베샤워타올 + 삼베항균비누 3개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돌잔치, 환갑, 칠순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불서광장



화두는 나의 전 재산이다, 오세암의 달밤 | 불국정관 스님 | 부다가야 펴냄 | 1만1000원, 1만2000원

정관 스님이 두 권의 선서(禪書)를 출간했다. 언제나 화두를 밝혀, 허공과 같은 따듯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의 세계를 말하는 <화두는 나의 전 재산이다>와 설악산 오세암을 비롯해 국내외 순례 길에서 느낀 선지식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오세암의 달밤>은 모두 禪의 세계를 말하며,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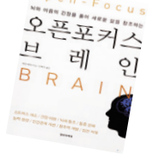


영혼을 위한 휴가 | 알라워커 지음, 박인희 옮김 | 지혜의 나무 펴냄 | 1만2000원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지루해 난~ 기지개만 켜~."

어느 유행가 가사에서도 나오듯 매일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하루는 일탈을 꿈꾸게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몸이 고달픈 것인지, 영혼이 고달픈 것인지 혼돈이 될 때가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단순한 몸이 아닌, 영혼에게 휴가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영혼은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우리 존재의 일부이며, 영혼도 활동에 목말라 한다는 것이다. 책은 명상과 영적 훈련을 통해 자기의 성찰을 꾀하고, 내적 힘을 길러 삶을 풍부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안내서이다.



오픈포커스 브레인 | 레스 페미 지음, 이재석 옮김 | 정신세계사 펴냄 | 1만2000원(오디오CD 포함)

책이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모든 것을 좁은 주의가 아닌 넓은 주의로 바라보라는 것. 뇌파 바이오피드백 분야의 선구자이자, 심리학자인 저자는 뇌파를 연구하던 중 무형에 대한 감각적 상상과 경험이 두뇌의 전 부위에서 알파파의 진폭과 지속시간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뇌파가 알파파 수준으로 안정되면 중추신경계가 편안하게 이완된다고 말한다. 즉, 기분이 새로워지고 맑아지며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책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느긋하게 관찰하고 넓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강조한다.



행복의 조건 | 조지 베일런트 지음, 이시형 감수, 이덕남 옮김 | 프런티어 펴냄 | 1만9000원

美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소가 행복한 삶의 7가지 조건을 말한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 학생들의 삶을 72년간 추적한 연구결과의 답이 나왔다.

인간이 스스로 행복이란 것을 어떻게 통제하는지에 대한 이 조사는, 인간에게서 삶과 행복이 어떠한 조감도를 그리며 어우러져 있는지 생동감 있게 펼쳐낸다.

단순한 통계가 아닌 다큐처럼 가슴을 울리는 이 연구결과는 우리의 인생이 아직은 희망적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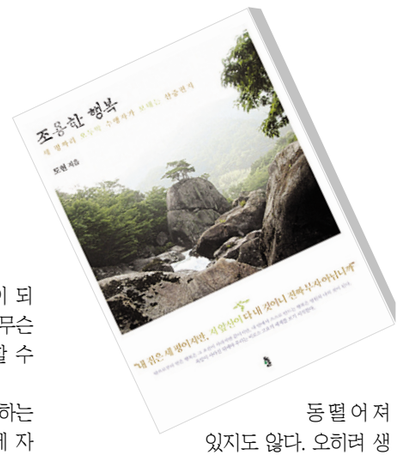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 | 고운기 | 현암사 펴냄 | 1만3800원

2002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를 출간해 <삼국유사> 열풍을 일으켰던 저자가 또 한 번 <삼국유사> 읽기 바람을 불어 일으키기에 나섰다. 책은 <삼국유사>에 비문으로만 남아있던 일연의 일대기를 복원해 총 3부작으로 꾸며졌다.

그 첫 번째인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은 <삼국유사>를 두고 벌어진 한일 두 나라의 숨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삼국유사>가 같은 시대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들려주며, 한 권의 책이 유통된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하는 내용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 조용한 행복

한 오두막 수행자의 수행일기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깨달음의 메시지

어느 새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집안에서 씨름하면서 한 해 계획을 세우는 둥 마는 둥 하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달력은 2월로 넘어가 있다.

하루하루 날짜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산 셈이다.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과 매사에 의욕도 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으니 정신 좀 챙기라고, 도현 스님의 산중편지가 인연이 되어 내게 온 모양이다.

도현 스님의 <조용한 행복>은 25년 동안 선재 가족(도현 스님을 지도법사로 알음알음 만나던 이들이 '선재회'라는 이름으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에게 보낸 편지들로, 일반인들이 읽고 수행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64편의 글을 추려서 만들었다. 이 책은 한 오두막 수행자가 살아온 외길 인생을 정리한 수행일기이자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깨달음의 메시지다.

도현 스님은 하늘 아래 첫 동네로 손꼽히는 화개계곡 의신마을에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에 산다. 흙과 짚을 이용해 직접 지은 세 평짜리 오두막에서 16년째 홀로 수행하고 있다. 15세에 출가해 승려 생활 45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는 삶 대신 선방과 산속을 오가며 수행했고, 부처님의 수행자 시절을 동경하여 5년간 태국에서 위빠사나 수행법을 공부했다. 지금껏 부처님 초기 수행법대로 살고 있다.

도현 스님의 맑고 따뜻한 글들을 읽다 보니 문득 송광사 불일암이 생각난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언제쯤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지만, 불일암 오르는 길에 만났던 대나무 숲의 댓잎 서걱이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다. 티끌 하나 없어보이던 초록의 우거진 숲이며 불일암의 소박한 정경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칠불암의 새벽안개도 떠오른다. 터질 것 같던 내 심장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졌던, 새벽예불의 경건함이라니.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만 봐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았던, 초심자인 내가 기억 저 편에서 떠오른다. 책을 읽노라니 까마득하게 잊혀졌던 기억들이, 낡았지만 그립고 정겨운 흑백사진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스님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스님이 되는지 늘 궁금했던 나 같은 사람이나 무슨 재미로 중노릇하는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친절을 베푼다.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 이 일대사인연의 근원적인 물음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영원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 편안한 마음으로 인연의 섭리를 따르려는,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스님들이다. 먹고사는 일과 세속적인 가치 추구에 조금은 무딘 사람들, 세속적 행복의 필수 조건인 돈, 명예, 사랑, 건강, 여가 등을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곧 도 닦는 스님들이다.

스님들 양식은 쌀로 지은 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잠자던 내 불심을 깨우고, 살면서 이런 저런 세상사가 힘에 부칠 때 한줄기 힘이 될 것이다.

스님의 글은 어렵지 않고,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도 않다. 오히려 생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면의 자신을 챙길 수 있는지 자상하게 알려준다. 수행이라는 것이 어느 먼 산속이나 선방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업에 몰두하면서도 순간순간 자신을 챙길 수 있는 법임을 스님은 강조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남과의 비교우위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니 밖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가르침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조용한 행복
도현 지음 | 뜰 | 1만3000원

강지숙 / 서울 상계동에 산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며,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은 주부다.

'자 축 인…' 십이지가 궁금하다면?

중국 · 일본 십이지도 비교분석 '십이지의 문화사'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어느새 외우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버리는 십이지는 한해가 바뀔 때쯤 돼서야 한 번씩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다. 사람들은 한 해가 시작될 때쯤이면, 그 해가 어느 띠의 해인지 따져보며 한해를 점치거나 그 동물이 상징하는 좋은 의미를 찾아 행복을 기원한다.

이처럼 십이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와 여러 가지 설들로 사람들에게 친숙해져 있다. 하지만 이런 십이지가 얼마나 방대하고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저자는 이미 여러 권의 책을 통해 다양한 한국의 미술에 대해 말해온 전문가이다. 이런 저자가 이번에는 십이지를 제대로 소개하고자 나섰다.

십이지의 기본 개념, 십이지 문자의 기원과 의미, 십이지 동물의 상징성, 한국 십이지 미술의 전개 양상 등 십이지와 관련된 모든 부문에 걸쳐 십이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망라하며 십이지에 대해 말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십이지와의 미술 경향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또 다른지 알아볼 수 있어 십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알 수 있다. 즉, 십이지와 십이지 미술의 총서 격이다.

현실적으로 부장품과 석조 불교미술, 그림 몇 점 외에 유존하는 유물이 적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십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에는 무리 없이 정리돼 있다.

저자는 현재 한국민예미술연구소장이자 한국성미술연구회 부회장으로 있으며, 저서로는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돌베개)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다른세상) <전통문양>(대원사) <사찰 100美100選>(불교신문사) <사찰장식의 善과 美>(다할미디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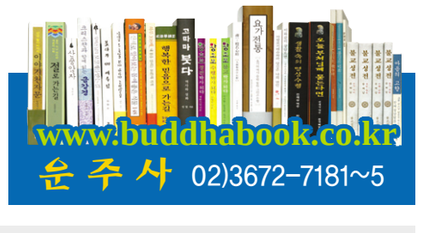
십이지의 문화사|허균 지음|돌베개 펴냄|1만2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진제	매일경제신문
2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청전	휴
3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4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5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마음선원
6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7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8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9	부처님 생애(만화)	김정빈外	솔바람
10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	황경환	풍경소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승부심 없는 옛 선지식들의
禪의 일상, 禪의 누림!
방거사 어록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풍간과 한산과 습득처럼
맷돌 맞듯, 대쪽 맞듯 어울려
이러-히 살아가는 함이여
온 풀잎에 드러난 조사의 뜻
동서봉에 일월등 걸어놓고
무현금 튕기면서 즐겼구려
이러-히 일상에 여여하게
봄노래 잘하는 이들이
방거사 가족이라 할 걸세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중 15권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회 문의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 눈에 볼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피케이봉(4200m)을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팔 카트만두에 영봉스님이 개설하여 운영 중인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한국내 영봉스님 후원회 '히말라야의 꿈'이 공동 진행하는 제2차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성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참 안내
▲일 시 : 2010년 4월 9일 (금) ~ 23일 (15일)
▲코 스 : 인천공항 대한항공 직항 → 카트만두 → 지리 → 시발라야 → 반달 → 마일리 → 불불레 → 베이스캠프 → 피케이봉 정상 → 준베시 → 반달 → 시발라야(의료봉사) → 지리 → 카트만두(시내관광 등) → 인천공항
▲인 원 : 30명 선착순.
▲참 가 비 : 287만원 (비자비 5만원 별도)
▲입금계좌 : 718202-01-142493 (예금주 : 임연태)
▲접수마감 : 4월 2일 (금)
▲사전설명회 : 4월 3일 (토) 오후 4시 (장소-개별공지)
▲문 의 : 임연태 (히말라야의 꿈 사무총장) 017-236-5769
공동 주최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 / 히말라야의 꿈

영봉 (헤종)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그림 · 최문정

원당암 미소굴서 혜암은 마지막 미소를 짓다

찬바람이 멎자 가야산 산자락과 골짜기는 잠시 포근해졌다. 겨울햇살이 숲과 나무를 어루만져 주었다. 혜암은 미소굴에서 나와 가끔 중봉암 터를 응시하며 원당암 경내를 포행했다. 대중들이 고개를 숙이고 합장할 때마다 혜암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암은 보광전에 들어 관세음보살님에게 삼배를 했다. 원당(願堂)에서는 영단을 향해 합장하며 '영가들이여, 생사해탈하시오'라고 빌었다. 이윽고 달마선원에 올라 문을 열자, 좌복에 앉아 있던 보살과 거사들이 놀라면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혜암은 좌복을 이탈하지 말고 참선하라며 손짓으로 만류했다. 그러자 보살과 거사들이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잡았다.

혜암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뭣고'를 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학벌이 뛰어나고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혜암은 그런 재가신도를 신(信)하지 않았다. 간절하게 '이뭣고' 하는 사람을 믿었다. 스님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상좌들 중에서도 선방에 다니는 수좌상좌를 으뜸으로 쳤다. 혜암은 달마선원 2층으로 올라가 전깃불을 켠 뒤 좌복에 앉았다. 문득 언젠가 대중들에게 한 말이 떠올라서였다.

'아직 극락으로 가는 배를 마련도 하지 못했는데, 어찌 그리 즐겁게 깊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자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죄를 받으러 온 사람이 일도 해놓지 않고 어찌 잠을 잡니까. 한밤중이 되어도 냄새나는 송장을 안고 눕지 말라고 했습니다. 독한 화살이 들어와 몸에 중병이 들었는데 잠을 잘 수 있는지, 밤에 잠이 오면 헤아려보십시오. 늙고 병들고 죽는 병에 들었는데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잠을 이겨내야 합니다.'

대중에게 한 법문이기도 하지만 한밤중에도 결코 눕지 않겠다는 것은 자신에게 한 약속이기도 했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대중을 경책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나 다름없었다.

하늘은 쪽빛이었다. 가을하늘보다 더 푸르렀다. 미세한 번뇌마저 사라진 마음자리 같았다. 혜암은 허공과 하나 된 자리로 들어갔다. 허공이 되어 몸도 마음도 사라진 그런 자리였다. 마음이 푸른 하늘을 모두 덮은 듯했다. 혜암은 뒤늦게 달려온 시자에게 말했다.

"염화실에 가서 붓과 벼루를 가져오너라."

미소굴로 돌아온 혜암은 시자더러 먹을 갈게 했다. 먹이 짙어지자 묵향이 미소굴 안에 가득 번졌다. 혜암은 가는 붓을 들어 흰 종이에 써내려갔다. 임종게(臨終偈)였다. 자신의 입적을 예감하고 읊조리는 게송이었다.

我身本非有 心亦無所住
鐵牛含月走 石獅大哮吼
나의 몸은 본래 없는 것이요, 마음 또한 머물 바 없도다.
무쇠소는 달을 물고 달아나고 돌사자는 소리 높여 부르짖도다.

시자는 임종게인 줄 모르고 벼루를 치우고 붓을 물에 빨았다. 혜암의 태도가 너무나 천연덕스러웠으므로 시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혜암의 일과는 늘 한결같았다. 포행은 시자의 부축을 받아 경내에서만 하고, 하루 대부분을 의자에 앉아 '이뭣고'를 했다. 시자가 저녁공양을 하고 들어오자, 문도들에게 늘 당부하던 말을 또 시자에게 했다.

"인과(因果)가 역연하니 참선 잘해라."

원주소임을 보고 있는 각안의 조언을 받아 현철, 현오, 도행, 행자 문광이 혜암을 시봉하고 있었는데, 그들 중 누구도 혜암의 임종을 알아채지 못했다. 시자들은 한밤중이 되면 곤하게 잠에 떨어졌다. 그러나 혜암은 그 시간에도 의자에 앉아 '이뭣고'를 했다.

혜암은 달이 떠오르자, 미소굴을 나와 마당을 천천히 돌았다. 젊은 시절 오대산에서 행선(行禪)을 하며 용맹정진하던 때가 그립기도 했다. 밤이 되면 잠을 쫓기 위해 서대와 적멸보궁 사이의 산길을 밤새 오가며 6달을 보냈던 것이다.

달빛은 원당암 경내를 구석구석 밝히고 있었다. 보광전 마당의 모래는 달빛이 내려앉아 금싸라기처럼 반짝였다. 불이 꺼진 방들만 깊고 푸른 밤 속으로 잠겨들었다. 혜암은 다시 미소굴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의자 팔걸이에 손을 얹은 뒤에도 '이뭣고'를 살폈다. 비록 기력이 다해 의자를 이용하여 장좌불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화두를 들고 있지 않으면 송장이나 다름없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혜암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두타제일인 마하가섭을 만세의 정진불(精進佛)이라고 늘 존경해마지 않았다. 부처님이 "가섭이여, 그대도 이제는 늙었다."고 두타행을 만류하자, "저는 두타행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타행을 하여 뒷날의 수행자들에게 본보기가 된다면 이 또한 즐거운 일입니다."라고 말하여 부처님에게 "착하다, 가섭이여. 그대 생각대로 정진하라."고 허락을 받았던 것이다.

마하가섭이 정진한 여러 가지 두타행 중에서 혜암은 항상 앉아 있을 뿐 눕지 않는 장좌불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일일식, 오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는 오후불식, 주림만 면하게 배를 적시는 소식(小食) 등을 평생 지켰다. 또한 혜암은 마하가섭이 삼림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산중암자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혜암은 의자에 앉은 채 정진해 왔던 산중암자들의 이름을 천천히 중얼거렸다. 그러자 고행 정진했던 산중암자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흘러갔다.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오세암, 운달산 금대, 벽발산 천제굴, 오대산 오대, 태백산 동암, 오대산 사고암, 영축산 극락암, 가야산 중봉암, 지리산 상무주암 문수암 칠불암 도솔암, 희양산 백련암… 혜암은 원당암에 이르러 미소를 지었다.

몰록 하룻밤을 유유자적한 것이 분명했다. 도량석의 목탁소리가 멀어지는가 싶더니 미소굴의 창이 새벽빛으로 변했다. 새들이 다른 날보다 일찍 청아한 소리로 노래했다. 경내를 밟는 대중들의 부지런한 발자국 소리도 어김없이 들렸다.

혜암은 시자의 아침 문안인사를 받은 뒤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미소였다. 금생에 인연 맺은 모든 중생들과 작별하는 그윽한 미소였다. 시자가 미소굴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혜암의 영가가 그 천진한 미소와도 작별한 뒤였다.

세상나이 82세, 법랍 56세. 2001년 12월 31일(음 11월 17일) 10시. 해인사 법당과 산내암자마다 사시마지를 올리는 시각이었다. 조계종 종정 혜암의 원적(圓寂)을 알리는 대종 소리가 가야산 산자락과 골짜기를 타고 장엄하게 울려 퍼졌다.

방장과 주지, 그리고 해인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원당암 미소굴 쪽을 향하여 합장했다. 성철 이래 또 하나의 큰 별이 떨어졌음을 바로 알아차렸던 것이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해인사를 찾은 참배객들만 영문을 모른 채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경내를 서성거릴 뿐이었다. 법구는 곧 해인사 청화당으로 옮겨졌다. 이승의 헌옷을 벗고 내생의 새옷으로 갈아입은 혜암은 '曹溪宗正 慧菴堂 性觀大宗師之覺靈(조계종정 혜암당 성관대종사지 각령)'이라 하여 위패에 봉안되었다.

상좌들이 가깝고 먼 곳에서 누구보다 먼저 청화당으로 왔다. 문도대표 성법과 수좌상좌 원각이 자리를 지켰으며 각안이 사형사제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뒤이어 무영 무상 무일 여연 현조 도봉 대우 대운 정견 도각 지공 묵조 적묵 대오 능도 능혜 종오 법인 일화 도안 지도 정인 진각 성각 정안 중도 명철 돈오 원오 성오 석교 경락 경조 법수 진고 무진 보안 보명 법철 만각 은산 지각 지원 은광 각경 정경 원경 등이 달려왔다.

그날, 장례는 종단장(宗團葬)으로 치르기로 정했고 장의위원회 명단도 의견을 모아 지체 없이 천명했다. 증명은 서옹 서암 월하, 호상(護喪)은 해인총림 방장 법전, 장의위원장은 총무원장 정대, 집행위원장은 해인사 주지 세민이 맡았다.

궁현당으로 분향소가 마련되고 시간이 지나자, 비로소 전국에서 문상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해인사에서 안거를 났던 젊은 스님들은 분향을 하고 나서는 저마다 혜암의 상당법어를 떠올리며 추모했다.

'중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몸의 안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고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만 내일도 그만 금년도 이대로 명년도 그대로 허송세월하다가 허망하게 죽을 때에 후회한들 무엇 하겠습니까.

不行芳草路하면 難至花落村이로다.
꽃다운 풀밭 길을 걷지 않으면 꽃 지는 마을에 이르기 어려우리.'

'어떤 것을 돈오(頓悟)라고 합니까.

돈(頓)이란 단박에 망념을 없앰이요, 오(悟)란 얻은 바 없음을 깨치는 것입니다.

入此門內莫存知解하라. 但莫憎愛洞然明白하리라.
이 문안에 들어와서는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분명히 깨치리라.

數片白雲籠古寺하고 深谷綠水繞靑山이로다.
몇 조각 흰 구름은 옛 절에 떠 있는데 깊은 골짜기 푸른 물은 청산을 둘러 흐르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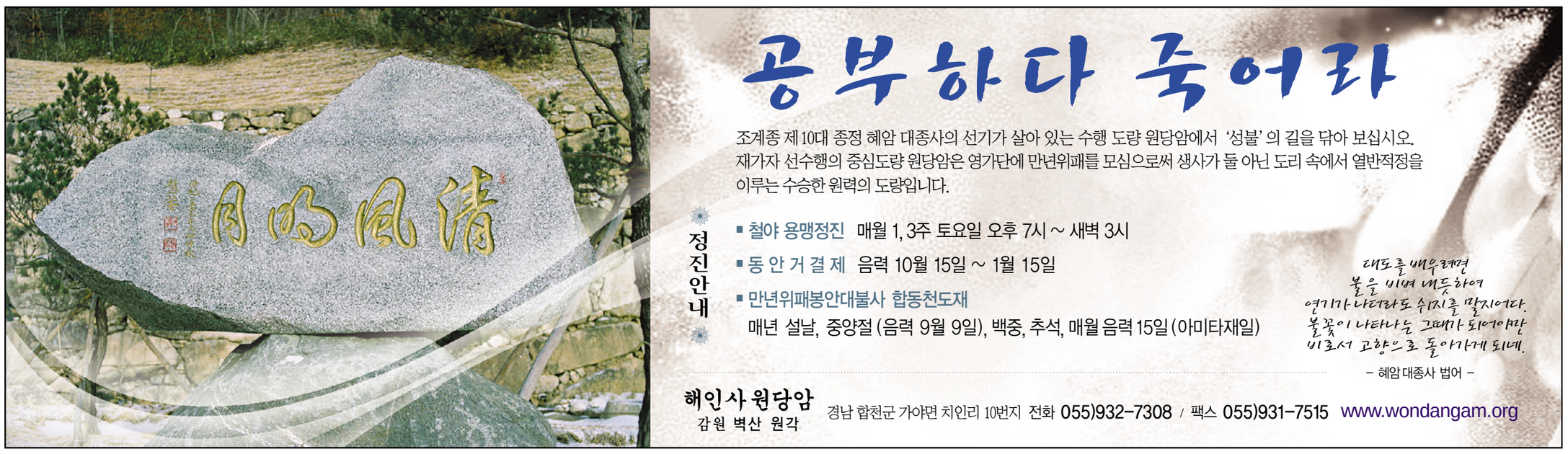
'출세대장부들여, 구경각의 해탈을 위하여 활안(活眼)으로 성찰하라.

學道如鑽火하야 逢煙切莫休로다.
直待金星現하야 歸家始到頭로다.
대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벼대듯 연기가 나도록 쉬지를 말라.
불꽃이 나타나는 때가 돼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리.'

혜암 문도들은 장례기간을 7일로 정했다. 그리고 영결식과 다비식을 2002년 1월 6일로 잡았다. 조문기간 내내 문상객들의 차량은 산문 안팎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가야산을 지나가는 바람과 홍류동을 흐르는 계곡물이 구슬픈 소리를 냈다. 분향소에서는 대중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아침저녁으로 끊이지 않았고, 보광당에서는 송월과 구참스님들이 깃발 모양을 한 오색의 번(幡)과 만장(輓章)에 글을 쓰느라고 밤을 새웠다. 나무대성인로왕보살(南無大聖引露王菩薩)이라고 쓴 번은 맨 앞에 설 것이고, 그 뒤를 화려한 만장들이 따를 터였다. 만장의 글들 중에서 혜암의 진면목을 담박하게 드러낸 조시가 눈에 띄었다. 구산의 법제자 근일이 문상을 하고 부석사로 돌아가면서 놓고 간 조시였다.

장좌불와 오십 년 하시니
보살행과 수행함이 중생들의 스승이네
혜암스님이시여, 무심히 조계봉에 오르셨으니
성관고불이시여, 본래자리로 돌아오소서.
長坐不臥五十年 菩薩修行爲衆先
慧菴無心曹溪峰 性觀古佛本來還

〈계속〉





Dr. 황의 바른 자세 바른 생활 ❻골프와 골반 불균형

좋은 운동도 부상의 원인이 된다

골프하면 부유층의 전유물이라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골프협회에서 밝히는 골프 인구는 대략 250만 명(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으로 골프는 생활 스포츠가 돼 가고 있습니다.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골프 연습장을 등록했다고 하더군요. 그 분은 허리디스크 환자로 제가 볼 때는 골프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을 건네니 지인은 "그렇지 않아도 강사한테 말했더니 골프를 하면 틀어진 뼈가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골프 강사가 몰라서 그랬다면 강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 그랬다면 고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국 이 분은 4달 후 골프를 그만 두고 저의 환자가 됐습니다.

골프는 기본적으로 한 쪽으로 스윙을 하는 불균형한 운동 종목에 속합니다. 야구는 양손을 다 쓰는 스위치 타자도 존재하지만, 골프에는 이렇게 양쪽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합니다.

또 골프는 하나의 자세를 완성하기 위해 몇 년간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이는 스윙 자세의 변화가 스윙과 스코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정한 방향으로의 끊임없는 연습과 반복적인 근육 관절의 사용은 체형 불균형을 유발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골프는 한쪽 방향으로의 순간적이고 강력한 힘을 요구합니다. 타이거 우즈는 다운스윙을 통해 임팩트의 순간 가해지는 클럽 헤드의 스피드가 206km/hrs 에 육박하며, 일반인들도 150km/hrs를 넘나듭니다. 이러한 스피드에도 정확한 타격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몸의 균형과 몸의 중심 등 생체 역학적인 역할이 요구 됩니다.

골프 스윙에 있어서 골반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도한 스윙에서도 견딜 수 있는 좌우균형 상태를 유지해야만 완벽한 스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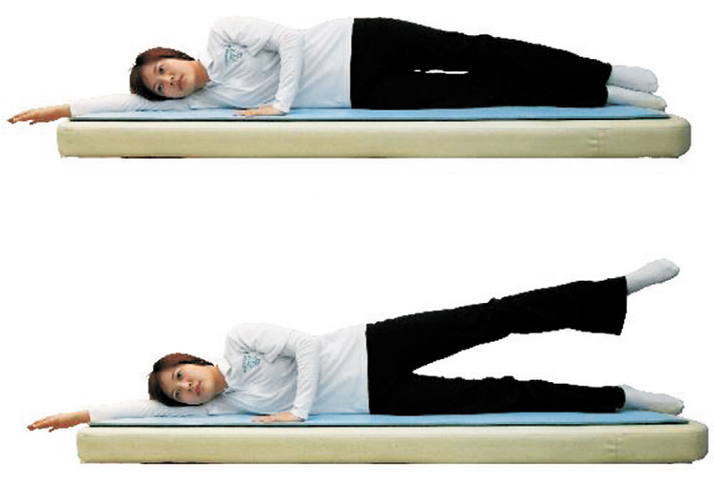
골반의 구조는 대부분 좌우 · 전후 · 수평 · 수직 상태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절로 연결돼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평상시 자신의 골반과 척추의 비틀림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상태에서 과도한 스윙은 당연히 골반을 비틀어지게 하는 동시에 척추를 휘어지게 만들어 자연스럽게 불균형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프로 선수들의 완벽한 스윙의 모습은 과연 스윙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진 것일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프로 선수들은 체계적인 훈련과 동시에 반복적인 교정 스윙으로 자연적으로 불균형해지는 골반의 비틀림을 주기적으로 제자리로 교정한다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명 프로 선수들은 정기적인 골반 교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자각적으로 자신의 골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치마를 입고 걸으면 한쪽이 돌아가 있다.
2. 바지 사이즈를 허리에 맞추면 엉덩이가 들어가지 않는다.
3. 허리의 잘록하게 들어간 위치가 좌우 비대칭이다.
4. 딱딱한 바닥에 누우면 꼬리뼈가 닿아 아프다.
5. 똑바로 누워, 힘을 빼면 양 발끝이 향한 각도의 좌우가 다르다.
6. 의자에 앉을 때 특정한 쪽으로 다리를 꼬면 편하다.
7. 걸을 때마다 무언가 어긋난 느낌이 든다.
8. 신발 밑바닥의 어느 한쪽만 유난히 닳는다.
9. 오리 궁둥이다.
10. 배가 유난히 나와 보인다.

PnP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골반 불균형에 도움이 되는 '사이드 라잉 펄빅 라이즈(side lying pelvic raise:한쪽으로 누워 골반 올리기)' 라는 스트레칭입니다. 1. 팔을 쭉 핀 채로 옆으로 곧게 눕는다. 2. 겹쳐진 두 다리 중 위쪽 다리를 편 상태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한다. <반대도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황현수의

불교와 무술이야기 ❻

부처님은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인도의 불교가 그 고유성을 버리며 중국의 도교와 유교에 접합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인도에는 카스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카스트(Caste)란 제도(制度)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카스트제도'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인도 사회의 신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카스트(caste)라는 어휘는, 17세기 경 포루투칼인이 인도에 들어와 그들의 시각으로 인도를 판단하고, 그들의 언어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들은 인도 전통 사회의 기본 단위가 균질적이고 혈통적인 것으로 판단했으며, 그에 해당하는 '가문 · 종족' 등의 의미인 포루투칼어 '까스따'(casta)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스트의 구성은 네 가지 범주로서 브라만(베다의 정수를 가진 무한의 힘), 크샤트리아(권력), 바이샤(인민), 수드라(하층민)가 있고, 이 계급에 끼지도 못하는 불가촉민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계층이 다섯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 사회가 제사를 통한 경제 중심이다 보니 브라만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제사 행위에 있어서 금기시 되는 잡일을 맡은 사람이 가장 낮은 수드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수드라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불가촉민이 그들입니다.

인도사람들은 이 네 계층이 태초의 인간에서 나왔다는 신화를 믿습니다. 태초에 스스로 태어난 '푸루샤'라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제사지냈는데, 그의 머리를 제사 지내 브라만을, 팔을 제사 지내 크샤트리아를, 배를 제사 지내 바이샤를, 발을 제사 지내 수드라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 신화를 배경으로 바라문족은 머리에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족은 옆구리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바이샤는 여자의 성기에서, 수드라는 발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신화를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즉 사람들이 형이상학적인 철학을 궁금해 하기에 창조주라는 신화를 만들어 이를 믿고 따르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도 타지마할 궁전 전경

카스트에서 말하는 계급은 신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바꿀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이미 각자의 계급이 정해지는데 이것을 업(karma)이라 합니다.

이러한 카스트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격게 됩니다. 기원전후 외부에서 들어온 통치자들도 카스트를 받아들여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정착하면서 이 계급의 수가 급격히 늘게 되었고, 로마와의 무역으로 인하여 바이샤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굽타왕조의 몰락으로 도시 경제가 몰락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드라 계급이 상승해 계급의 구별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이후 도시화에 따른 기술과 직업의 분화로 수드라와 불가촉민의 직업 이동이 자주 있었지만 대부분 농업과 상업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카스트 체제 내에서만 위치 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 구조의 혁명적 전환은 불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부처님의 생애>를 읽었는데, 그 책에 부처님의 공덕을 설명하면서 태에 들었을 때 일반 중생은 머리가 아래로 향해 거꾸로 있고, 부처님만이 바르게 서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저자를 만나서 "부처님만이 바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중생도 바르게 있고, 임신 8개월 이후부터 출산을 위해 머리가 밑으로 향합니다. 만약 다리가 먼저 나오면 그것을 난산이라 하지요"라고 말하니, 그분은 "어? 그래요? 다시 알아봐야겠네요…"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위에서 밝힌 카스트의 출생신화에 따라 부처님은 왕족이었기에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불교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되는 것을 왜 모를까요? 근본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당시 바라문들의 사상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처님조차 옆구리에서 나오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국순려의

괄사이야기 ❻

올바른 일상의 리듬을 갖자

변비(constipation)

변비란 3일에 1회도 못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 변이 굵고 건조하며 변을 보고 나서도 불쾌감을 수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2~3일에 1회, 또는 5~7일에 1회 통변하여도 속이 편하고 불쾌감이 없으면 변비라고 하지 않는다. 변비의 원인으로는 긴장감퇴성 변비, 긴장항진성 변비, 환경의 변화, 식사 변화, 약물 부작용 등을 들 수 있다.

⑴괄사법

<전신 괄사>

매주 3회 이상 90~120분 전신괄사한다.

<부분 괄사>

1. 등판전체를 괄사한다.
2. 복부를 괄사하고 배꼽 주위를 튕겨준다.
3. 다리 슬개골 바깥쪽 아래 부위를 튕긴다.
4. 엄지발가락에서 발뒤꿈치까지 세게 밀며 문지른다.
5.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를 튕겨 준다.

⑵괄사판

1. 학여울, 2. 해오름, 3. 보라매소, 4. 보라매대, 5.보라매특대

⑶유의 사항

1. 괄사 후 50℃ 내외 따뜻한 물 1컵(120ml 이상)을 꼭 마신다.



변비 해소에 좋은 괄사법.

2. 대변을 보고 싶을 때 즉시 용변을 봐야 한다.
3. 좌변기에 10분 이상 앉아 있지 않아야 한다. (치질이 생길 수 있음)

불면증(ingomania)

수면이란 의식작용이 전반적으로 정지되고 신체의 기능 역시 부분적으로 정지되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수면 형태로는 잠이 막 들려고 할 때의 입면기, 가벼운 수면기, 깊은 수면기(숙면), 렘 수면기(REM - Rapid eye movement : 눈을 빨리 움직이고 자주 깜박이는 수면) 4가지 형태로 나뉜다. REM 수면이란 뇌파가 빠르고 몸 안의 전압이 낮으며 심장 박동수나 호흡과 같은 자율신경성 활동이 불규칙적인 수면시간이다. 잠자다가 쥐가 나서 깼다든지, 가위눌려 일어났다는 경우는 REM 수면시간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깊은 수면에서 REM 수면까지를 수면 주기라 하며 하루에 4~5회 되풀이 된다.

수면은 산소 소비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수면의 질과 양이 좋아지고 길어진다. 즉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잠을 잘 잔다는 말이다.

깊은 잠을 자는 일은 뇌신경 세포의 활동이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하게 된다. 불면증은 신장과 간을 건강하도록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사고와 과로를 피하면 거뜬히 극복할 수 있다.

⑴괄사법

<전신괄사>

주 3회 이상 120분씩 전신괄사를 하면 불면증은 거의 생기지 않는다.

<부분괄사>

1. 머리 정수리 부위를 괄사한 뒤 튕긴다.
2. 뒷목 목덜미 부위를 전체 꼼꼼하게 괄사한다.
3. 척추와 등판 전체를 괄사한다.
4. 양 어깨 전체를 괄사한다.
5. 무릎 슬개골 아래 바깥쪽 부위를 괄사하며 튕긴다.
6.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 사이 발등 위를 괄사한다.
7. 열손가락 끝과 열 발가락 끝을 튕긴다.

⑵괄사판

1. 학여울, 2. 달오름, 3. 해오름, 4. 미모사, 5. 보라매소, 6. 보라매대, 7. 보라매특대

⑶유의사항

불면증일 때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을 자는 것은 근원적인 불면 회복이 아니다. 건강능력이 향상되어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야한다. (02)557-1628 ~9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스님이 쓰는 역학과 최면 영가와 명리를 실전위주로 확실한 비법을 개인지도함. 주지스님 직강
역학 : 귀신 빼는 명리(우주물상을 연상법으로사주와 영가를 배움)
최면 : 전생요법, 퇴마, 빙의, 귀신든 병
스님 : 염불, 사물, 사찰 운영법 지도
부산051)333-3258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역학특별지도
1. 실천2주, 특수속성반
2. 귀신뽑는 비법
3. 내화역수, 내정법, 고급 포태법
4. 특수비법 역학, 택일, 성명학, 궁합
5. 신내림, 신병, 상담한영
010-2484-5001 스님에 한해
031)943-8094 특별 할인혜택
출장지도 가능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음 • 범패
실전위주 학인 모집
각종 사찰행사 전문
일행정사 (서울, 경기)
010-6569-1010

역학 속성지도 30년
자격, 교수 법납
역학 10년이상 기타
인연보살, 종단 최고어른
20~30억
재력가능 회수 확실
02)907-5858
010-2693-7712

원 정 맥 연 구 소
• 분원모집합니다 • 전국어디든 가능함.
• 사찰매점도 가능함 • 중수와 사주에 능한 분 환영
• 타 종교인도 가능함(원하시는대로 금문양 직접 그려드려요)
원정맥연구소에서 만드는 가장 양명한 가사오는 도자기 작품으로
1.갤러리형 고급카페 2.갤러리형 저렴한식당 3.갤러리형 포교당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원정맥바꾸기를 겸하고
옆에는 갤러리를 운영하실 분
홈피 : 원정사. kr | 무료기치료.kr
상담 : 010-5790-2351 원정합장

역학 동영상 CD 판매
역학! 집에서 혼자
학습 할 수 있습니다
www.saju.or.kr
010-4800-2378

역학 작명학 수강생 모집
기초에서 응용까지
• 개인 및 단체 강의
• 용신(격국) 중점 강의
• 저렴한 비용
유심명리학원
011-711-5072

동양 철학 배우실 분
명리학 성명학 주역 (육효)
배울 곳 : 경북 구미
숙식제공 가능
054)972-9872
010-6208-5555
원장스님 직접 강의

수행기도 · 영험도량
잠시, 한,두달 쉬실 분
지장경 대학 공부 장수
참나 깨치실 분 천도
1,3주 금,토,일 실참지도
031)674-7188 백마사
033)441-0664 장안사

미국에서
부전 수행 할
스님 모십니다
숙식 가능한
여직원 구함
042)282-9270

기도스님
(조계종 비구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836-5066

대구 팔공산
비구니 사찰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825-3181

공양주 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전남 여수시 소재)
*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061)644-1244
010-4442-6789

비구니 스님이 계신
사찰로써 불심과 신심이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중반 환영, 숙식 제공)
울산시 북구 연지암
052)298-9911
010-4030-8188

공양주 보살,
여자 종무원,
행자(男) 모십니다
▷경기도 평택
031)682-3169

단 1회 시술로 통증을 멈추는 기적의 수기요법 특별 전수
목디스크, 40견, 50견,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척추,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좌골신경통 등 목과 허리의 모든 병증 치유기법.
침, 뜸, 부항이나 경락마사지, 지압요법 등이 아님.
전 세계 유일한 기법으로 2009년 12월 특허청에 특허로 등록된 특별 수기공요법 (전 세계 20개국 특허 출원중임)
20여년의 많은 임상중 단 한번의 재발도 없었으며, 전 세계 어디서나 환영 받을 수 있는 기법으로 약간명만 면담 후 1:1 특별 전수함 (국내외 활동 가능한 분)
◇ 전수자 중에서 특별 수제자 선발 ◇
개인별 맞춤 전수 (1:1 교육 후 무료 상시 재교육)
◎ 전수금 : 오백만원
◎ 특 전 : 지부 자격부여
◎ 특별 수제자 특전 : 풍수, 명리, 수맥, 최면, 기공, 침, 뜸, 약리, 대체요법 등 각종 병증별 치유기법 무료 전수함.
◎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침구사, 대체요법사, 스님 등 종교인 환영
(사)세계대체요법학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0-8호 5층
문의 : 전화 02)529-1390 / 010-6739-6426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 위치 : 백선사 절 (전철1호선 부천역 소명사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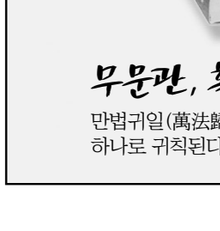
칭기스칸 대학교
한국캠퍼스 한국불교승가대학 세계화교육
chinggis khaan university
• 정규과정 : 2년제, 4년제 편입학 가능 • 전문과정 : 1년제입학 종교학 (불교문화학과)
• 강 사 진 : 석사, 박사 12명, 특강
• 과 목 : 종교학,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특 전 : 전세계 대학 편입학 인정, 학비저렴, 시간여유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강의실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불교문화대학원
학무처 :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 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공양주 : 2명 (숙식제공)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 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 저녁에 깨우치는 나경 사용법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자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근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뉴욕, 감포 4월 동시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주1회 공부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모집 : ☎ 010-2488-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선방일기


감산대사 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감산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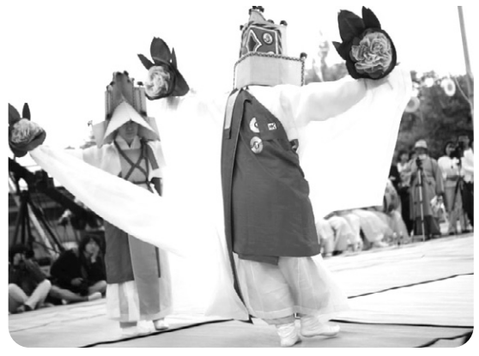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현대불교@장터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이 「현불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샵」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전통범음범패(바라, 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1년)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청, 상단 • 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김법운 스님, 이현진 스님
2.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강의장소 : 경북교구 종무원 설법전
6.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7.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8. 접수기간 : 상시모집
9.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종무원 범음,범패 교육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1억 7천

- 위치 : 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34평
- 부지 : 240평
- 가액 : 1억 8천

- 위치 : 부산
- 법당 : 25평
- 요사 : 24평
- 부지 : 50평
- 가액 : 4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 5천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3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알선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 근교 30분 거리
- 총평수 110,000㎡(3만3천평)
- 종교용지 1,530평+밭 550평+임야
- 법당 15평, 요사채 20+20평
- 120년 역사 (기도도량 최고)
- 정남향 좌우 청룡백호 현무의 자태 완벽한 산세
- 양도가 : 4억원

부산 바닷가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 약 2,700평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 9억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가액 조정 안됨)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삼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총 50평
- 3층건물 중 2층 전체
- 방 2, 주방, 욕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비, 즉시법회

055)328-2509
019-549-3521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3억 7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즉시 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포교원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흥동 천안역전 앞
- 평수 50평, 현재 법회중
- 4층 건물 중 3층
- 법당, 상담실 및 실방, 목욕탕,거실, 방2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일체 시설비 1천만원 ,●몸만 오시면 됨

041)567-0391

사 찰 안 내

- 위치 : 여수 돌산
- 땅 250평 ●건물 대웅전 1채 산신각 2층 1채, 요사채 1채
- 사찰 앞 큰 저수지
- 가액 : 2억 3천만원

011-9765-53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 총 1309평 중 종교용지 220여평
- 법당 1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42평
- 부곡온천 차로 7분거리 논리보건소 인근
- 가액 : 1억 5천만원

010-8675-408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거제시(위치 최상)
- 평수: 약 400평
- 요사채 방 4칸 , 창고1 대웅전, 산신, 용왕, 칠성
- 주차시설양호
- 가액: 평당 93만원(가격절충)
- 주지스님 건강 상 양도

010-2954-1288

암 자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별채 8평,
- 부지 400평(등기 150평)
- 가액: 9천 8백만원

010-6695-0115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법당 30평
- 전체평수 대지 500평
- 요사채 2동
- 가액: 2억 8천만원
- 주차장 확보

010-9798-1091
영주불사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시 태화동 소재
- 평수 45평
- 시설 완벽
- 총가액: 3천 700만원

011-542-0982
010-6278-6508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지하철 1분거리
- 3층, 총 32평 ● 방1, 공양간 1,법당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재래시장 버스 종점,
- 위치는 최상급. 몸만 오실분

010-2204-8375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남구 대연동 (최요지) 전철 3분거리, 시장 2분거리
- 부지 130평, 건평 150평
- 1,2,3층 ● 주차 6~7대 가능
- 1층 50평, 大방1, 큰거실1
- 2층 대웅전, 방1
- 3층 천불전, 주지실, 방2,다실별도1
- 2,3층 베란다 사용가능
- 가액: 12억

017-572-3714
011-419-3714
051)556-9530 (야간)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막리동
- 평수 : 31평, 4층건물 중 3층
- 시설 : 원목단, 동불, 삼존불, 공양간, 방2, 시설완벽, 위치 최고 요지,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9-9382-05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대지 : 8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채, 방4개
- 현재 임도,삼림욕을 관광지 목적으로 공사중. 약수있음.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 최고 명당.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사찰및팬션 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 순흥면
- 약1천여평. 건축허가 유
- 토목공사. 수도전기 완료.
- 소수선원 인근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697-2290

포교원안내

- 서울 청량리역 부근
- 요사채1동(방2, 거실, 욕실, 부엌) 법당(30평), 다락방, 주지실, 부엌, 마당(30평)
- 삼존불, 지장단, 1자원불 500불
- 보증금: 1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5500만원 ●교통 편리

010-5040-010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부지 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암자(토굴)안내

- 위치: 경남 거제시
- 대지 344㎡(104평)
- 아궁이, 황토방
- 단독주택 2채
- 방3, 공양간1, 임법당
- 가액: 1억 8천 5백만원

055)632-3840

사 찰 안 내

- 위치: 안성시 고삼 저수지 옆
- 한옥건물
- 땅 192평
- 사찰이나 전원주택으로 양도함
- 현재 사찰 운영중

010-2248-259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북구 구포 3동
- 반지하 포함 4층건물 전체
- 주차시설 좋음
- 큰법당 35평, 지장전 30평, 공양간 및 방 35평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 가액: 2억 3천만원(대출 5천 포함)

010-9665-0209
010-3848-16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마트 옆
- 평수: 140평
- 가액: 전세 1억 월 170만원 시설비 있음
- 모든 시설 완벽하며,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8766-0377

대구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중심 반월당
- 평수: 대지 100평, 건물 약 110평
- 1층 종무소 2,3층 법당
- 각종 최고급 시설, 저렴하게 드림
- 각종 집기시설 일체 포함
- 사찰 증건 관계로 양도
- 전체 6500만원(보증금 +시설비) 상담 후 조절

010-6780-6271

사 찰 (급) 안 내

- 위치: 울산시울주군 청량면 율리 751번지
- 대지 250평, 법당, 45평
- 요사채: 20평
- 이층(산신각)
- 가액: 4억 (현 시세 평당 200만원)
- 상담 후 조절 가능
- 전원주택별장으로 사용가능

010-9100-1326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 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사찰 전자제품 포함, 조경완벽)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점충가능),(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참숯가마(급)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 평수 1208평 ● 건물 : 대지 392평
- 시설: 참 숯가마 7개, 폐수처리장(1억 3천 가설비 들었음)
- 지하수 350m이상에서 매일 100톤의양
- 식당 90평, 목욕탕 95평, ●기본숙소 방 5개, 120명수용가능
- 가액: 현 시세 22억을 18억 (모든시설포함) 급 양도. 절충가능,
- 현재 영업중이며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9735-3477
010-9418-59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망미역 1번출구 근처 2층
- 법당 50평 ● 관음보살,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2칸, 다용도실, 창고, 다락
- 가액: 전세 15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740-3754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5억

011-9888-1563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禪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경허 | 용성 | 학명 | 만공
한암 | 만암 | 만해 | 효봉
혜암 | 동산 | 경봉 | 고암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오직 염불에 몰두하여 주야로 6만 번을 했다”

<51> 명대(明代)사대고승 문하의 거사들

양명학의 흥기와 함께 쇠락해져 가던 명대(明代)의 불교는 다시 중흥기를 맞았다. 이러한 중흥은 이른바 ‘명대 사대고승’이라고 불리는 운서주굉(雲棲袾宏; 1532~1612), 자백진가(紫柏眞可; 1543~1603), 감산덕청(憨山德淸; 1546~1623), 우익지욱(藕益智旭; 1599~1655)의 다양한 교화에서 비롯됐다. 사대고승은 사상적으로 모두 ‘선정일치(禪淨一致)’를 제창했다. 또, 각 선사의 문하에서는 상당수의 거사가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운서주굉 선사의 호는 연지(蓮池)이다. 선사는 천하를 편력했고 경사(京師)에 들어와 화엄 종장인 편융(遍融)과 선문의 소암(笑岩) 등으로부터 사사를 받아 화엄과 선에 깊이 통달했다. 운서주굉 선사는 당시 양명학 태주학파의 영향인 ‘광선(狂禪)’의 유행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선정겸수(禪淨兼修)’를 주장했다. 특히 선사는 “선적인 깨달음은 단지 ‘공안(公案)’의 모방품일 뿐으로 참다운 ‘증오(證悟)’가 아니며, 여전히 ‘제불(諸佛)’, 아라한(阿羅漢) 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염불’을 통해서만이 임종 후 아미타불의 접인으로 왕생극락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말법(末法)의 요진(要津)”이라 제창했다.(<답정토사십팔문(答淨土四十八問)>)

자백진가 선사는 자가 달관(達觀)으로 17세에 호구(虎丘) 운암사(雲岩寺)에서 출가해 유식, 화엄 등의 교학을 배웠다. 선사는 후에 오대산에서 선문의 한 노숙(老宿)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선종의 부흥에 전념할 결심을 했다. 자백진가 선사는 평생 개당설법(開堂說法)을 하지 않고서 제방의 존숙(尊宿)들과 참문했기에 사승관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선종의 부흥과 관련해 선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활동한 거사들은 원굉도(袁宏道), 초굉(焦竑), 구여직(瞿汝稷) 등 모두 양명학 태주학파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다. 특히 구여직 거사는 선사와 함께 경산(徑山)에서 대장경의 판각(萬曆藏)을 했으며, 이후 만력(萬曆) 30년(1602)에 <지월록(指月錄)>을 편찬했다. ‘지월’은 ‘손가락[指]’은 ‘언교(言敎)’를 의미하고, ‘달[月]’은 ‘불법’을 비유해 <능가경>과 <대지도론> 등에 나타나는 말로서, 형식적인 가르침에 얽매이지 말고 참다운 불법의 진제를 깨달으라는 의미로 선종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구여직 거사의 <지월록>의 편찬은 바로 진가 선사의 선종을 다시 부흥시키려는 염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선사는 황태자 책봉과 관련되어 환관 승기(乘機)의 무고로 인한 ‘요서(妖書)’ 사건으로 투옥돼 입적(1603)했다. 그보다 한 해전에 탁오 이지 거사가 옥중에서 자살(1602)했고, 후에 원굉도 거사가 병으로 입적(1610)하면서 이른바 ‘광선’의 기풍은 점차 사라졌다. 이로 인해 선사의 선종 부흥은 요원해졌지만, 구여직 거사의 <지월록>은 오히려 더욱 광범위하게 읽히면서 널리 유행해 전해 내려온다.

감산덕청 선사는 자백진가 선사와 매우 친밀한 사이로 함께 ‘만력장(萬曆藏; 嘉興藏)’을 판각했다. 선사의 사상은 유식, 화엄 등에도 통달했지만, 그 중심은 ‘선정일치’에 있었다. 진가 선사가 참선과 정심(淨心)을 통해 염불로 귀결시켰다면, 덕청 선사는 반대로 먼저 염불과 심정(心淨)을 통해 참선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천적인 면에서는 진가 선사가 참선을 중시했지만 덕청 선사는 오히려 염불에 치우치는 성향을 보였다. 덕청 선사는 특히 대혜종고 선사의 간화선과 연명연수 선사의 염불정토를 긴밀하게 결합시켜 직접적으로 ‘아미타불’을 핵심적인 화두로 삼았다. 이렇게 선정일치를 제창했지만, 결국은 ‘염불정토’로 귀결시켰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덕청 선사는 만년에 “오직 염불에 몰두하여 주야로 6만 번을 했다”(<영봉종론(靈峰宗論)>권5)고 할 정도로 염불에 몰입했다.

덕청 선사의 문하에도 상당수의 거사가 활동했다.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선사의 <감산노인몽유집> 권14~18의 <서문(書問)>에는 서신을 통해 왕래한 관료사대부가 90여 명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친왕(親王), 태재(太宰), 중승(中丞), 시경(侍卿) 등 최고위 관료들이 포함돼 있다. 선사 문하의 거사들 가운데 비교적 유명한 이들이 고원(顧源), 주로(朱鷺), 문자여(聞子與), 왕도곤(汪道昆) 등이다. 이들은 모두 <거사전>에 그 전기가 실려 있다. 이외에 선사의 문집에 나타나는 거사들을 더한다면 그 수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이들 거사들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염불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따라서 선사가 전적으로 염불의 정토법문으로 이들을 지도했음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우익지욱 선사는 호가 ‘팔불도인(八不道人)’으로 강소(江蘇)의 오현(吳縣)사람이다. 어려서 유학을 익혀 불교를 비판하는 <벽불론(闢佛論)>을 찬술하기도 했지만, 후에 운서주굉 선사의 <자지록(自知錄)>과 <죽창수필(竹窓隨筆)>을 읽고서 불교로 돌아섰다. 선사는 이른바 사대고승의 마지막 선사로서 앞의 세 선사들의 사상과 행적을 본보기로 삼아서 전체적인 불교, 즉 선(禪), 교(敎), 성(性), 상(相)의 각 종(宗)을 조화시키고, 정토로 귀결시켰다. 청대(淸代)에 중각된 <영봉종론(靈峰宗論)>에서는 선사의 사상적 특질을 “제종을 융회(融會)했으며, 정토로 귀극(歸極)했음”(권10)을 명확하게 밝혔다. 특히 선사는 운서주굉 선사를 존중해 상당히 유사한 정토사상을 전개했고, 주굉 선사에 대해 “정토를 극력으로 주장하고, 계율과 교학, 선을 찬탄했다. 또 구두삼매(口頭三昧)에 대해서는 통절하게 비판했으니, 참다운 구세보살”(권5)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지욱 선사 문하에도 역시 적지 않은 거사가 활동했다. <거사전> 권49~50에는 선사의 재가제자로 추정되는 여러 거사의 전기가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유명한 거사는 정문제(程文濟)와 전겸(錢謙) 등이다. 특히 정문제 거사는 항상 <화엄경>과 <발보리심론>을 읽었고, 호를 십원거사(十願居士)로 했다고 전한다. 이로부터 정 거사가 화엄학에 매우 정통했음을 알 수 있다. 정문제 거사도 염불정토를 주된 사상으로 삼았다. 정문제 거사의 부인 노(盧)씨 역시 독실한 신자로 매일 불명(佛名)을 2~3만회를 염불했다.(<거사전>권49)

이러한 사대고승 문하 거사들의 활동은 만력연간(1573~1620)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는 양명학의 태주학파에 속한 거사들이 맹렬히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성격은 상당한 차별이 나타난다.

자백진가 선사 문하를 제외한 삼대고승의 문하는 모두 선정융합의 길을 따라 염불정토의 길로 들어섰다. 그에 비해 자백진가 문하를 비롯해 태주학파 관련 거사들은 정토를 제창했지만 선의 길로 매진했다. 선과 정토에의 비중은 서로 달랐지만 이들은 사대고승 문하에서 활동하면서 명대에 쇠퇴해 가던 불교를 중흥시킨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민중에 보다 습합할 수 있는 염불정토를 중시했음은 중국의 거사불교가 일반민중과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민간신앙과 불교신앙이 결합될 수 있는 상당한 여지를 줬고 이는 중국 거사불교의 중요한 과정의 하나이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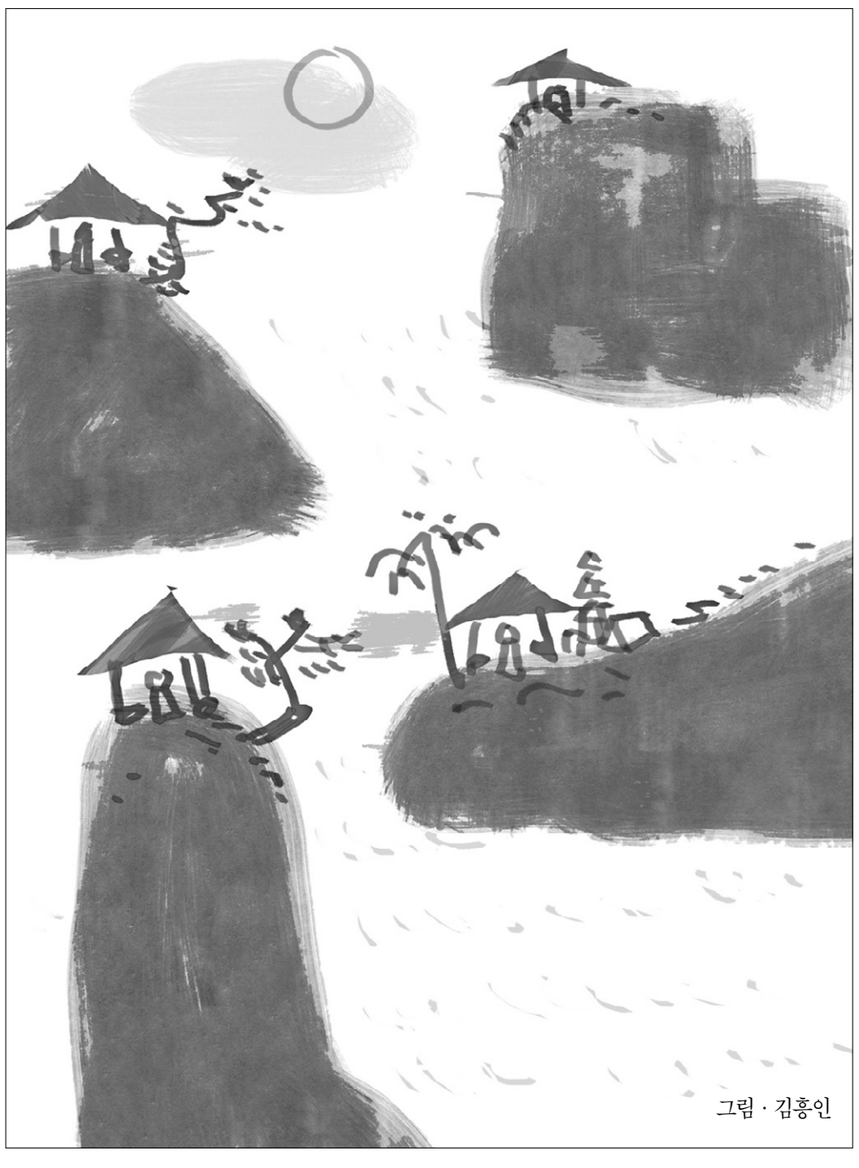


그림 · 김흥인

거사들의 활동은 만력연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염불정토를 중시하여 불교중흥의 전기 마련

운서주굉은 불법이 쇠락한 이유를 바로 ‘광선’과 같은 선의 폐해로 진단하고 계율을 강조했다. 감산 선사가 지은 <연지대사탑명>에는 주굉 선사에 대해 “계로서 족히 호법(護法)을 이뤘고, 절개[操]로서 족히 세상을 격려했으며, 규율로서 족히 폐단을 구했다”(<감산노인몽유집(憨山老人夢游集)>권27)며 운서주굉 선사가 계율을 강조했음을 적었다.

주굉 선사의 제자들은 1000여 명이 넘는다. 제자 가운데에는 재가자가 대다수이다. 거사의 제자 가운데에는 사대부들이 주축을 이뤘다. 감산 선사의 <연지대사탑명>에는 대사마(大司馬) 송응창(宋應昌), 태재(太宰) 육조광(陸光祖), 궁유(宮諭) 장원변(張元?), 사마(司馬) 풍몽정(馮夢禎), 도망령(陶望齡) 등의 사대부들을 거명하고 이어 “도를 물었던 이들이 100여 명이 넘는다”라고 기술했다. 주굉 선사의 제자인 광윤(廣潤)의 <운서주굉본사행략(雲棲袾宏本師行略)>에는 “운서주굉 선사의 재세시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하의 명공(名公)과 고관, 장자, 거사들이 마음을 다해 스승으로 받들었다”고 기술했다. 더욱이 팽제청의 <거사전> 권40~44에는 선사의 사법제자로 추정되는 30여 거사들의 전기가 수록돼 있다. 이로부터 선사 문하에 상당히 뛰어난 거사 그룹이 형성돼 조직적인 활동을 했음을 짐작케 한다. 지면 관계상 이들 거사들에 대한 자세한 행적은 생략하지만, 대다수가 모두 정토신앙에 매료돼 ‘칭명염불(稱名念佛)’에 몰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유행했던 양명학 태주학파의 ‘광선’에 대한 반성적 움직임의 결과로도 보인다.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기문명리학강의안내
www.gimun.net
(사주, 작명, 택일, 관상, 풍수, 단시, 병방)
교육장소
• 경희대학교 사회교육원 ☎ 문의 02)961-0871~2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기문명리학 (해단, 병방론 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사주명리학 (기초, 원리 과정)
개강일시 2010년 3월 첫주부터 (2월 말까지 선착순 마감)
원서접수 경희대학교 방문접수 및 인터넷접수
◎ 담당 교수 : 손 혜림
(동국대학교불교대학원 6기)
손혜림 기문넷 대표
02)3476-3433
기문명리학 이란?
일반명리학이 단지 운명을 추측하여 추정하는 추명학이라면 기문명리학은 정해진 운명의 바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수 천년동안 전맥에 의해 내려오는 학문인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가 기문을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관건이 됩니다. 카운슬링이나 심리요법을 하는 분,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분, 특히 혼미한 세상의 등불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진리의 학문입니다.
손혜림 원장 특별개인지도 문의 010-2376-3433

대한국불교조계종
종 도 모 집
함께할 종도 여러분을 모십니다.
※본 종단은 비구부 · 비구니부를 별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스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본 종단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입종서류
1. 본 종 입종 소정 양식-1부
2. 여권 사진-4매
3. 주민등록등본-1통
4.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1매
5. 사찰 내 · 외부 사진-1매
입종과 동시에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총무원(02)379-5502 / FAX (02)379-0843

범음, 범패 의식 불교대학
제2기 학인 모집 안내
◆ 교육과정 ◆
■ 실기교육 : 홍은사 주지 성각스님
1. 기본과정 : 각단, 각청 불교제반의식
2. 49재 및 천도재 의식, 사물 법고 사다라니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 관욕, 시식 천수바라무, 오공양 작법무
※영남 의식을 기준으로 함.
◎ 개 강 일 : 양, 3월 2일 화요일
◎ 수강일정 : 매주 화, 수요일
◎ 수강시간 : 오후 3시
◎ 범음대학 : 홍은사 대웅전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 초보자환영
◎ 문의 및 접수처 : 홍은사 종무소
(051)243-3165
011-887-8600

다구를 찾아서

1 연재를 시작하며

탕법 · 제다법 따라 차도구 변화 거듭

어떤 것이 좋은 차인가. 차를 어떻게 우려 마시는 것이 좋은가. 차를 처음 접하거나 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전자는 차의 선택 기준을 묻는 것이고, 후자는 차도구의 선택과 탕법(湯法)의 정합성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모두 차를 잘 즐기기 위한 고민으로 차를 즐기는 이들의 당연한 의문이다.

이번 연재에서 다루려는 것은 이러한 주제들이다. 결국 좋은 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좋은 차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다구를 갖추어야 한다. 이보다 앞서 물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나 이 연재에서는 다구를 다루려 한다.



조선의 찻사발. 일본 국보로 고호안이란 암자에 소장된 기자에몬 이도.

당나라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은 차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결론적인 정보들이 잘 드러나 있다. <다경>에는 제다(製茶)의 방법론과 이에 따른 도구, 차 달일 때에 필요한 용품, 실제적인 차 달이기와 마시는 법 등 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정보가 망라되어 있다.

육우는 당시의 음다(飮茶) 풍속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여 제다와 탕법에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한 인물로, 그의 공적은 차문화사(茶文化史)에 확고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로 인해<다경>의 출현 이후 차에 대한 다양한 해답이 제시되었다.

특히 송대의 채양(蔡襄) · 웅번(熊蕃) · 조여려(趙汝礪) · 휘종(徽宗)황제 등이 차에 대한 해결책을 기록으로 남겼다. 명대에 제다법과 탕법의 변화에 따른 이론들을 정립한 인물로는 전예형(田藝蘅) · 허차서(許次紓) · 장원(張源) 등이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 말 선종(禪宗)과 함께 유입된 차는 선승들에 의해 고려 왕실에 영향을 미쳤고, 왕실의 적극적인 차 애호로 인해 다구와 차품(茶品)은 송과 비견될 만한 수준을 이룩하였다. 조선이 건국된 이후 쇠퇴된 차의 중흥을 이룩한 이는 초의선사(草衣禪師)이다.

차의 중요한 탕법은 제다법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 당나라 때에는 전다법(煎茶法)-혹은 자다법(煮茶法)이 유행하였는데, 차를 맷돌에 갈아서 끓는 물에 넣어 우리는 방법이었다. 송대에는 점다법(點茶法) 형태로 발전된 탕법이 출현하였다. 점다법은 다완에 가루차를 넣고 끓는 물을 부은 후 다솔로 저어 거품을 내는 것이다. 제다법에 있어서 최고품인 용봉단차의 출현과 함께 정치한 탕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명대에는 포다법(泡茶法)이 개발, 정착한 시기인데, 이 포다법은 명을 세운 주원장(明太祖 朱元璋)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는 소작농의 아들로 차를 만들던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나라를 세워 황제가 된 후 제조공정이 복잡한 단차(團茶)를 금하고 산차(散茶)를 장려하였다. 이러한 제다법은 탕법에도 변화를 주어 다관에 차를 넣고 우리는 방법이 유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탕법은 현재까지도 유행되고 있다. 음용법은 제다법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구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찻잔의 기준도 시대마다 다른 유형이 유행되었는데, 당대에는 월주요(越州窯)의 청자완을 으뜸으로 쳤다. 당시의 탕색이 담황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차를 담는 잔은 녹색빛이 드러나는 청자완을 선호한 것이다. 송나라 황제 휘종은 백차를 좋아해서 청흑색(靑黑色)이 나는 잔을 선호했으며, 채양은 건안(建安)에서 생산되는 토호잔(兎毫盞)을 선호했다.

한편 채양은 '건안의 잔은 두꺼워서 차를 담으면 쉽게 식지 않아 좋다' 고 하였으니, 차의 온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당시의 탕법을 드러냈다. 특히 명대에는 포다법의 변화로 인해 다구의 형태와 찻잔의 색 등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차를 우리는 차호(혹은 다관)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 찻잔 역시 백자를 선호했다.

초의선사는 <다신전(茶神傳)>에서 '눈처럼 흰색이 나는 잔이 좋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다완은 시대에 따라 차의 탕색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최고로 삼았다.

다기는 차에 있어서 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기의 생명은 차의 색향미(色香味)와 기운을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달려있으니, 이런 바탕 위에 예술적 미감을 갖추게 된 것이다.



백기란
동아시아차연구소 연구원
bdaol@hanmail.net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 22 발우공양



죽비 소리가 세 번 울렸다. 묶였던 발우포가 풀리고 진지(배식)가 시작됐다. 다시 죽비소리가 울렸다. 스님은 두 손으로 조용히 발우를 들어 올렸다.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어쩌다 발우공양을 보면 우리는 평소 너무 쉽게 먹고 쉽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 없이 스쳐가는 일상이 있음을 알고 나면 부처님 법은 귀하고 소중하게 다가온다. 다시 빈 그릇으로 돌아간 발우 안에는 부처님 말씀이 가득했다.

사진은 2008년 3월에 있었던 몽운사 주지 지명 스님의 '세상을 담는 그릇 발우전' 에 전시됐던 한지 공예 작품이다.

옛 판화의 세계

포대화상이 한 사람을 기다리다 (長汀布袋)

당나라 때 주장자에 포대를 끼워 어깨에 메고 저자거리를 유희하며 다니던 사람을 포대화상이라 불렀다. 포대화상이 이렇게 저자거리에 나서면 아이들은 무리를 이뤄 포대화상의 뒤를 쫓았다. 아이들은 서로 다투며 포대화상의 포대를 뺏어 풀러보기도 하고, 물건을 꺼내 아래로 뿌리면서 "보라! 보라!"라며 외쳐대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은 석계차(契此) 스님을 포대화상(布袋和尙)이라고도 하며, 장정자(長汀子) 또는 포대사(布袋師)라 부르기도 했다. 석계차 스님은 명주 봉화현에서 태어났으며, 체구가 비대하고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는데, 항상 커다란 자루를 들러메고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주를 구하거나, 시대나 인간사의 길흉 또는 일기를 점쳤다. 복덕원만(福德圓滿)한 상을 갖추고 있어 회화 · 조각 또는 시문의 좋은 제재가 되기도 했다. 또한 게(偈)를 잘하였으며, 미륵보살의 화신이라는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스님은 같은 고을사람인 장마하라는 이와 함께 목욕을 하고 있었다. 장마하는 목욕을 하던 중 스님의 등에 눈이 하나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마하는 그것을 보고 "그대가 부처님이시다"라고 하니, 스님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장씨에게 '마하반야바라밀경' 을 항상 염송하도록 했다.

또 스님이 행각할 당시 만난 진거사는 스님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더니, 스님은 "허공과 나이가 같다"라고 말했다. 그 후 스님은 악림사의 동곽 반석 위에 앉아 열반에 들었으며, 시신은 봉산에 묻었다.

어떤 이는 "동양으로 가는 길에 스님을 만나고 돌아온 후 스님이 죽은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인이란 사람은 "미륵 진미륵이 천백억으로 분신하였네. 이 때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나 당시 사람들은 모두 몰랐네"라는 게송을 들었다고 말했다.

포대화상이 이렇게 미륵의 화신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가 가셨지만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없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불보살님들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려고 화신으로 나투어 불법을 펴고 있으나 어리석은 중생들이 이를 모를 뿐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장정포대(長汀布袋).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

신년 맞이 현불샵 특별전 17%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항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오직 사람부터 돼야 道가 저절로 불어 돌아갑니다

부처님 법에는 정월이다 해우년이다 그런 것이 없지만,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데는 정월이 있고 새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더 한층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 몸은 바로 부처님의 법당과 같은 것이므로 내 마음을 깊이 이해해서 이 법당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그 법당 속의 모든 자생중생들을 제도하고, 한마음으로 조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근본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겨울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랄 것도 없이 생활이 공부지마는, 하여튼 마음의 공부를 열심히 하시려고 이렇게 모임을 항상 갖는데, 지금 불사가 빨리 되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미안할 것도 없지요. 이 모든 것이 본래는 더불어 같이 한집이니까요. 그래도 집을 빨리 장만치 못해서 올 겨울에 많이 추우셨죠? 그리고 오늘도요.

그러니까 한층 더, 이 법당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그 법당 속에 바로 자부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왜냐하면 그 자부처가 없으면 내 몸뚱이가 움죽거릴 수도 없거니와, 보고 듣고 행할 수도 없고, 모든 게 침체해 들어가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본으로 봐서는 죽고 사는 생사가 둘이 아니요, 영원한 것입니다. 자기 몸뚱이 법당은 낡으면 다시 헐고 또 짓지만 이 마음의 근본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얼마나 진실하냐 하는 모든 것이 그 대뇌에, 즉 누진의 그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돼서 피치 못하고, 현실로 차근차근히, 감겼던 것이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손을 가슴에 얹고 진실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상대성의 원리에서 모가 난 것이라도 둥글게 쓸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법형제법회는 서로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하고 또 대답해 주고 하는 것도 한 도반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배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나이는 먹었다고 해도 마음공부 하는 것은 마치 세 살 먹은 어린애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몰라서 구덩이에 빠지게 될 때, 빠지지 않게 붙들고 하면서 다 배우는 거나 같습니다. 어느 거 하나 내 은사, 스승이 아닌 게 없습니다. 돌 하나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하다못해 티끌 하나도 버림이 없이 스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승이 아니라 서로가 더불어 같이 스승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부처고 누가 부처가 아니고 할 게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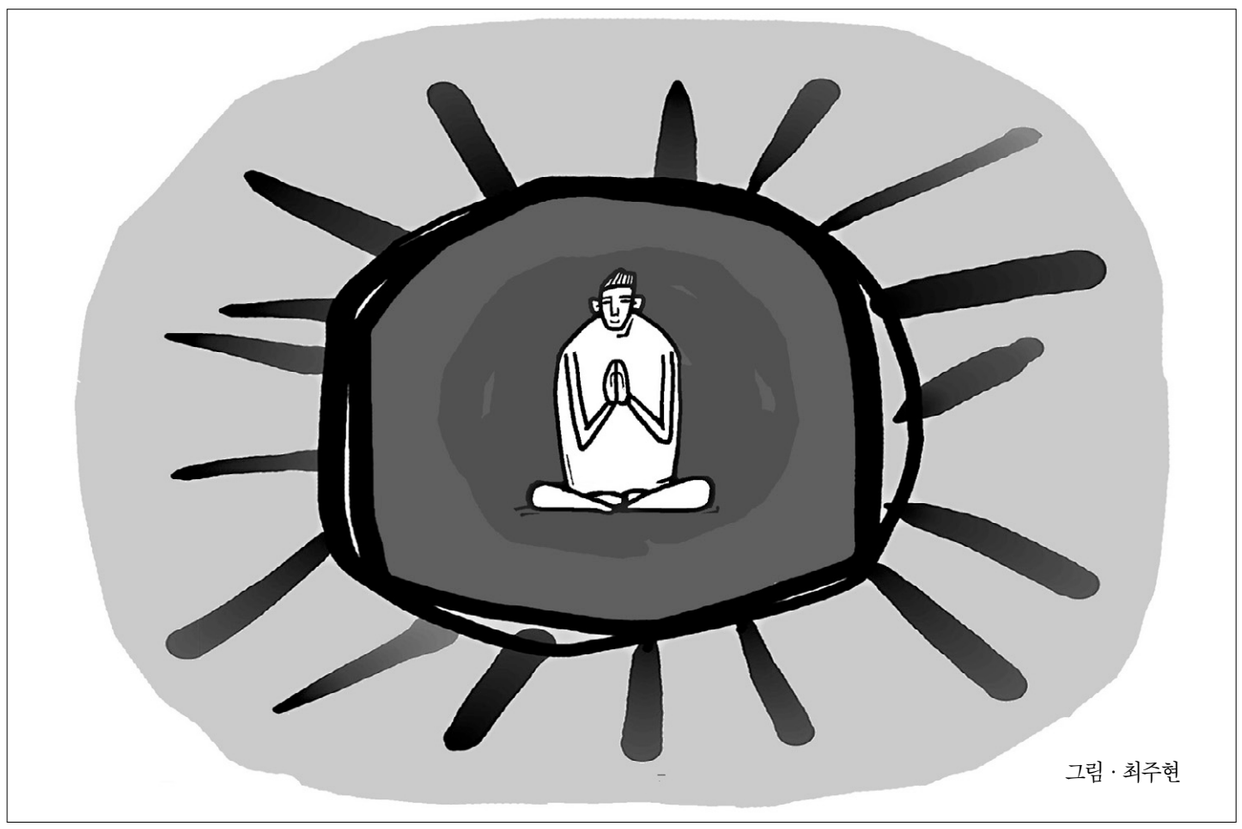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부처라는 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써 하시는 것이 진실된 행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을 부를 수 있고 서로 만날 수 있고 하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 이름이 여러 가지 행을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이름일 뿐입니다. 여래라는 이름도 이름일 뿐이지 그 이름 속에 실천하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남): 대구지원에서 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마음요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초발심자들에게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 큰스님께 여쭈어 볼까 합니다. 『한마음요전』 원리편에 "불성은 영과 다르다.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모습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은 각자 생각내는 그릇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불성은 더함도 덜함도 없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돌아간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같이 선원에 한 3, 4년 다닌 사람들은 불성이다, 주인공이다, 마음이다 또 영혼이다 하는 이 모든 것을 묶어 가지고 크게 바라보면 빛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발심자들은 '불성은 영과 다르다. 영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며' 하는 부분과 '모습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논의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큰스님께 말씀드립니다.

큰스님: 사람마다 다 본체가 있습니다, 근본 본체, 즉 말하자면 본체라는 것은 근본과 이 체와 둘이 아닌 그 자체를 본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본성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기에 그 불성 자체를, 하늘과 땅을 기준해서 불기둥이라 한다면, 불(佛)이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직결이 돼 있고 우주와도 직결이 돼 있고, 이 모든 일체만물이 자라는 그 땅과도 합류화가 돼 있습니다, 천지가 합류화돼 있듯이.

그래서 그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끼고, 수레가 돌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생사윤회 일체가 돌아가는 것이 그 기둥을 끼고 돌아가는데, 그 기둥은 움죽거리질 않습니다. 움죽거리질 않으면서 그 능력만 배출해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다못해 자동차가 가는 것도 바퀴를 굴리려면 그 심봉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바퀴를 꿴 그 심봉은 움죽거리질 않습니다. 움죽거리질 않으면서 바퀴가 굴러가게끔 그 힘만 배출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은 움죽거리질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돌아가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바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잘못 쓰면 그 바퀴에 나쁜 게 감기고, 또 좋은 마음을 써서 악이 거기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선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그것을 바로 영(靈)이라고 그럽니다. 영! 그리고 혼백(魂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본 불성하고는 아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내되, 악하게 쓰면 안 되니까 선하게 써라 이러는데, 부처님의 마음공부에는 악한 것도 선한 것도 다 놔라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게 쓰다 보면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쓰다 보면 악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 양면을 다 놔라 이겁니다. 그 양면을 놓는 법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일러드리는 그것입니다. 선은 감사하게 놓고, 악은 '악이 나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악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그 자리다.' 하고 모두 거기다가 입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질문자1(남): 그런데 큰스님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정자와 난자가 결합될 때 영혼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산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 속에 불성과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닌지요?

큰스님: 같이 있지만 이 영혼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나갔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에 인과가 붙어 있습니다, 영혼에. 자기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악한 인연도 선한 인연도 모두 합세해서 인연이 되죠?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듯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누진이라고 이름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입력이 되는데, 즉 말하자면 과거의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또는 인과성 · 윤회성 · 업보성 · 세균성 · 영계성 이 모두 다섯 가지를 합친 그것을 바로 인연삼아서 영혼이 자기 그릇대로 차원대로 정자 난자를 택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깡통에게 갈 것은 깡통에게 가고, 금한테 갈 것은 금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족이 되는데, 이 몸속에도 가족이 돼 있고 바깥에도 가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깡통은 깡통대로 만나고 금은 금대로 만납니다. 구성되는 것이 이렇게 철두철미합니다. 우연히가 없습니다. 그래서 깡통은 깡통대로 만나니까 "누구의 탓도 하지 마라. 서로 깡통의

☞26면으로 계속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법당 · 앰프 · 마이크 · 스피커 설치공사
사찰 CCTV 설치 (적외선 카메라)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엠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장사동 156번지 아세아전자상가 가열 119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H·P 010-8705-4288

대덕큰스님과 불자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buddhanews.com

한 찰나에 밝아질 수 있는 것이 이 마음공부!

☞25면에서 계속

차원이어서 깡통끼리 부딪쳐서 소리만 요란한 것이니까 이것도 깡통이 된 내 탓이다라고 생각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자비한 마음으로써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말을 해 준다면 서로가 '아,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데도 저렇게 선하게 저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녹아지고, 녹아지면서 또 이쪽도 그렇게 서로 응하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응해지죠. 그럼으로써 화목해집니다. 그러면서 화목해지면 돈도 그 화목한 집에 들어가지 악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영혼! 이 자체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말을 한참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물었는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1(남): 스님, 초발심자를 위해서 이것을 한 번 더 여쭈겠습니다. 불성과 주인공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불성이라는 것은 한 근본을 말하는 거고요, 주인공이라는 것은 내 몸체와 마음내는 거와 불성을 통합한 겁니다. 지금 주인(主人)이면서도 공(空)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자체를 바로 딱 집어서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예!

질문자1(남): 제가 아침에 질문을 하려고 이것을 빼 가지고 오면서 차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불성과 주인공과의 관계, 마음과 주인공과의 관계, 영혼과 마음의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퍼뜩, 이 모두가 빛과 같은 말씀이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빛은 그냥 밝게만 보이지만 빛을 등지고 물을 뿜었을 때는 오색무지개가 나옵니다. 그 무지개 속에는 생명의 빛도 있고 약사의 빛도 있고 그야말로 만물의….

큰스님: 이거 보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배웁시다.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하나, 이파리 하나하나 여러 가지로 얘기하다 보면요, 생이 다하도록 배워도 못 배웁니다.

질문자1(남): 그래서 빛과 같다는 그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큰스님: 아, 지금 말하는 것도 빛과 같죠. 허허허…, 고정됨이 없으니까요. 이 말 하고 저 말 하고 그러는 거지, 고정되게 한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했으니 무엇은 안 되겠습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주인공에서 일어난 거니까 주인공에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놓으라는 얘깁니다. 이 주인공이란 티끌 하나 빼놓지 않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내부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말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해도 안에서 의식들이 그냥 나쁜 생각과 하나로 돌아가고,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건 왜냐? 의식들이 자기가 자유자재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식들이 자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의식이.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내라, 좋은 생각을 내라 이러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아, 내가 수억겁을 거쳐 올 때 어떤 모습은 안 됐을 거냐. 어떤 모습도 안 돼 봤을 리가 없으니까, 그때의 바로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그것을 둘이 아니게 생각하라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뿌리를 얘기할 때 가지를 쥐고 애를 쓴다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 뿌리에 가지 잎새가 헤아릴 수가 없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뿌리의 그 근본만 알면 그 가지는 저절로 알아지고 잎새도 저절로 알아집니다. 그러니까 가지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잎새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오직 자기의 뿌리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나무들을 볼 때에, 뿌리에 모든 싹이 붙어 있는데, 그 싹이 잘못 생각을 한다면 뿌리가 썩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벌써 가지가 썩습니다. 그와 같이 나무들은 흙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 흙에 덮여서 자기 뿌리를 못 봅니다. 그런 거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인간도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보기 때문에 무명에 덮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려진 것이 가려지고, 한 찰나에 밝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 가지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 잎새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 오직 자기의 뿌리에 집중하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육신이 태어났으면 마음이 태어나라. 마음이 태어났으면 마음을 길러라.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또 내가 견성했다고 하지 마라. 마음이 태어났다면 견성을 했다고 모두들 하는데 견성했단 말 하지 마라. 어린애가 어른이 돼야 어른 값을 하지, 어른이 되지도 않았는데 어찌 어른 값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오(頓悟)'는 탄생하는 거요, 또 길러 내는 거는 '점수(漸修)'입니다. 그게 이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와 돈오가 둘이 아닌 까닭을 알고 진실하게, 이 이름 찾고 저 이름 찾지 말고, 내가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다 이런 생각도 말고, 오직 사람부터 돼야 도(道)가 거기 저절로 붙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히 가지시고 누가 뭐래도,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철 살다가 가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걸망을 걸머지고 어디 놀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데서 놀러 온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놉니다. 같이 놀다가 해가 지면 다시 헤어져서 돌아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그렇게 잠깐 놀다 가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놀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모습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요, 살다가 보면 저절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는 것으로부터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이 타당하게 딱 받아들여질 때에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책을 보고 적어 가지고 온다면, 허허, 적어 가지고 와서 그걸 글자로 알려고 하면 반쪽밖에는 못 들어갑니다, 반밖에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또 우리가 아는 것을 질문을 할 때는 남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거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떡그릇에 엎드려져라 하는 격으로,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질문을 던질 때, 모든 사람이 그 한마디를 듣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것도 바로 보살행입니다.

질문자2(남): 저는 안양 본원 법형제에 나가고 있습니다. 상천계, 중천계, 하천세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계는 중천계 중의 미물세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계가 따로 있는지, 그리고 따로 있다면 이 태양계 내에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아이고!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보고 살잖아요. 땅 속에서 사는 거, 날아다니면서 사는 거, 땅에서 사는 거, 또 우리 인간들이 사는 거, 이렇게 보고 살지 않으세요?

질문자2(남): 봅니다.

큰스님: 그래서 하천세계는 바로 짐승들, 그 하천세계를 말하죠. 중천세계는 우리들이 사는 이런 세계를 말합니다. 상천세계는 부처님 같은 분들, 이런 깨친 분들이 사는 그런 세계라고 일컬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삼천세계가 바로 한도량에 있으니, 도리천에 자재활동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다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다가도 오다가도 앉아서도, 생각날 때 볼 때 들을 때 그냥 무조건 내가 응해 줄 수 있는 응신(應身)이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죠. 부처님 옆에 왜,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양쪽에 놓으시죠? 그 삼불(三佛)은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의 능력으로써 한생각을 내시면, 즉 말하자면 이것을 문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란 얘깁니다. 그러니까 법이 되죠. 그러면 마음을 내면 또 이쪽에서는 보현이 됩니다. 화(化)해서 보현이 돼서 보현이 화신(化身)으로 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이 원한다면 짐승한테로 가기 위해서 짐승이 돼 주고, 짐승이 돼야 저항력을 느끼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건져지니까 말입니다. 사람이 원한다면 사람으로 화하고, 뭐 천차만별의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화신으로 화해서 변합니다. 천 개 만 개로도 변합니다. 변해서 바로 가서, 개라면 개대로 개가 돼 주면 그냥 응신이 되는 겁니다, 응신! 이 뜻을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아는 거지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 드리되, 이 뜻을 알고 우리가 공부를 자꾸자꾸 하다 보면, '아, 그때 말씀하신 게 이 거로구나.' 하고 체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치할 수 있게끔 그 자재로운 활용을 할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것은 자기 생사의 문제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죽는다 산다도 떠났으니까 하는 겁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도를 이루어서 부처가 되겠다.' 한다면 부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냥 생활 속에서 배우면서 체험하면서 자꾸 가다 보면 저절로 하늘에 닿듯이, 저절로 직결이 돼 있는 걸 알게 되고 통하는 걸 알게 되고, 적응하는 걸 알게 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조금조금 실험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단번에, 그 밟아야 될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그냥 밟고 올라서는 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가 배운 대로 그릇대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허허….

질문자2(남): 불교를 공부하지 않은 서양의 유명한 사람이 수백 년 전에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80, 90%가 맞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가 아예 짜여져 있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또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그러셨는데, 어떻게 미래를 80, 90%까지 미리 얘기를 해서 맞출 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아이, 참 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데요, 내가 항상 그러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입력된 모든 것이 바로 현재 이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다 들어 있어서 거기서 그대로 차곡차곡 입력됐던 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예언을 하느냐 이거죠?

질문자2(남): 네.

큰스님: 네. 허허허….

질문자2(남): 그러니까 2차대전이 일어나는 거 같은 이런 거….

큰스님: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공(空)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 삼세심(三世心)을 일심(一心)으로 뭉쳐서 공 안에다 넣어라.' 이러는 거는 일체 삼세가 다 공했으니까, 그 공 안의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다 모두 놔라 이러는 겁니다. 거기 '한마음' 이러면 벌써 과거 · 현재 · 미래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미래를 예언하는 자는 소인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거는 자유자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예언이 없습니다. 왜냐?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럴 수도 있고, 내일 이랬다가 모레 저럴 수도 있고, 허허허…. 아니, 바꿔 놓기도 하고 뒤집어 놓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되게 딱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언을 못한다는 얘기죠. 예언자는 아예 소인이면서도 도둑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컵을 여기에 갖다 놨는데 이거를 '여기 있다' 하고 예언을 한다 해도 잠시 후에 이 컵을 또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언한 게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언자가 정말 있어서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예언한 것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부처님께 걸린다면 예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는 소인의 행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본 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한 번 들은 게 그대로 있습니까? 종소리 나는 거를 들고 올 수가 있습니까? 먹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귀에다 넣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예언을 못합니다. 종소리가 금방 났다 금방 멎었다 하는데, 어떻게 종소리가 난다고 예언을 합니까? 그리고 종소리가 안 난다고 할 수도 없고 종소리가 난다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소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아시겠죠, 모두.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5년 2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봉녕사 승가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 모집 공고

본 승가대학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명

◆ 지원자격
-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
(초발심자경문, 염불실기, 불교기초지식)

◆ 도착일시
- 2010년 **3**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 用)
5) 최종학력 증명서
6) 사진(3×4) 3매

◆ 준 비 물 : 만의, 장삼, 필기도구

◆ 버스운행 : 수원역 앞에서 봉녕사 승가대학 버스를 오후 1시 ~ 4시까지 운행함.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 묘엄

문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승가대학** ☎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봉녕사 금강율원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봉녕사 금강율원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명

◆ 지원자격
-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 졸업생 스님들의 입방도 가능)

◆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불교교리, 범망경)

◆ 도착일시
- 2010년 **3**월 **15**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건강진단서(종합병원 用)
6) 승가대학 졸업증명서
7) 사진(4×5) 3매

◆ 준비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봉녕사 금강율원 율 주 묘엄
율원장 대우

문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금강율원** ☎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땐 어떻게 하죠?

Q 부부동반 모임이 있어 친구 아이들과 우리 아들들만 집에 남겨두고 외출 한 사이 음란사이트에 들어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학생인 친구집 아들의 주도로 보게 된 것 같은데 친구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또 어떤 방식으로 아이에게 접근해 이 일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어머니가 당황하시거나 자녀에게 화를 내시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머니가 담담하게 응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나쁜 어른들이 돈을 벌려고 만든 잘못된 것이다. 나쁜 어른들에게 돈을 벌게 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주세요.

사춘기에 성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것은 부모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은 인터넷 음란물에 노출돼 있기에 이번과 같은 일에 대해 아이를 비난하지 마시고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성에 대해 질문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만들어 진다면 더 좋구요.

또 민감한 부분이라서 친구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의 자녀도 함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생각하고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씀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있었던 사실만을 전달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내담자께서 충격 받은 부분만을 담담하게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 아이를 원망하지는 마세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지금부터는 대처를 잘 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공업(共業)이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죄업을 짓지 않더라도 남과 함께 죄업이 만들어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일로 아이들의 성문제나 자녀의 고민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을 좋은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Q 불교는 염세적인 종교가 맞는지요?

A 불교는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인생과 우주의 진리를 깨치신 분이며 그 진리의 내용은 연기로 인연법 또는 인과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의 법칙으로 원인과 결과가 돼 서로 의존하며 생겨난다는 것이지요.

연기법은 현상관계뿐 아니라 인생의 실상도 바르게 깨닫게 해줘 나와 남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인간과 자연계의 공생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도리를 이론이 아닌 몸과 마음으로 깨우치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中道),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空) 등이 핵심교리입니다. 인과의 법칙에 의하면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고 하지요. 그것이 운명론 같기도 하지만 선업과 악업에 따라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자신을 구속하기도 합니다. 모두 자신이 책임져야만 하는 정확한 결과입니다.

또한 무아와 무상을 포함한 공은 허무 · 염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공과 같아서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창조됩니다.

허공과 같은 마음이 공입니다. 공으로 자기를 비우고 허공처럼 마음을 열면 그 빈 마음에 모든 것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넓어지고 우주와 하나가 된다고 하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 무상 · 공 등을 허무하다고 잘못 이해하면 불교를 염세적인 종교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특징은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일에 집착하지 않고 실천을 강조합니다. 더불어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염세적인 종교가 맞나요?

인과법칙에 따라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종교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국민은행 001-01-2021-361
(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지금 여기서 참회해 악연 고리 끊으세요

사랑법당 탐방

서울구치소법당


서울구치소 불심회 회장 김행규 교도관(오른쪽)과 회원 유회영 교도관.

23년 전 9명으로 출발, 80명 활동… 자비봉사단 구성

사형수 6명과 세 차례 1000일 기도… 3명 무기로 감형

봄비가 내린 2월 8일 아침, 부산에서 온 법용 스님(한국달마선사상회 회장)이 구치소 내 불교상담소에서 재소자와 상담 시간을 가졌다.

재소자는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악연을 지은 것에 대한 후회가 많다.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참회가 가능할까요?"라며 질문했다.

법용 스님은 "사형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충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날에 맺었던 악연을 지금 참회하지 않으면 또 반복된다. 여기서 참회해서 그 인연을 끊어야 한다.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라. 현재 있는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모습이 미래의 모습과 다름없음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법당에 상주하는 스님은 없다. 하지만 법용 스님처럼 인연이 있는 스님들이 찾아와 재소자들을 상담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도 2001년 서울구치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꾸준히 교정교화 활동을 하고 있다. 또 구치소 교도관 불자 중심으로 모인 서울구치소 불심회가 법회나 교리공부 기도정진 상담 등을 통해 재소자들에게 마음의 안식을 찾아주고 있다.

서울구치소 교화활동의 중심에는 불자 교도관으로 구성된 서울구치소 불심회(회장 김행규, 이하 불심회)가 있다. 1987년 6월 서울 대원사에서 9명의 회원으로 첫발을 내딛은 불심회는 현재 80명의 교도관으로 구성돼 있다.

불심회는 기도를 통해 불보살님의 가피를 경험한 적도 있다. 2001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사형수 6명이 불교 신행활동에 열심이었다. 그들은 사형 집행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들을 지켜보던 불심회는 "2001년 6월부터 1000일 기도 해보자"고 제안했고, 사형수들은 흔쾌히 동참했다. 1000일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형수 중 1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 바로 2차 1000일 기도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2007년 12월 31일)에 2명의 사형수가 감형이 됐다. 지금 진행 중인 3차 1000일 기도는 2010년 10월 23일 회향이다.

서울구치소 불심회 김행규 회장은 "재소자들은 수시로 불교에 대한 질문을 해온다. 내가 공부한 교리나 기도법을 재소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불자로서 즐겁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업무 자체가 곧 봉사이자 포교가 될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회원 모두가 돈독한 불심으로 업무에 충실해 불심회를 번창시키고 많은 재소자들을 부처님 말씀으로 교화하겠다"고 밝혔다.

불심회의 뜨거운 신심과 원력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내 불교활동은 이웃종교에 비해 열세다.

김행규 회장은 "불자 직원들의 노령화에 따른 퇴직으로 불심회의 회원이 감소 추세"라며 "교도관 중 잠재적인 불자들은 많은데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불교 활동에 관심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불심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부터 불심회가 중심이 돼 '자비봉사단'을 구성하고 종교에 구분 없이 많은 교도관들과 봉사활동을 다닐 계획이다.

서울구치소는 미결수(未決囚)가 많아 상담을 하고 합장주를 받은 재소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수감과 이동이 잦다보니 불심회가 제공하는 단주나 법요집이 늘 부족한 실정이다. 김행규 회장은 "얼마 전 은해사(주지 법일)와 기림사 회주 동춘 스님이 합장주와 불교서적을 보시했지만 항상 물품이 부족하다"며 불자들의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딱딱한 벽과 쇠창살 사이로 보이는 재소자들의 모습에 추운 날씨가 더 시리게 느껴졌다. 불심회를 비롯한 서울구치소 불자들은 오늘도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서울구치소는 1908년 7월 경성감옥으로 문을 연 이래, 1912년 서대문감옥, 1923년 서대문형무소, 광복 후 1946년 경성형무소, 1950년 서울형무소, 1961년 서울교도소, 1967년 서울구치소로 그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서대문 금계동(현 현저동 101번지)에서 1987년 11월 현 위치인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으로 신축 · 이전했다.

서울구치소는 주로 미결수(未決囚)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 80%를 차지하는 미결수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 제1 · 2심 피의자 및 피고인들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20%로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사형판결 후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과 사형 확정자가 있다. (031) 5961-567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命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화제의 신간

누·구·나·쉽·게·이·해·하·고·배·울·수·있·는!!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설 !!

四柱學의 초보자나 학생, 전문가, 결혼 중개사는 꼭 배워야하는 四柱學의 秘傳으로 누구나 이 책 한권으로 한번만 읽어도 쉽게 專門家가 될 수 있도록 核心만을 간추렸다.
대대로 수제자들에게만 전해져온 사주풀이의 비법을 공개한 이 책은 기존 대부분의 사주풀이 방법을 완전 뒤집은 진정한 사주풀이의 혁명적 秘書가 될 것이다. 특히 여자사주와 궁합의 원리는 한국 古代 道人들로부터 秘傳으로 傳受되어온 秘法으로 天氣를 누설한 四柱學의 革命을 가져 올 力作이다.



이젠 천기를 누설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설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 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 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4×6배판/양장본/70,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신국판/청산 김성진 지음/35,000원
新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50,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신국판/양장본/5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평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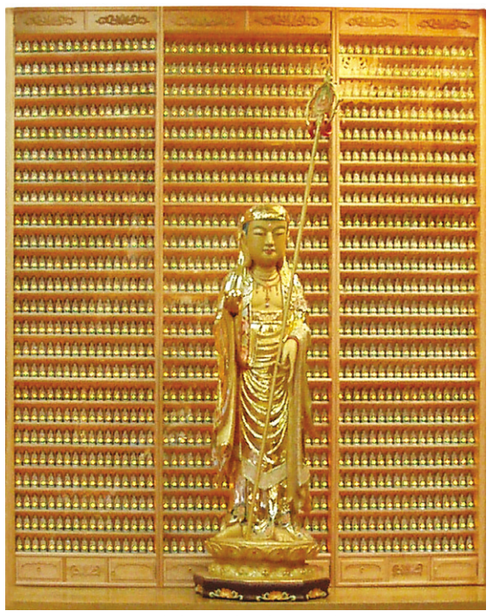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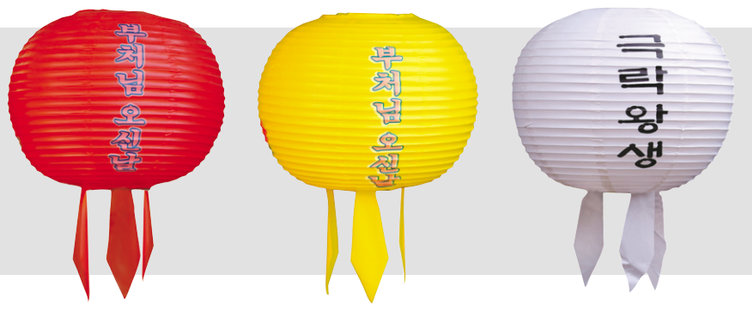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 왕생극락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 름 등


공 단 등


영 가 등


종등


종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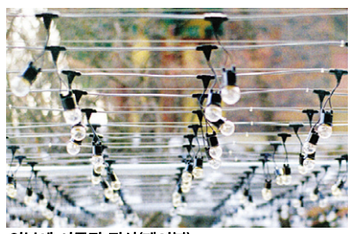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연등 설치 후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불교서적 · 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 운주사 www.unjusa.com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공부를 위한 깊이 있는 통찰, 도서출판 운주사의 〈밝은 사람들 총서〉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욕망의 본질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욕망이 없는 삶은 과연 행복할까? 반대로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은 행복할까? 욕망은 삶의 주체인 인간이 그 욕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하느냐에 따라 혹은 억압과 발산의 조절능력에 따라 그것이 괴로움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삶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정준영, 한자경 외 | 신국판양장 | 400쪽 | 값 18,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자아의 실체에 대한 초기불교, 중관 ·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심리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나는 누구인가?' 이 책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근원적인,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이것이다라고 명쾌하게 답하기 어려운 '나' 라는 존재에 대해, 인간 내면의 문제에 가장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 불교에서의 관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성찰하고 있다.

권석만, 김진무 외 | 신국판양장 | 504쪽 | 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음의 작동에 대한 초기불교, 유식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정신의학, 인지과학에서의 성찰

형체가 없어 보이지도 잡을 수도 없는, 분명 존재하지만 도대체가 그 실체를 알기 어려운 마음의 존재와 작용 방식에 대해, 가장 오래된 연구 전통을 자랑하는 불교와 제반 인접 학문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어, 마음 연구를 위한 총체적 편람 역할을 한다.

미산, 윤원철 외 | 신국판양장 | 396쪽 | 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몸의 작용,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초기불교, 선불교, 동양철학, 서양철학, 의학, 생물학에서의 성찰

물질과 정신, 몸과 영혼의 문제는 인류 지성 앞에 던져진 가장 근원적인 의제 중의 하나이다. 몸은 마음(영혼, 정신)의 부속물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아니면 서로 동등한 입장의 동업자인가? 이 책은 '몸' 의 역할과 정체를 '마음 공부' 의 측면에서 성찰하고 있다.

우희종, 성태용 외 | 신국판양장 | 424쪽 | 20,000원